

디지털 시대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동양식

책임연구원 : 이각범(한국정보통신대학교 교수·한국정보사회학회 회장)

공동연구원 : 황상민(연세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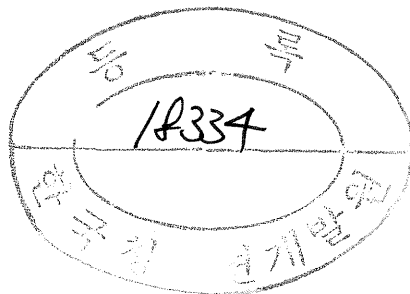
장경섭(서울대학교 교수)

김옥순(수원대학교 교수)

배영자(건국대학교 교수)

강원택(숭실대학교 교수)

유성경(이화여자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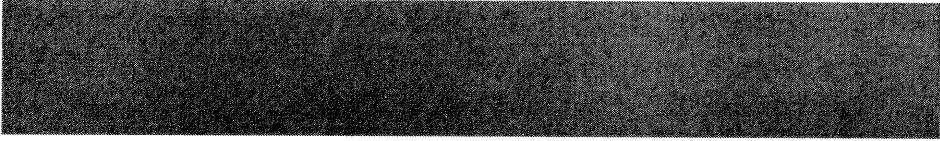


한국청소년개발원

목 차

서 론	1
I.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청소년의 또래 관계	5
1. 한국 사회 속의 인간관계의 변화	7
2. 다양한 인간관계와 정체성의 유지	20
II. 정보화와 한국의 청소년기: 국가, 산업자본, 매체의 역할	23
1.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과 청소년기 : 국가-학교-가족 동맹에서 국가-기업-매체 동맹으로	25
2. 산업화 시대의 삼각동맹과 학교의 전성시대	27
3. 민주정부들의 청소년(기) 정책과 개발전략으로서의 정보화	32
4.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과 산업자본-청소년 관계	36
5. 정보화 시대의 매체질서와 세대정치	41
6. 결 론	45
III. 디지털 시대 청소년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49
1. 들어가는 글	51
2. 정보사회와 지역사회연구	52
3. 정보사회 청소년의 지역사회 인식조사 방법 및 내용	64
4. 연구 결과	66
5. 요약 및 결론	85
IV. 디지털시대 청소년의 세계 인식	95
1. 문제제기	97
2. 정보화, 거버넌스, 정체성	98
3. 인터넷과 청소년의 세계 인식 변화: 현황과 평가	103
4. 맺음말	109

V. 디지털 시대와 청소년의 가치관	115
1. 서론	119
2. 정보화와 정치	120
3. 인터넷 정치 토론과 속의 민주주의	128
4. 디지털 시대의 정치의식: 다양성과 관용	132
5. 결론	136
VI.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교사상	139
1. 서론	143
2. 교사 역할의 중요성	144
3.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 만족도 현황	146
4.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교사상	147
5. 청소년의 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관한 대안	152
6. 결론	154
결론	161



서론

서론

오늘의 청소년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상에서 살게 된다. 여러 모로 기존의 산업사회와 다른 사회적 특성 속에서 성장하는 디지털 세대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연구하는 것은 미래사회를 예견하고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 보고서를 통하여 연구자들은 디지털 사회를 사는 청소년들이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려 하는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들이 빈번하게 접촉하는 대상은 친구, 가족, 교사이다. 또한 그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주변 환경 중에서 중요한 변수로 지역사회, 세계, 정치를 뽑았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청소년의 또래 관계”를 연구한 황상민 교수는 현재 청소년이 갖는 인간관계의 특성에서 출발하여 미래의 인간관계를 예측하고자 시도한다.

장경섭 교수는 “정보화와 한국의 청소년기: 국가, 산업자본, 매체의 역할”이라는 제목 아래, 국가-학교-가족 동맹에서 국가-기업-매체 동맹으로 전환하는 청소년기 관리체계의 특성을 다룬다. “디지털 시대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동양식 -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김옥순 교수는 지역사회를 현실공간, 사이버공간, 기능적 공동체로 나누어 각 공간별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행동양식을 검토한다. 배영자 교수는 “디지털 시대 청소년의 세계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인터넷과 청소년의 세계 인식 변화를 검토, 평가, 예견한다. “디지털 시대와 청소년의 가치관”에 관하여 강원택 교수는 인터넷의 도래가 가져온 정치적 참여와 논의구조의 변화 속에서 청소년의 대응방식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한다. 끝으로, 유성경 교수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교사상”과 관련하여 청소년기라는 특성상 중요한 역할모델을 하는 교사에 주목하면서 청소년들의 교사상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교사상에 관한 대안을 제시한다.

디지털 세대의 부상과 함께 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도 디지털 기술이 가져오는 세대적/사회적 변화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때맞추어 한국청소년개발원이 부족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 이 보고서는 청소년 관련 기관의 정책 입안과 실행을 위해서, 언론과 문화 관련 부문의 방향설정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모든 분야의 종사자들이 실질적인 실행 지침을 위해서 참고할 만한 유익한 연구 성과가 되리라 기대한다.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I.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청소년의 미래 관계

1. 한국사회 속의 인간관계의 변화
2. 다양한 인간관계와 정체성의 유지

황 상 민

(연세대학교 교수)

I.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청소년의 또래 관계

1. 한국 사회 속의 인간관계의 변화

특정 사회환경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따라 스스로의 위치를 규정한다. 이것은 스스로가 자신을 규정하는 특성, 즉 정체성의 근원이 된다. 이 정체성은 집단 구성원이 공유하는 특성의 일부이자 개인의 모습이기도 하다. 사회 구성원들은 생활경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체성을 습득하게 된다. 한국인의 인간관계는 바로 한국사회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규범 그리고 한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볼 때, 미래 사회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탐색은 그 사회에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이것을 공동체적 정체성 또는 이전 세대의 집단 정체성과 어떻게 통합시켜 나가는지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과거 한국사회의 인간관계의 핵심은 가족이나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주의였다. 가족주의에 기초한 인간관계는 한 외국인의 눈에 다음과 같이 보이기도 했다.

한국인은 자기가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친절과 호의가 대단하지만 반대로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대시 할 정도로 냉담하다(독일 경제신문 특파원, 한델 스블랏트).

이런 인간관계의 특성은 지난 50년 동안 한국사회에 나타난 급격한 근대화과 산업화로 인한 변화를 반영한다. 대가족 중심의 가족구조는 핵가족 중심으로 변모하였고, 인간관계에서도 가족주의적 집단성에서 관계적 또는 개인주의적 특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간관계의 탐색은 개인이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고 그 사회공동체의 가치와 규범을 받아들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현대 한국사회는 문명화된 서구 사회에서 1세기 이상에 걸쳐 이루어낸 사회변화를 불과 40-50년 만에 이루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전통적 보수적 가치관과 새롭게 받아들여진 서구적 가치관이 동시에 존재하게 했다(최흥기, 1994). 표면적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집단적이며 잘 짜여진 공동체적 규범 속에서 자신의 생활양식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개인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특징지을 수 있는 사회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를 찾으려고 하면 실제 다양한 규범과 가치가 혼란스럽게 늘려만 있지 특징적인 행동규범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직면한다. 하나의 예가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도이다. 중년층 이상의 세대들은 트로트를 선호하고 이것은 한국인의 서정성을 대표하는 음악이라고 한다. 그러나 청소년 집단이 선호하는 음악은 한국인의 서정성과 관련성을 찾기 힘든 랩과 힙합류의 춤이다. 심지어 가장 서구적이라는 록이 이들의 정서를 사로잡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사회의 집단 정체성이 개인적 수준에서 표현되는 것과 집단적 수준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대중문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사회의 집단적 성향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하는 가족행동에서도 이런 차이는 뚜렷하다. 예를 들면, 휴일에 한 가족이 외식이라도 하러 가려면, 부모와 청소년 자녀들이 각각 갈비집과 피자집 또는 맥도날드로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현대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생활양식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각기 다른 세대 집단들이 서로 공유하는 공동체적 특성이나 규범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1960년대의 근대화 시기 이후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성장한 부모세대와 이들이 만들어준 안정적인 생활양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자라난 청소년 세대들이 동일한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활양식의 차이는 이들이 경험하는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차이를 유발하였다. 기성세대로 대표되는 부모와 자녀 집단들은 서로의 행동특성을 이해하기 힘들어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жат대를 적용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1) 집단 정체성과 인간관계의 변화: 수우족 인디언 사회의 예

사회적 변화에 따른 사회적 규범과 가치의 혼란이 인간관계에 반영되는 현상은 단지 지금과 같은 산업화 사회의 정점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면, 사회적 변화에 따른 인간관계의 변화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심리적 혼란을 고려할 때, 미래의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게 되는 인간관계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것인지 살펴보자. 도래하는 21세기 사회는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이 사회의 특징은 어떤 하나의 문화나 가치가 개인이나 사회의 절대적인 가치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변화는 한편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현재의 부모 세대들이 경험하였던 가족중심의 공동체적 사회속성이 사라지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특정 사회집단 속에서 한 개인이 자라나는 과정은 점차로 그 집단 속에서 자신의 위치나 역할을 규정하면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속성을 자신의 모습으로 구체화한다. 이것은 개인이 집단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습득하면서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처럼 특정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개인이 형성하는 인간관계가 개인의 정체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통찰을 제공한 사람은 Erikson이다.

Erikson은 인간 발달과정을 한 유기체가 경험하는 다양한 인간관계의 속성으로 개인의 모습을 보았다. 최초의 '신뢰로운 관계 형성'에서 인생의 말기에 '자기 통합적인 관계'까지 다양한 관계적 속성은 개인의 정체성의 근원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간관계는 한 개인의 내적인 모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화되었다. 이처럼 사회적 관계가 개인의 내면적인 모습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개인은 그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개인

의 정체성이 사회 구성원들이나 집단 속의 인간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과 일치되지 못할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심각한 심리적 장애와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개인의 정체성이란 그 개인이 이루는 인간관계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자 삶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와의 일치성을 의미한다. 개인적 삶은 하나의 사회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 사회 공동체는 개인의 삶에 내용을 부여한다. 개인의 인간관계가 혼란된 공동체의 정체성 속에서 갈등을 경험할 뿐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상황을 Erikson은 보호구역에서 살고 있는 인디언의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다. 이 사례를 통해 Erikson은 집단적 정체성의 해체와 개인적 인간관계의 혼란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수우족은 평원의 사냥꾼의 전통을 가진 부족이었다. 그러나 보호구역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더 이상 평원을 넘나들며 들소 사냥을 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용맹하고 날쌔던 사냥꾼으로 양육되어 왔던 이들은 백인이 지배하게 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생활양식을 받아들여야 했다. 사냥꾼의 이동생활의 한 방편으로, 획득된 소유물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경제원리와 이에 따른 너그러움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가치는 경쟁에 의한 쟁취와 소유를 강조하는 백인들의 생활윤리와 일치할 수가 없었다. 백인의 삶의 양식과 행위들은 인디언 부족의 전통적인 가치 규범이나 공동체적 윤리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전통적인 사냥에 의한 경제행위에서 자본에 의한 노동활동에 의한 경제양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의 구심점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인디언들은 점차, 전통적으로 유지해왔던 삶의 양식과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에 기초하여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설정해야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백인의 삶의 방식은 경쟁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마련하는 것이었지만, 수우족의 전통적 가치는 공동체의 규범을 지키면서 용맹한 전사이자 사냥꾼이 되는 것이었다.

수우족 인디언들은 보호구역 내에서 백인과 현실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기를 부정하고 그냥 무관심한 상태로 그리고 비교적 무기력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생활을 유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백인의 가치를 추종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찾으려는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배척당하고 소외되었다. 이런 문제 이외에 이 사회 속에는 많은 문화적 병리(cultural pathology)가 나타났다. 알코올 중독이나 줌도독의 형태로도 나타났지만, 대부분 '일반적 무감각'과 보이지 않는 '수동적 저항'을 보였다. 소수의 백인 편에 서 있는 인디언들도 강박행동, 지나친 양심, 그리고 일반적 경직성으로 나타나는 '신경증적 긴장감'도 나타났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인디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백인 교사의 가르침에 복종하도록' 지도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아이들은 이와 같은 압력을 '일종의 응종(應從)'으로 받아 들이는 상황이었다.

백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가 인디언 사회 속에 도입되면서 인디언들이 경험한 것은 자신들의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개인적 정체감과 집단적 정체감의 혼란으로 나타났다. 이 혼란은 개인이 경험하는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으로 표출되었다.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추어진 공동체 속에서 구성원들은 자신의 역할이나 모습을 스스로 규정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잊혀져가는 과거에 현실의 자기 모습을 찾고자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것은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형성하고 유지해왔던 정체성이 실재의 삶의 방식과 일치하지 않을 때 심리적 갈등과 인간관계에서의 심각한 장애를 경험하게 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에릭슨(Erikson)”이 소개한 인디언 부족의 정체성의 혼란과 인간관계에서의 장애는 바로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그 징후를 찾을 수 있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급격하게 일어난 변화는 바로 현재 우리 사회에 수우족 인디언 문화와 백인의 문화를 동시에 펼쳐 놓은 상황을 만든 것이다. 이 속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은 새로운 인간관계의 모색과 이를 통한 자신의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2) 현대 한국사회의 정체성과 또래 관계의 발달

인간관계는 사회적 형식의 습득이자 개인적 학습 활동의 산물이다. 집단적 정체성과 동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유교사상은 한국인의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속성이었다. 근대화의 물결이 조선 이후 우리 사회에 줄기차게 일어났음에도, 지난 30년 이상 우리 사회를 지배하였던 군사문화의 영향과 더불어 한국 사람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집단주의적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런 특성들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현실에서의 또래관계를 우리와 남, 또는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집단주의적 패거리적 속성으로 나타나게 만든다.

“한국인은 비합리적이어서 기분에 치우치고 신경질적이다”(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¹⁾ 울브리히 특파원).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인의 인간관계는 분명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들의 인간관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속성은 바로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의 모습과 집단적 정체성을 통합한 모습에서 나타난다. 현대 한국사회 공동체는 전통적인 유교문화와 근대 서구문화가 섞여진 비교적 혼란스런 모습이다. 이 모습은 우리 사회의 정체성이다. 서로 동일하지 않은 다른 두 모습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 모습은 부모세대로 대표되는 기성세대와 신세대로 대표되는 청소년 세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의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정에 의한 관계, 공사의 구분이 불분명한 관계 그리고 혈연과 지연에 의한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 등은 분명 농경사회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능력을 중심으로 한 자기중심적 가치와 실리적인 태도, 그리고 권위의 부정 등은 또 다른 우리사회의 인간관계이다. 농경사회의 밀접한 인간관계가 산업사회의 계약적이고 상업적인 인간관계와 서로 융화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한국사회는 여러가지 아니 서로 상이한 가치와 규범이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특징지우고 있다. 전통주의적 집단 성향을 나타내는 기성세대와 개인주의적이고 소비지향적인 신세대 집단이나 그리고 현실공간과 가상 공간을 모두 일상의 생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더 개인주의적이면서 자기 표현적인 특성을 나타낸다는 청소년 세대가 공존한다. 이런 사회적 상황은 우리가 미래의 청소년의 인간관계를 파악하려고 시도할 때, 그리고 미래사회에서의 인간관계적 특성이 어떤 심리적 통합 그리고 적응적 생활양식과 관련되어 있는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인간관계를 통해 형성하는 사회의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어떻게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으로 통합하게 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미래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공동체적 속성과 인간관계의 모습 속에서 적응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발달시켜나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집단의 모습은 어떠한가? 대부분 이들의 행동과 사고특성을 논의할 때 '신세대', 'X 세대' 그리고 'Y세대' 등의 단어를 언급한다. 이들 세대 모두 서구 대중문화의 집중적인 세례를 받으면서 자라 개인주의와 개방주의 등 서구적인 가치관을 내면화시킨 세대라고 한다. 단지 이 둘을 구분하자면, Y세대는 X 세대에 비해 컴퓨터를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최초의 세대이기도 하다. 특히 이들은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되는 세대라고 한다. 80년대 MTV 세대라고 표현되는 문화집단이 이제는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뉴미디어 세대로 등장한 것이다. 예를들면 X 세대는 가족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자기 프라이버시를 지키려고 한다. PCS와 같은 개인 휴대전화기는 Y 세대의 필수품이 되었다 등등의 표현이 있다. 또는, X세대 때부터 이들은 기성세대라 불리우는 부모세대와는 달리 자신만의 방, TV, 전화, 오디오 등 뭐든 혼자 쓸 수 있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자랄 수 있었다라고 한다.

현대 한국 사회의 청소년의 인간관계의 특성은 이들이 보이는 개인주의적 성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사회적인 문화 활동으로 표현하는 데에서도 이전 세대와 구분된다. 이들은 부모세대의 노력으로 비교적 풍요로운 생활환경을 경험함으로써 고급 소비문화를 누리는 집단이기도 하다.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뉴미디어 세대로 표현되는 현재 청소년 세대의 인간관계의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방식이다. 이들은 먼저, 외출했다 돌아오면 PC부터 켜고 전자우편이 왔나부터 확인한다. 물론 휴대폰을 항상 들고 다니고 길거리에서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 장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개성화, 감각화, 자기표현 욕구로 표현되는 이들 세대의 정체성은 삶의 양식에서는 왕성한 구매욕구와 소비욕으로 나타난다. 세미힙합, 복고풍, 아방가르드, 밀리터리 룩이 유행이며 이를 벗어나면 소위 말하는 왕따 취급을 받는다. 서구 자본주의와 소비주의는 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상업적 문화활동과 유행의 추종 그리고 집단 성향의 소비 형태 속에서의 자신의 개성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 생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실 공간 뿐 아니라, 인터넷과 PC 통신으로 지칭되는 가상공간도 이들의 삶의 공동체가 되고 있다. 이들의 취미활동이나 이성교제는 PC 통신이나 인터넷으로 더 쉽게 이루어진다. 이들은 쉽게 인터넷으로 숙제 자료를 찾을 뿐 아니라 일본 만화나 잡지 또는 외국 문화적 산물들을 일상 생활의 일부로 하는 것이 전혀 생소하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들의 삶의 모습은 무조건적인 유행의 추종이나 수동적인 동조와는 분명히 구별된다. 이들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생활환경 속에서 단순히 문화의 소비자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창조자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예를들면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의 잡지나 방송국 등을 만들어내기도 하며, 다양한 사이버 공간의 활동을 창조해 낸다. 현재의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이 현실 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이들이 발달시키는 자신의 모습은 이전과 또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다. 바로 앞의 세대가 남과 비교적 구분되는 자신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체성을 탐색하고 형성하는 것이 가장 큰 발달과업이었다면,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너무나 당연시 한다. 즉, 나는 나다라고 뚜렷하게 이야기 하면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남과 다르게 태어났다'는 측면을 당연시 한다. 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는 자신들의 존재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낼 수 있을까이다. 남과 다르다는 것은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싶어한다는 측면에서 집단 속에서의 자신의 개체성을 뚜렷하게 표현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생활양식은 분명 부모세대가 경험한 것과는 다르다.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들은 부모세대에 비해 비교적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나타낸다고 한다. 이들이 보이는 인간관계는 이들의 정체성과 비교적 일치한다. 자신만의 세계나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이며, 타인에 대한 고려도 비교적 약하다. 이런 특성은 청소년 집단이 보이는 일탈적 행동에서 더 뚜렷하다. 이들은 학교나 동네에서 벌어지는 집단구타나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학대, 그리고 특정 개인에 대한 집단적 따돌림(왕따) 등과 같은 폭력 행동 등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지른다. 이들의 개인주의적이며 철저히 이해타산적인 행동은 친구나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자신의 생일에 5천원짜리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을 한 친구 생일에도 딱 5천원짜리 선물을 골라서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본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이기적이라고 할만큼 자신을 중시한다고 보고된다. 예를들면 효도라는 것도 단순히 "걱정을 안 끼치는 것" (62%)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정신문화연구원 조사). 이것은 동시에 부모 세대가 추구하였던 집단적 정체성과 인간관계의 기본 틀이 청소년 세대들에게는 다른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공동체적인 삶의 문제나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 현실 속에서 재미있게 자신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들은 정치에도 사회에도 관심이 없다. 스포츠, 만화, 연예가 이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마치 인디언 어린이들이 미국 백인문화를 경험하면서, 어떤 두 세대나 계급 간의 갈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격차가 나는 서로 다른 기준을 안고 성장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인 것이다.

3) 미래 청소년의 인간관계의 모습: 카오스적 정체성

미래 청소년의 인간관계의 모습은 미래 사회의 특성과 현재 청소년들이 보이는 집단 정체성에 의해 예측해 볼 수 있다. 현재의 청소년 세대가 기성 세대로 접어들면서 우리사회에 뚜렷하게 나타날 집단 정체성의 모습은 소위 말하는 서태지류 세대와 사이버 세계를 경험하면서 자라난 사이버 세대들이다. 이 두 세대는 그 특성에서 공통된 측면이 많이 있다. 이 두 세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동시대적 모습을 띄고 있지만, 서태지류의 세대는 현재의 청소년 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 사이버 세대 청소년들은 곧 다가올 미래에서의 청소년 세대의 모습이다. 미래 청소년 세대의 인간관계는 서태지류의 세대가 만들어 놓은 삶과 행동의 가치 위에서 사이버 세대, 즉 사이버 신인류로 칭할 수 있는 청소년 세대 집단이 만들어 가는 인간관계이다.

서태지류의 세대란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모습을 바꾸어 놓은 새로운 문화조류를 개척한 일군의 집단 성향을 지칭한다. 이들은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고정적이며 규범적인 집단적 가치에 의해 주류의 질서 속에서 통합 시킴으로써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종의 반역의 활동으로 자신만의 삶을 추구하면서 스스로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주체가 되고자 한 집단이다. 댄스그룹과 음악이라는 문화 활동 속에서 이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생활과 모습에 대해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면서, 이것이 비록 집단의 정체성과

같지 않더라도 개인의 정체성으로 뚜렷하게 부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이버 신인류 세대는 서태지류와 거의 유사한 시기에 나타났다. 이들의 특성은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과 인간관계를 사이버 공간 속에서 마치 현실 공간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확장시킨 집단이다. 이들 세대는 사이버 세계에서의 만남이 현실 세계의 만남보다 조금씩 능가하게 되는 생활양식을 경험한다. 이 세대들은 작별인사를 "전화해"로 하지 않고 "이메일 띄워"라고 쉽게 이야기 한다. 아예 사이버 공간에서만 만나 가상결혼까지 하는 '사이버 커플'도 있다. 이 공간에서의 만남은 비교적 성별이나 연령의 구분에서도 자유롭다. 이런 새로운 인간관계의 등장을 선형적 사고의 몰락과 카오스적 정체성의 부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양식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복합적 현상으로 자신의 모습 그리고 인간관계를 표현한다. 이것이 바로 카오스적 정체성이다. 카오스는 말 그대로 복잡한 세상을 나타내는 현상의 속성이다. 혼란스럽게 보이면서 나름대로의 질서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사이버 공간 속에서의 다양한 모습의 표현,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계는 바로 현실 공간 속에서 미래의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만들어 나갈 인간관계의 불규칙성과 다양성을 의미한다.

미래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게 될 청소년의 또래관계 그리고 이것에 의해 구체화될 미래 한국 사회의 정체성은 서태지류의 인간집단에 의해 이미 그 싹이 보인다. 이 집단들은 각자 추구하는 목표가 다를 뿐 아니라 지향하는 목표의 가치도 스스로 판단한다. "남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들이 지향하는 인생은 특정한 역할이나 구체적인 목표보다 재미있게 사는 것이다. 즉, 자신이 무슨일을 하든 중요한 것은 재미이며, 재미라는 것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이루고 유지하는데에도 적용된다. "나는 같은 일을 하며 뛰어나길 바라는 것보다,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다(신세대 영상 동아리 팀원의 표현). 이들은 집단적 규범과 틀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탐색해야 했던 부모세대와는 달리 뚜렷하게 남들과 다르게 살고,

또 튀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것은 맹목적인 경쟁의식과는 구분이 된다.

서태지류의 세대가 미래 사회의 청소년의 삶의 양식과 가치를 설정하였다면, 사이버 세대는 이들이 만들어나가는 인간관계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 현실과는 다른 다양한 그리고 불확정적인 인간관계를 경험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양하게 구체화시키는 경험을 한다. 다양한 정체성의 표현과 이것을 통한 가변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인간관계가 바로 카오스적 특성이다. 이 카오스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개인은 바로 자신의 다양함과 개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게된다. 이런 인간관계에서 자아의식과 집단의식은 병존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개인의 표현과 집단적 통합이 상호배제된다는 구식의 그릇된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사실 그렇지 않다. 카오스적 동학이 입증하는 바 그것이 작동하는대로 놓아둔다면 복잡한 체계의 구성요소들은 거대한 질서와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다.

미래의 청소년들을 카오스의 아이들이라고 표현할 때, 이들이 보이는 행동들에서 거둬거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함과 혼란 속에 존재하는 질서이다. 개별적이고 지역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라도 거의 예외없이 더 큰 프랙탈 또는 공동체 영역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성세대들의 눈으로 본다면 십대 소년들이 하는 문신과 피어싱(살갓을 뚫고 고리를 꿰어다는 행위) 등은 반사회적이고 저항문화적인 자기 상해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의식적인 자기 표현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미래의 청소년의 자기 정체성과 이것에 기초한 인간관계의 특성은 이들이 경험하는 문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순간적인 이미지를 통한 메시지의 전달, 즉 미디어 카오스의 대표적인 예가 소위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미니홈피, 그리고 온라인 게임 등 이다. 인터넷 공간을 통한 교류와 활동의 경험은 바로 이들 세대집단들이 카오스적인 체계를 경험할 수 있는 생활 공

간이다. 이런 심리 체계는 무엇에 몰두하는 방식의 차이로 비교할 수 있다.

예를들면, 리모콘이 나오기 전의 구식의 텔레비전 시청 스타일은 몰입하는 것이다. 리모콘을 이용한 미디어 공간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간다. 이것은 1초의 짧은 시간 속에서도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순간 광고 장면들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버리는 분절적인 이미지 속에서도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경험을 한다. 청소년들의 리모코을 통해 무차별적인 감각을 선택하고 만들어가듯이 이들이 경험하는 인간관계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들은 메시지를 몇 개의 명제로 정리하여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탈구된 단어들과 뚝뚝 끊어지는 이미지들의 틈새 속에서 자연스럽게 결론을 도출한다. 논리적인 틀 속에서, 선행적 논증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거기에서 벗어날 줄도 안다. 직선적이고 위계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그 관계와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그 관계의 적합성을 재평가한 후 새로운 관계를 쉽게 형성하기도 한다.

미래의 청소년의 정체성을 카오스적인 속성으로 표현하였을 때, 인간관계적 속성도 카오스적으로 나타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그리 힘들지 않을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이나 순간적인 만남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경험하는 인간관계는 순간적인 만남의 연속이기가 쉽다. 이런 경우,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계문명과 비디오로 대표되는 영상 자극 속에서 우리는 미래의 청소년들의 인간관계가 단편적이고 말초적인 관계이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이런 행동들은 새로운 문화의 변화 그리고 이들이 카오스적인 특성을 가진 새 문화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본다면 그 자체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전카오스 문화적인 토양에 익숙한 심리학자들은 카오스적 세대의 리모컨적 움직임이 사실상 이들의 주의 집중 시간의 짧음과 연관시켜 이들의 인간관계가 이전과는 달리 적응상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집중 시간보다는 보다 넓은 집중 영역을 가지고 있다. 21세기에 중요한 것은 집중시간의 장단이 아니라 멀티태스킹 능력(여

리가지리를 한꺼번에, 그리고 잘할 수 있는 능력)이다. 리모컨 세대들은 한꺼번에 열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돌아가며 볼 수 있고, 적절한 시간에 본능적으로 채널을 바꾸면서 각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이들이 형성하게 될 인간관계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다.

2. 다양한 인간관계와 정체성의 유지

미래의 청소년의 인간관계를 이해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정해야 한다. 동일한 인간, 동일한 관계, 그리고 동일한 맥락 속에서 고정적인 인간관계의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인간관계의 이해 방식이 대상의 파악과 관계의 속성의 유지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인간관계가 만들어 내는 사람들 간의 또는 사람과 대상들 간의 이미지와 이 이미지들로 표현되는 관계로 인한 새로운 이미지의 생성이 바로 이들의 인간관계의 속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이것은 향후 이들이 경험하게 될 결혼이나 기존 가족관계와 같은 사회 관습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많은 변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이미지로서의 인간관계를 대표하는 것은 게임 속에서의 역할이다. 즉, 미래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인간관계는 일종의 놀이로서의 게임과 같다.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속성을 지니기에 게임 속에서 아이들은 새로운 삶의 전략을 매우 의식적으로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마치 삶에 대해 기계론적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에서 게임의 플레이어(player)를 둘러싼 환상세계에서 자신의 개별적 전략을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자신의 모습은 마치 게임의 플레이어가 다른 전술을 택할 때마다 다르게 변화한다.

맥락에 따라, 역할에 따라 각기 다른 정체성을 지니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이런 방식의 인간관계는 한편으로는 분열적 사고와 인간관계의 혼란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 미디어 세대들은 이런 다양함과

혼란 속에서 인간적인 측면은 또 다른 방식으로 유지할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냉랭한 도시적, 사이버적, 포스트모더니티적인 모습 속에서 어떤 진정한 것, 영적인 것, 사랑 등을 더욱 갈구하는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자신이 스스로의 삶을 실험하고 또 다양한 삶을 추구하고자 할 때 인간은 스스로가 조작하는 다양한 현상 속에서 안정적이고 고정적이며 또 비교적 영원한 존재에 대한 환상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기에 가능하다.

인지발달·사회발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정체성의 조작이나 대상의 조작을 통해 안정적인 인지적 구조를 만들어내는 심리적 결과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다양한 대상과의 관계와 경험을 통해 유아는 안정된 애착대상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과 유사하다. 이것은 초기 아동기의 관계형성이라는 심리적 과제를 사이버 환경과 카오스적이라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새로운 인간관계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다. 미래 정보화 사회를 미래학자들은 단순히 불확정성 속에서의 새로운 질서와 관계를 탐색하는 사회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경험하게 될 인간관계도 비교적 불확정 속에 있으면서 어떤 나름대로의 질서를 파악해야 하는 것일 것이다. 인간의 마인드는 경험의 다양함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질서를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시대를 초월하여 항상 보여 주었다. 따라서 미래의 청소년의 인간관계를 카오스적인 특성이라고 정의하더라도 이것은 분명 미래 사회의 모습과 유사한 방향일 것이며, 또 그 사회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이 모습은 다양성 속에서의 불규칙한 인간관계로 나타날 것이며, 이것은 현재의 규범적이고 단선적이며 위계적인 모습과는 뚜렷하게 구별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기, 김수정 역(1997), [더글러스 러시코프 원저(1996)]. 카오스의 아이들, 민음사
- 문용린(1996) 신세대의 이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 이시형 번역(1995). [와다 히데끼 원저,(1995)]. 뛰는 신세대 숨는 신세대-X 세대에 심층분석, 도서출판 글이랑
- 정진경(1993) 청소년 성역할 사회화; 청소년 심리학, 한국청소년 연구원
- 최상진(1996) 2020, 청소년 문화: 가치관,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개소 기념 심포지움, 서울
- 최홍기(1994). 유교와 가족 현대가족과 사회. 교육과학사.
- 황상민(1997). 인생주기에 따른 사회적 성격의 발달: 사회문화 맥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인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발달과정의 예측, 미발표 원고
- 리뷰, 1994년 1월(겨울), 서태지 '주류 질서의 전복자'
- 중앙일보, 1998년 11월 11일, Y 세대의 특성
- 중앙일보, 1998년 11월 12일 [왜 Y세대인가]'Y 2000'에서 따온 말
- 한겨레신문, 1998년 1월 19일 [한-중-일청소년의식비교] 한국청소년 90% "사회 불만"
-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Stanford University Press.
- Levinson, D.J. & etal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Ballantine Books, New York
- Lerner, R. (1986). *Concepts and theories of human development* (2nd), New York: Random House
- Lerner, R.M., & Lerner, J.V. (1986). *Contextualism and the study of child effects in development*, In Tosnow, R.L. & Georgoudi, M.(Eds), *Contextualism and understanding of behavioral science: Implication for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Praeger.
- Sheehy, G. (1976) *Passages: Predictable crises of adult life*, A Bantam Book, New York
- Sheehy, G. (1995) *New passages: Mapping your life across time*, Ballantine Books, New York



Ⅱ. 정보화와 한국의 청소년기: 국가, 산업자본, 매체의 역할

1.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과 청소년기
2. 산업화 시대의 삼각동맹과 학교의 전성시대
3. 민주정부들의 청소년(기) 정책과 개발 전략으로서의 정보화
4.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과 산업자본
- 청소년 관계
5. 정보화 시대의 매체질서와 세대정치
6. 결론

장 경 섭

(서울대학교 교수)

II. 정보화와 한국의 청소년기

: 국가, 산업자본, 매체의 역할*

1.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과 청소년기

: 국가-학교-가족 동맹에서 국가-기업-매체 동맹으로

20세기 후반에 한국인들이 추구한 산업문명은 농민 인구의 도시노동자 인구로의 대전환을 요구했고 아울러 지속적 산업 발전(고도화)을 위해 대대적인 공교육 확대를 필요로 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표준은 농가의 보조노동력에서 도시노동자 가정의 피부양자 학생으로 전환되었다. 아동은 물론 청소년도 노동인구로서의 성격을 벗고 가족의 물적 지원을 받아 주로 학업에 매달리는 의존적 집단이 되었다. 이러한 소득원에서 소비자로의 청소년의 지위 변화는 곧 각 가족의 경제적 부담 급증을 의미했지만 다행히 급격한 소득 상승을 경험한 대다수 가족은 여유소득의 최대 용처로 자녀 부양교육을 선택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교육, 특히 입시 준비 위주로 국가와 가족에 의해 설정된 청소년기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학력에 비례한 고용과 소득 기회가 창출되면서 나름대로 기능성과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성장세의 둔화 및 상시적 구조조정 의 여파로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고, 급증한 빈곤계층 은 그나마 자녀의 교육까지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교육을 통한 청소년기 관리 체제의 위기는 청소년 문화환경의 상업화 및 청소년의 인터넷 공간 주도 현상과 맞물려 학교로부터 거리 및 사이버공간으로 의 청소년 집단탈주로 이어졌다. 이른바 민주정부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 이 글은 한국정보사회학회/한국청소년개발원 공동주최 학술회의(2005. 11. 22)에서 발표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학술회의에서 통찰력 있는 논평을 해 준 조영달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학교의 권위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교육의 개방성 강화, 청소년 인권 보호 등 개혁적 목표들을 접목시키려 함으로써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감안할 때 한국의 청소년기 현상에 대한 좀더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시급히 요구된다.

산업화 시대에 청소년기 관리를 위해 국가-학교-가족이 연대해 이끌어온 지식주입체계로부터 국가, 학교, 가족은 각각 나름대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자평할지 모른다. 경제성장 지상주의 국정을 펴온 국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한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졌고 이를 우수한 인적자원이 뒷받침했으며 인적자원의 우수성은 교육체계가 웬만큼 작동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 국가와 학교로부터 청소년기 관리의 전권을 위임받고 권위주의적으로 지식주입을 수행해 온 학교는 이러한 국가의 만족을 함께하는 한편,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행사해 왔던 절대적 권위 자체가 흡족했을 것이다. 가족(부모)은 자녀가 일류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졸업 후 좋은 직장을 얻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배움 자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고, 어쨌든 대개의 경우 자신보다 자녀가 학력이 높고 경제사정도 나아진 점에 대해 만족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 학교, 가족의 만족감을 고려하지 않으면 주입식 교육체계와 이에 결부된 극한 입시경쟁이 수많은 개인(청소년)적·사회적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사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를 주축으로 한 국가-학교-가족의 동맹적 청소년기 관리체계는 세기말의 급격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변화의 격랑 속에서 심각하게 약화되기 시작했다. 총체적 국가경제 위기를 주로 기업들의 고용조정(정리해고)을 통해 해결하고 이후 부분적 경제회복세는 비정규직 인력을 보충해 뒷받침함으로써 청년들은 인고의 교육투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대신에 장기적 실업과 고용불안을 감내하도록 요구받게 되었고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공교육을 통한 미래 개척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었다. 반면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으로서의 정보화는 인터넷 등 새로

운 정보통신공간의 확산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주도적 소비집단, 창조적 문화집단, 진보적 정치집단으로서의 입지를 마련해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청소년의 새로운 입지 확립은 청소년기에 대한 학교의 영향력 축소로 귀결됨은 물론이다.) 청소년의 정치사회적 주체화로 지지기반 확대의 혜택을 입은 진보적 집권 정치세력들은 정보통신공간의 청소년(기) 지배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방임적 입장을, 실질적으로는 보조자적 입장을 취해 왔다. 나아가 민주정부들은 청소년 교육에 있어 개방성과 민주성을 강조함으로써 학교를 경제개발의 핵심적 도구로부터 사회민주화의 주요 대상으로 새롭게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개혁적인 정치사회적 변화를 가져온 정보화 프로젝트는 애초에 국가(정치세력)와 해당 산업의 기업들뿐 아니라 보수적 언론매체들까지 가세해 국가-기업-매체의 삼각동맹체제를 형성하여 주로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 발굴 차원에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 보수신문이 내걸었던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구호는 정보화에 관한 이러한 보수적 삼각동맹의 정서를 잘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보수연대의 개발사업으로서의 정보화가 단순히 경제성장력의 발굴을 넘어 정치·사회 질서의 개혁적 재편이라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중차대한 변화로 귀결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대한 국가, 기업, 매체의 입장과 작용이 정보화로 인해 어떠한 질적 변화를 거치게 되었는지가 종합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2. 산업화 시대의 삼각동맹과 학교의 전성시대

‘공부지상주의자’로서의 현대 한국인들이 청소년기 자녀의 관리를 학교교육(공교육)에 일임했다는 것은 곧 국가가 청소년기에 대한 주도적 통제권을 행사해 왔음을 의미한다.²⁾ 따라서 국가의 청소년 정책이 갖는 중요

2) 필자는 별도의 논문에서 한국의 대외(대미)종속적인 모방근대화 체계가 공교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극단적으로 확대시켰으며 이에 대해 시민들이 자신과 자녀의 교육에

성은 그 어떤 사회보다도 심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민주화 격랑이 일어난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정부는 청소년에 대한 일부 정치·사회적 통제장치 외에는 유의미한 청소년 정책을 갖고 있지 않았다 (김만오, 2002). 보는 측면에 따라, 청소년 정책이 없었다기보다 학교교육 일변도의 청소년 정책을 펴왔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³⁾ 따라서 학교는 부모들로부터 청소년기 관리권을 통째로 넘겨받은 국가의 권능을 대리하면서 청소년들의 삶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물론 국가는 개별 학교들의 교육 내용과 방식에 대해 구체적이면서도 획일적인 통제권을 행사하여 왔으며, 중앙정부로부터 일선 학교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관료주의적 위계질서가 지배했다. 학생으로서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관료주의적 위계질서의 최하단부에서 여러 권력단계를 통해 누적되어 내려오는 지령식의 청소년 정책에 철저한 객체가 되었다 (조한혜정, 2000). 국가(교육관료)와 청소년(학생)의 중간자로서 교사들은 교실에서의 교과서 지식 전달에 스스로의 역할을 경직되게 한정하여 이러한 정책노선 및 권력구조에 수동적으로 협력해 왔다.

학교는 경제개발을 지향하는 국가가 설정한 유형의 성인기를 준비하기 위한 강제 교육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이에 따르면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고,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지원이나 보호도 거부했다 (최운진 편저, 1998). 국가는 학생으로서 실패한 청소년들이 사회적 낙인과 배제의 수렁으로 빠지는 것을 철저히 방임했으며, 국가에 다양한 형태로 의존해 성장한 기업들과 사회조직들은 국가의 이러한 입장에 반대할 형편도 아니었고

전략적 투자행위로서 임했다는 점을 '사회투자가족' (social investment family)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 바 있다 (장경섭, 2003).

- 3) 물론 학교를 통한 공교육의 보급 자체가 전적으로 소극적이거나 보수적인 청소년 정책의 발로라고 규정할 수만은 없다. 서구 근대사에서 한때 하급 노동력으로서나 대접받던 청소년에 대한 공교육 제공은 나름대로 사회개혁적 동기를 반영하기도 했다 (Gillis, 1981). 그러나 한국에서 청소년에 대한 공교육 도입은 서구 근대사에서와 같은 사회개혁적 동기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서가 아니라 일본식 및 미국식 경제·사회체제가 타율적으로 '이식'되는 과정에서 문명적 팩키지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손인수, 1992).

이유도 없었다. 청소년정책은 교육정책에 복속되고 교육정책은 경제정책에 복속되어진 채로 청소년기는 '개발자유주의'(developmental liberalism)의 도구로 유지되어 왔다.⁴⁾ 이러한 (反)청소년정책에 청소년들 자신을 제외하고는 매우 흔쾌한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또 그 결과에 대해 국가와 시민들은 대체로 만족해 왔다. 정책관료들의 입장에서는 주입식 교육의 집합적 결과로서 우수한 산업노동력이 형성되어 이에 기초한 폭발적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으며 더욱이 한국 청소년들의 학력(學力)이 우수 선진국들보다 높다는 국제비교통계가 거의 매년 발표되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만 하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학력(學歷)이 가져다주는 계층상승과 소득증대의 기회가 매력적이기만 하고, 심지어 이 정책의 낙오자들, 즉 '공부 못하는' 청소년들과 그 부모들조차 낙오의 경제·사회적 결과에 대해 정당성을 부정하지 않았다.⁵⁾ 국가권력을 장악한 권위주의 정치집단들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통제되고 양성된 한국인들이 상호간의 경제·사회적 경쟁에 치중하며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자신들의 민주적 권리 쟁취에 둔감해지는 경향은 일종의 정치적 보너스였기 때문에, 교육경쟁을 완화시켜야 할 정치적 동기가 없었다.

학교는 이처럼 청소년들이 국가가 설정한 유형의 성인기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로서의 '학생기'를 '청소년기' 대신에 보내도록 강제하는 기제였다. 국가는 청소년기가 개인 생애경로(individual life courses)에서 갖는 독자적 중요성(Gillis, 1981)을 인정할 의사도 또 이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정책적 보호와 지원을 행할 준비태세도 결여되어 있었다. 이러한 입장의 국가를 대신해 일선에서 청소년들을 다루는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청소년기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학생으로서뿐 아니라 청소년으로서

4) 개발자유주의란 이른바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의 사회정책노선이라 할 수 있는데, 경제성장 극대화를 위해 취해진 사회정책상의 다양한 통제정책과 방임정책을 집약하여 표현한 것이다 (Chang, 2002).

5) 이러한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입시제도의 공정성 유지에 교육당국과 대학들은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왔다. 필자가 재직해 온 서울대학교의 경우도 입시관리만큼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철저하며, 교육이나 연구에 대한 정성과 견줄 바가 아니다. 이는 대다수 시민들의 암묵적 동의 하에 국가가 지식주입 교육 일변도의 청소년기 관리를 해 온 사회체제가 유지되기 위한 핵심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의 청소년을 위한 교육에 나설 리 만무했다 (조한혜정, 2000). 중·고등학교들이 마치 웬만한 종합대학에 있는 모든 학과들의 교과과정을 집약해 놓은 것처럼 수많은 학과목을 한꺼번에 청소년들에게 부과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청소년이 청소년으로서 개인생애와 사회생활의 주체이며,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환원되지 않는 독자적 가치와 목적을 갖는 것으로 전제하지 않는다.⁶⁾

학교의 청소년성에 대한 간과나 억압은 청소년들의 부모에게 어떠한 불만 요인도 되지 않았다. 오히려 부모들은 학교가 주력하는 지식주입과 입시대비가 가족 차원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전폭적 지지를 보냈다 (장경섭, 2003). 학교는 이런 부모들을 청소년의 학습을 위한 보조감독자로서 활용했으며 이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국가는 부모(시민)들의 이런 협조적 태도에 만족하지 않고 공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부모들에게 떠넘겼다. 심지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의무교육 비용도 상당 부분 부모들에게 전가했다. 인구의 상당 부분이 아직 절대빈곤을 벗어나지 못한 시대에 수업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매질이 드물지 않았고, 국민소득이 급격히 상승한 이후에는 공교육의 질을 정체상태에 방치해 엄청난 사교육 바람이 서민들을 경제적으로 억누르거나 소외시키도록 조장해 왔다. 한국의 가족들은 국가의 교육(청소년)정책을 위해 이처럼 적극적인 지지, 협조, 부담을 하고도, 예정된 정책 실패의 결과에 대해 별다른 반발을 하지 않는 미덕(?)을 보여 왔다. 지식주입 교육의 최종 평가기체인 대학입시는 해마다 몇몇 명문대에 합격하는 소수 청소년과 그 부모들을 위한 잔치가 되고, 오히려 압도적 다수의 청소년

6) 물론 이런 모순이 별도로 '청소년학'과 같은 과목을 개설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개별 학과목도 그 자체로서 청소년이 학습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지는 않다. 근본적으로 말해, 각각의 학과목이 기초로 하고 있는 세계관이 나 지향하는 목표가 청소년의 주체성과 공정한 지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이상론으로 비치겠지만) 기반 학문들 자체의 심각한 변화가 요구된다. 페미니스트들이 제반 학문의 기본 전제에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학문체계 전반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듯이, 청소년들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본적이며 전반적인 대안이 검토되어야 할지 모른다.

년과 그 부모들은 인고의 노력과 희생을 하고도 최종적인 실패자 혹은 낙오자가 되어야 하는 재앙이나 다름없는 정책 결과를 그저 자기 탓이나 자녀 탓으로 돌리고 만다. 예정된 비율의 입시실패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의 반복적 불행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자체를 인정할 필요가 없는 형국이다.⁷⁾

국가와 가족(부모)이 단합(담합?)해 강제하는 지식주입의 청소년기 혹은 학생기를 청소년들이 거부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권리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청소년들이 사적 영역에서 청소년기에 대한 자결권을 부모에게 강제로 양보하고 부모(시민)는 공적 영역에서 청소년 자녀에 대한 관리권을 국가(학교)에 양도하는 상황에서 국가는 굳이 청소년들을 교육, 나아가 인간적 삶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적 주체로 대접하려 들지 않았다. 징집연령이 다될 때까지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는 등 한국이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가장 보수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나라의 하나라는 사실이 이에 무관치 않을 것이다. 국가를 대리하는 학교는 학생으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전인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은 것처럼 운영되어 왔다. 학교는 마치 일부 종교조직이 신도들의 인신과 의지에 대한 포괄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학생들에 대해 거침없는 물리적·심리적 통제력을 행사해 왔다.⁸⁾

7) 예정된 비율의 청소년이 입시경쟁에서의 탈락하는 것을 정책실패가 아니라 정책성공으로 보는 역설적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의 학업 실패는 개인적으로 불행이었으나 학교나 국가의 입장에서는 정상적 결과이며, 단지 이러한 결과를 미리부터 예감하고 자포자기식으로 받아들이도록 ‘잠재적’으로 사회화시키는 학교(교사)의 역할이 존재한다는 비판적 분석이 주목된다(한준상, 1996). 학교는 우등생 찬양의 장막 뒤에 일종의 ‘실패와 낙오의 제도화’가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장이라는 것이다.

8) 한 교육사회학자는 한국의 학교들이 “구성원에 있어서 비자발적 소속감, 외부에 의해 결정된 역할 부여, 외부에 의한 재정적 지원, 전문가 봉사, 획일화된 관료주의적 활동, 강압적인 규칙 구조 등”의 속성을 보임으로써 고프만(Erving Goffman)이 말하는 ‘전체 기관’ (totalitarian institution)에 가깝다고 지적한다.(한준상, 1996: 133)

3. 민주정부들의 청소년(기) 정책과 개발전략으로서의 정보화

청소년 관리에 대한 국가의 위임과 가족의 동의 하에 전성시대를 구가했던 학교는 1990년대 들어 급작스럽게 그 영향력과 효율성이 쇠락하게 되었다. 이는 청소년들의 부모가 청소년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나 이념에 입각해 자녀의 편에 서서 학교관행이나 국가정책을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은 아니다. 일부 학부모운동이 조직되어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학교교육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다수 부모는 여전히 자녀의 입시성적을 지고지선의 기준으로 삼아 학교를 평가한다. 학교의 위기는 오히려 국가의 정치적·문화적·경제적 성격 변화로 인해 철통같던 국가-학교의 동맹 체제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찾아왔다. 경제성장을 지상가치로 삼고 이를 위한 인력양성의 차원에서 학교에 청소년기 관리의 전권을 부여했던 국가는 집권 정치세력의 성격 변화 및 다양한 국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청소년 집단에 대한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국가가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적·문화적·경제적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청소년들을 동반시키기 위해 학교는 더 이상 충분히 만족스러운 정책도구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졌으며, 나아가 새로운 국가정책들이 학교의 보수적 이념과 배타적 권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경향까지 나타났다. 국가는 더 이상 학교만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청소년들을 상대하거나 다른 제도나 조직들을 통해서도 청소년들을 관리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른바 민주투사들이 집권한 정부들은 그 정치적 정당성의 기반으로서 집권의 민주적 절차 이외에 민주화에 대한 역사적 기여를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려 했으며, 이에 파생된 노력으로서 이른바 ‘사회민주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추구했다. 이런 노력은 특히 김대중 정권기에 두드러졌는데, 여성의 권리와 함께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논의가 전개되었다. 청소년 권리에 관한 물질(복지)적 차원에서의 국가책임은 이전부터 거론되어 왔고 뚜렷한 저항세력도 (그렇다고 지원세력도) 없었지만, 사

회·정치적 차원에서의 국가책임은 전향적 논의일 뿐 아니라 학교, 가족, 기성사회 등 청소년에 대해 우월적 권능을 행사해온 세력들의 반발 가능성을 내포하였다. (적어도 물리적으로 확인되는) 청소년의 권리는 청소년의 생활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영역인 가정과 학교에서 주로 침해당해 왔으며, 따라서 가족과 학교는 사회민주화를 위한 개혁대상으로 지목될 수밖에 없다.⁹⁾

가족의 경우는 국가의 사회정책적 지원이 극도로 결여된 상황이어서 청소년 (그리고 아동) 자녀에 대한 학대와 폭력 등 형법적 처벌 사안에 한정하여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가의 직·간접적 지원 하에 존속하는 학교의 경우는 국가의 정치·사회적 의지가 좀더 포괄적이고 직접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존재한다. 국가(김대중 정부)는 실제로 이런 의지를 표명했고 학교는 (체벌금지, 입시수업 완화 등) 일정한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식지상주의 미래관을 펼치는 등 국가의지의 일관성과 체계성에 심각한 한계가 드러나 결국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혼돈에 휩싸이게 되었다.

엄밀하게 보면, 국가 혹은 민주화정권들은 학교와 가족 내부에서 청소년 권리를 신장시키는 면에서보다는 학교와 가족 바깥에서 청소년들의 활동을 증진시키거나 참여 영역을 확장하는 면에서 좀더 분명한 성과를 거두었다.

9) 1998년 전주의 한 고등학생이 청와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소속 학교가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사건이 있었다 ([한겨레], 1998/9/18). 이 학생은 “버스가 끊기는 밤 10시에야 수업이 끝난다; 3cm로 제한된 머리길이 제한을 풀어 단정한 머리모양새를 허가해 달라; 시험날만이라도 일찍 끝내 달라; 과학실험도구가 부족하다; 교육청의 설문조사가 엉터리다; 자유시간이 모자라 취미나 특기를 살릴 수 없다” 등의 일곱 가지 불만사항을 전했다. 이 학생에게 학교는 위에서 지적인 ‘전체 기관’ 처럼 느껴졌음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을 통해 경위를 조사한 후 이 학생에게 “훌륭하게 커 달라”는 격려문을 보냈지만, 소속 학교는 이 학생에게 “학교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며 해명편지를 보내도록 강요했고 심지어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신경질적 반응은 당시 정부의 개방적 교육개혁 의지에 대한 학교의 불만과 불안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의 사회적 존재성을 부각시키고 강화시키는 역할이 두드러졌다. 이런 변화는 국가의 의도된 사회민주화 노력에 어느 정도 기인하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의 청소년 정책을 확대계승하려는 노무현 정부는 “청소년 주체의 자율적·창의적 청소년가치와 문화 창출;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참여와 통합; 세계와 함께 하며 변화를 선도하는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과 같은 파격적 목표를 거론하고 있다 (권이중, 2003: 3). 이처럼 구체적 정책수단을 쉽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진보적인 정책구호들은 적어도 정치적 분위기 전환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적 존재성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사회적 주류화는 그 이상으로 산업·문화·노동 정책의 간접효과나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반영한다. 새로운 산업·문화·노동 정책은 처음부터 청소년들을 중심적 정책대상 집단으로 명시화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을 경제·사회·문화 영역의 주요 집단으로 부각시키고 동원해 왔다. 아래와 같은 파격적 변화의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의 바깥에서, 즉 사회에서 집단적 조직력과 정체성을 얻게 되었다.

첫째, 1990년대 이후 민간인 정부들 하에서 경제발전의 새로운 선두부문으로 떠오른 정보통신산업의 획기적 육성을 위한 노력이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을 새로운 주류 소비집단으로 격상시켰다 (양심영, 2002; 황진구 외, 2002). 이동통신에서 각종 온라인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ICT 산업에서 청소년들은 이미 시장을 선도하는 소비집단으로 자리매김했을 뿐 아니라 일부는 기획자, 발명가, 노동자로서 직접 생산을 주도하기도 한다. 한국의 ICT 산업이 세계적으로 선구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보면, 한국의 청소년들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경제집단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거의 모든 한국 청소년에게 PC를 보급하고, 인터넷을 연결시키고, 심지어 이동전화기를 한 대씩 쥐어주려는 듯이 청소년들을 공격적인 정보통신 성장정책의 암묵적 도구로 삼은 국가의 치적이 아닐 수 없다. 반면 학교는 한때 학생들의 ‘빠빠’ 소리를 막아보려 했을 정도로 시대변화에 둔감했으며, 결국 국가 정책도구로서의 독점적 위상이 급속하게 약화되었다.

둘째, 정보통신 수단의 획기적 발전과 확산을 배경으로 하여 민주정부들의 문화정책은 대내외 개방 촉진, 온라인 문화영역 확대, 문화산업 소비층 확대 등 일련의 변화를 지향했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문화산업의 중심무대로 이끌어내었다 (이민희·맹영임·정문성, 1999). 영화, 가요 등 대중 문화 상품의 성공 여부는 다종다양한 매체를 통해 초기 시장반응을 주도하는 청소년 소비자들이 결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 생산에 청소년들의 참여도 활발하다 (박진규, 2002). 아울러 세계적인 주목을 끌 정도인 온라인 문화영역의 폭발적 성장 역시 청소년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은 새삼 지적이 필요 없다. 심지어 일종의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 문화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성(性)산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노출과 동원이 가속화되는 것도 정보화 시대의 한 조류이다. 국가의 문화정책들과 정보통신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을 문화산업의 주요 소비자 및 생산자로 만들고 있지만 어떤 문화영역에서도 청소년의 존재를 성인과 구분 없이 인정하는 데는 소극적이다. 이러한 입장은 앞으로도 크게 수정되기 힘들 것이며 따라서 청소년의 문화활동에 관한 국가정책의 이중성은 항구적 현상이 될지 모른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 자신은 온라인 공간 등에서 독자적인 문화산업체계를 주도하려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

셋째, 민주정부들은 정보통신 주축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추구하는 이면에서 종래의 외연적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인 완전고용 원칙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났다.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으로서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환란으로 촉발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와 이에 대응한 급격한 산업구조조정 등과 맞물려 임노동계급의 고용 상태 및 조건을 급진적으로 변화시켜 놓았다. 특히 중년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및 비정규직화는 이들의 안정된 ‘가족임금’ (family wage)에 의존하여 생활을 하고 교육을 받아왔던 청소년 자녀들의 지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게 되었다 (황창순·이혜연·김희진, 1999; 구인회, 2003). 그리고 이에 결부된 부모 통제력의 약화는 가출 청소년들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게 되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고용의 빠른 증가를 가져왔다 (박창남, 1999). 특히 청소년들에게 노동시장 유연화는 정보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새로운 경제활동의 참여 기회들을 확대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역설적으로 특히 가출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생존조건이 되고 있다. 설사 가출을 하지 않더라도 청소년들에 대해 중년 부모가 영향력을 심각하게 상실하는 계층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교육비용 부담과 학생 생활감시 차원에서 가족에 결정적으로 의존해 온 학교에 연쇄반응을 일으켜 이른바 ‘교실붕괴’가 더욱 가속화되어 왔으며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탈학생적 지위의 사회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상반되는 현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는 경기 양극화와 맞물려 대규모 청년 실업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여유계층 가족들에서는 성인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물질적 의존기가 무한적 연장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4.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과 산업자본-청소년 관계

앞서 지적한 것처럼, 산업화 시대에 청소년기 관리를 위해 국가-학교-가족이 연대해 이끌어 온 지식주입체계로부터 국가, 학교, 가족은 각각 나름대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자평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시대 최대의 수혜자는 국가도 학교도 가족도 그렇다고 청소년 자신도 아닌 기업들이었다. 가족과 국가가 적극적 자원 동원에 나서 지탱해 온 강압적 지식주입체계를 통해 양성된 풍부한 노동력의 최종 사용자는 다름 아닌 기업들이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근대 공교육 체계의 정립과 확산이 산업자본가 계급의 이해관계 및 참여와 밀접히 맞물려 진행되었던 서구와는 달리 (Sommerville, 1990), 한국의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그 계급적 실체도 모호했던 부르주아가 청소년에 대한 공교육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련된 제도 확립 및 비용 조달을 선도했을 수 없다. 공교육은 특히 미국

통제하의 해방 공간에서 미국적 문명체계의 한 부분으로 확립되었으며 따라서 (아직 조짐조차 없었던) 자본주의 산업화라는 경제환경의 역사적 전환과는 별개의 사안이었다 (손인수, 1992). 오히려 산업자본주의가 확고하게 자리잡은 미국의 공교육체계에 내재하는 기능적·사상적 특성들이 한국의 학교들에서도 재현됨으로써 이후의 산업화를 위한 기초조건이 미리 마련되는 의의가 있었다.¹⁰⁾ 물론 공교육의 제도 마련보다 더욱 중요한 비용충당은 청소년의 부모들이 대부분 맡았다. 따라서 한국의 산업자본가들은 청소년 교육에 관련해 ‘역사적 무임승차자’ (historical free-rider)였다고 할 수 있다. 흔히 회자되는 ‘풍부한 양질의 인적 자원에 의존한 산업화’를 가능케 했던 기초조건 마련에 막상 산업자본가들의 역할은 미미했다. 그렇다고 이들이 청소년 교육문제에 전혀 무관심했다고는 할 수 없다. 최근까지도 진정한 사회환원적 기여에는 극히 인색했던 산업자본가들이 여력이 있을 때 그나마 보편적으로 관심을 보여왔던 것이 공교육 보급과 연계된 청소년 장학사업이었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국내 산업자본과 서구 산업자본의 보다 분명한 유사점은 산업화 초기에 이루어졌던 청소년 노동력의 과도한 착취일 것이다. 빈곤으로 매개된 토지부족 압력을 피해 농촌 청소년인구의 집단적 이촌향도가 있었으며 이들이 이른바 ‘공돌이·공순이’가 되어 저임의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집약적 수출기업들을 견인했다는 것을 부정할 기업인은 없을 것이다. 구해근의 연구가 생생하게 보여주듯이 한국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형성의 시원은 거의 인권 말살적인 산업현장에서 기업주, 관리자, 구사대, 경찰을 상대로 벌였던 노동 청소년·청년들의 생존투쟁이었다 (Koo, 2001).

‘노동하는 청소년기’가 산업자본주의의 발명품은 아니다. 수천년 동안의 우리 농경사에서 생산조직으로서의 농가는 청소년을 도제적 노동자로 활용하여 운영되었으며 이는 다산(多産) 규범의 현실적 기초였다. 산업화 초기

10) 공교육의 내용상 특성뿐 아니라 과정상 특성도 기업들에게 매우 유용했을 것이다. 극도의 경쟁체제와 권위주의 규율체제가 지배하는 학교의 교육질서를 거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마찬가지로 특성을 가진 기업의 조직질서에 보다 용이하게 적응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에 청소년 자녀의 이농을 농지부족 대처 및 보조소득원 확보의 차원에서 인식했던 농가 부모들의 입장도 그 연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산업자본가들은 이러한 농가 부모의 의식, 더 정확히 말해 이농청소년들의 부모 귀속적 태도가 당연히 반가운 것이었으며 이를 노동력 착취에 적극 이용했다. 그러나 18~19세기 유럽이던 20세기 한국이던 산업자본가들은 농가 부모들과 달리 청소년 노동을 생산조직의 장기적 유지와 발전을 위한 기초 훈련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볼 이유가 없었다. 청소년이라는 지위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을 강요할 수 있는 당장의 경제적 고려 사항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노동청소년 착취의 산업체제는 이들의 치열한 계급투쟁도, 기업의 양보나 각성도, 국가의 사회정책적 개입도 아닌 이유로 퇴장해 갔다. 이른바 국제 생산품 주기(international product cycles)의 변화로 1970년대 후반을 전후해 한국이 노동집약적 수출경공업의 경쟁력을 점차 상실하고 이에 대응해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확립해 나감에 따라 청소년 노동력에 대한 산업수요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노동청소년이라는 사회경제적 범주가 역사적으로 소멸한 것은 아니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최근의 노동시장 유연화 및 경제위기, 그리고 고용구조의 서비스업 집중화 추세에 맞물려 이번에는 도시 빈곤층 가정의 청소년들이 대거 노동시장으로 나오고 있다. 이들의 노동자로서의 지위는 과거 이농청소년들 못지않게 오히려 더 불안정하고 복합적이다. 이들의 고용주들은 산업자본이라는 범주로 묶기에는 너무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약자의 지위를 악용하여 노동 착취가 이루어지는 것은 공통적이다.

산업자본들은 빈곤층 청소년들이 생산노동력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떨어져 가던 시점을 전후해 부유층 및 중산층 청소년들로부터 새로운 활용가치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즉 부모에 의존한 소비집단으로서의 청소년들을 새로운 상품소비계층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을 펼치기 시작했다. 수출 일변도의 경제구조를 지양하고 내수시장을 확충해야 한다는 거시경제적 필요성에 정부와 기업들이 공감하면서 새로운 소비계층들을 발굴하려는 대대적 시도들이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와 관련된 사회적 정체성들이 ‘제조’ 되거

나 해외로부터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미시족’, ‘X세대’ 등의 용어가 암시하듯이 주로 여성과 청소년이 대상 집단이었다. 이전까지 가족의 한 부분으로서 가족의 집단적 소비과정에 참여하던 집단들에 대해 소비의 개인(주의)화를 부추기는 제품개발과 광고가 이어졌다. 청소년들의 소비는 대부분 부모의 비용부담을 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가구소득 상승과 가족이념(세대관계)의 질적 전환을 전제로 했다. 세대관계의 질적 전환이란 구체적으로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포괄적 부양책임을 포함하는 ‘서정적 가족주의’의 확립을 말한다 (Shorter, 1975). 이러한 전환은 매우 신속히 이루어졌으며 지속적 경제성장의 결과 두텁게 형성되어 가던 중산층의 가족문화를 특징지었다. 그러나 자녀의 교육환경과 부모의 직장문화가 서정적 교호관계를 가족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어렵게 만듦에 따라 가족사랑은 주로 소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했다. 굳이 여러 제품광고 내용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이 가족문화의 이러한 변화를 직·간접으로 촉진하는 다양한 노력을 펼쳤음은 물론이다.

산업자본의 청소년 소비자에 대한 의존은 애초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심화되어 갔는데, 이는 이른바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현상이다. 1990년대 들어 정보화 담론이 대두되었을 때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사고체계에서 정보화 하드웨어 보급에 관심이 쏠렸었다. 이때만 해도 정보화는 정부와 일부 기업들의 연대에 의한 공급자 중심의 사업이었고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의 사용자 집단에 대한 특별한 예상이나 관심을 찾기 어려웠다. 한국의 정보화는 도박성이 다분한 정치경제적 기획이었다. 그러나 청소년 인구가 실험적으로 공급되는 다종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 및 기기를 폭발적으로 소비함에 따라 정보화는 탄탄한 시장구조를 갖춘 사업영역이 되었다. 이처럼 청소년 소비인구의 등장에 크게 힘입어 거의 전부 벤처형 시도였던 정보·통신 사업들의 상당수가 수익성을 확보하거나 예상할 수 있게 되었고 뒤이어 더욱 공격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및 기기의 개발이 이어졌다. 이러한 개발이 청소년들의 소비욕구를 더욱 자극시킨 것은 물론이다. 나아가 청소년들이 인터넷 공간을 활성화시킨 여세를 몰아 새로운 사

회적 주류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정보화는 기성세대가 낙오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동참해야 할 대세가 되었다. 이 역시 정보·통신 산업의 수요 확대를 가져오는 것이다. 정보화 사업의 공급(개발)-수요(소비)에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확립됨에 따라 한국의 정보·통신 산업은 세계를 선도하는 지위에 올랐고 특히 정보화 신상품 개발주기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짧은 면모를 갖게 되었다. 한국의 산업화 역사에서 정보·통신 산업은 풍부한 내수를 바탕으로 출범해 강력한 수출경쟁력을 뒤이어 갖춘 예외성을 갖고 있다. 또한 교복, 학용품, 참고서 등 청소년 특화 산업들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 산업이 거의 유일하게 청소년을 주력 소비집단으로 삼아 도약에 성공했다는 예외성도 있다. 노동집약적 수출경공업 시대가 노동청소년 착취 단계였다면 정보화산업 시대는 청소년소비자 의존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상품 소비하는 청소년기’ 혹은 ‘상품 소비자로서의 청소년’은 사회(시장)는 물론 국가(학교)나 가족(부모)이 견지해 왔던 청소년기 규범과 분명한 거리가 있다. 청소년의 상품 소비는 부모가 관리하는 가족 차원의 집단적 상품 소비에 종속되어야 하며 공교육 제도로서의 학교는 학생인 청소년의 생활을 ‘탈상품화’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상식 혹은 양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이나 양식을 정보·통신 기업들이 존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가 매개하거나 권장하여 정보·통신 소비를 촉진시켜 왔다. 그리고 국가의 정보화 이데올로기에 포섭된 대다수 부모들은 심한 혼돈 속에서 청소년 자녀들의 정보·통신 소비를 용인하게 되었다. 학교는 비교적 최근까지 이러한 흐름에 반대하거나 나름대로 통제를 시도해 왔다. 그러나 학교의 시도는 국가의 비협조와 가족의 방관 속에 강력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 더욱이 기업들은 이러한 학교의 노력을 간단히 무시하거나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다. 일례로 학습 분위기 관리를 위해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들이 늘어나자 관련 업계는 유괴 등 강력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위치확인시스템 장착 등을 내세워 조직적으로 반대 논리를 펼치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청소년 고객층의 상업적 비중을 거론하며 포기

불가를 강변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2004/5/10). 사실, 학교, 국가, 가족, 기업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에 상관없이 청소년들의 정보·통신 소비는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들은 정보·통신 소비를 통해 자신들이 주류가 되는 사회·문화·경제적 영역을 구축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 영역에 대한 기성세대, 부모, 국가, 학교의 통제력은 한마디로 미약하기만 하다. 부모의 경우 이러한 소비를 위한 비용 제공을 거부할 수 있겠지만, 미성년자 성매매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수많은 청소년들은 아예 정보·통신 소비를 용돈 마련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5. 정보화 시대의 매체질서와 세대정치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이는 사회 전반의 급속한 정보화 추세 속에 지배적 언론매체로서의 지위가 약화되어 가고 있는 조선일보가 한때 서울 광화문의 자회사 건물 벽에 수백미터 바깥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의 큰 활자로 채워 걸어 놓았던 현수막의 내용이다. 한국사회에서 진보세력의 정치권력 장악을 결정적으로 촉진한 정보화가 애초에 보수정치세력, 개발관료집단, 주요 재벌기업, 보수언론 등 이른바 보수적 지배연대의 합작사업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크나큰 역설이 아닐 수 없다. 한때 이 지배연대를 대표하는 고령의 인사들이 사용법도 잘 모르는 컴퓨터를 만지며 기자들을 위해 포즈를 취하는 장면이 이어졌었다.

정보화는 단순히 선전구호로 끝나지 않고 실제 한국경제를 추동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정치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변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변화의 핵이 청년·청소년 세대의 주류화이며, 이제 이들 세대의 정치적 결집과 동원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판도를 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혜경 외, 2002). 새 문물에 대한 관심과 적응력이 월등할 수밖에 없는 이들 젊은 세대는 인터넷과 이동통신이 마련해 준 새로운 통신·교류 공간을 선점함으로써 그동안 기성세대로부터 강요당했던 사회·정치적 소외를 일거에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 물론 대다수 10대의 경우 당장의 투표권 행사를 통해 정치권력 구도를 변화시키는 데 동참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정치적 주체로서의 자각을 하고 조직화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능력을 체득하여 수년후의 선거에서 ‘준비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수언론 중심의 매체질서에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매체수용자로서의 지위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청소년들이 정보화에 따른 새로운 매체질서를 아예 주도함에 따라,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유별나게 큰 한국의 사회·정치 질서는 세대간에 급속한 권력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성 매체들 가운데 보수신문과 방송 사이의 대립이 격화된 가운데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의 조직적인 보수언론 공격은 일부 보수신문들을 고립화시켜 위기감까지 느끼게 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매체질서의 주체로 격상되기 이전에 청소년들이 대중매체와 관련해 가졌던 미약한 존재성은 한편으로 청소년 대상 매체상품과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 관련 공공담론을 통해 드러났다. 먼저, 청소년 대상 매체상품은 대중매체의 주도권이 인쇄매체에서 방송매체, 특히 텔레비전으로 넘어가면서 활발히 개발되었다. (물론 인쇄매체 시대에도 청소년 대상의 잡지와 같은 일부 매체상품이 존재했지만 이마저 텔레비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급격히 위축되었다.) 텔레비전은 범세계적으로 매체소비 인구를 획기적으로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다양화시켰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적어도 매체소비 질서에 있어서는 성인 남성 중심의 가부장성이 점차 완화되며 가족이 함께 소비하거나 다양한 연령대별로 소비하는 시대가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청소년물’ 들이 개발되어 한편으로 매체소비자로서의 청소년 지위를 확인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성’에 대한 다양한 이념과 이미지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도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텔레비전 방송의 주요 영역으로 자리잡지 못했다. 거의 모든 청소년이 ‘입시준비생’인 현실에서, 이 현실이 근본적으로 타파되기 전에는 청소년물로 수지 맞추기가 어려웠으며 그렇다고 현실 타파에 팔 걷고 나서는 방송도 없었다. 그러나 청소년물이 텔레비전 방송의 중

양무대를 장악하는 시대는 1990년대 들어 한 민영방송의 설립과 함께 갑자기 찾아왔다.

청소년 관련 공공담론은 대부분 교육 담론과 신세대 담론으로 묶을 수 있다. 교육 담론의 경우, 근대화 및 산업화를 위한 계도도구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던 신문과 방송이 가질 수 있었던 시각은 기본적으로 국가-학교-가족이 연대해 청소년들에게 강요했던 지식주입 노선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 다만 청소년의 성장에 대한 입시공부의 심리적·육체적 부작용, 사교육 과열의 폐해 정도가 간간히 형식적으로 다루어졌을 뿐이다. 사실 교육과 관련한 신문 및 방송의 보도는 청소년들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전달하기보다는 국가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때로는 학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지식전달의 효율성 강화를 요구하고 입시경쟁의 치열성을 극적으로 강조하는 등의 특징을 보였었다. 신세대 담론의 경우, 보도매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대중매체들이 참여해 다분히 선정주의적 차원에서 각 시대 청소년들의 특정한 심리적·문화적·사회적 성격을 전혀 새로운 것으로 강조(과장)해 온 것이다. 신세대들의 특성에 대한 의례적 인정과 평가에도 불구하고 신세대 담론은 기본적으로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청소년 세대를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부정적으로 희화화하는 공통점이 있다.¹¹⁾

대중매체가 조장하고 확산시키는 이러한 청소년 관련 담론은 기성세대의 지배질서에 대한 청소년·청년들의 집단적 저항이 가져온 역사적 변화를 전혀 담아내지 못한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억압적 산업자본주의 질서에 대항

11) 한국에서 신세대 담론은 서울방송(SBS)에 의해 가장 적극적으로 유포되어 왔는데, 이 신생 방송이 추구해 온 기존 방송들과의 차별 전략은 청소년 세대 공략, 선정적 오락주의 등이 핵심적이었다는 사실이 시사적이다. 한편으로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선정적 오락물들을 대거 제작·방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수적 도덕주의의 관점에서 '신세대' 현상을 암묵적으로 비판하는 시사물들을 동시에 내보내는 이중성을 통해 그들이 구성한 쾌락주의 유형의 청소년 세대를 일종의 배타적 매체영역으로 구축하려는 시도가 엿보였다. 이처럼 공격적 상업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사영방송에 의해 청소년들은 처음으로 대중매체의 주요 소재이자 수용자로서 인정받는 계기를 맞았다. 매체질서의 소외자로서 살아왔던 청소년들은 이러한 계기에 매우 적극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서울방송의 상업적 성공을 뒷받침했다.

한 노동자들의 계급투쟁, 폭력적 군사독재 정치에 대한 학생들의 민주화 투쟁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핵심적 변혁운동은 언제나 청소년·청년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첫째, 적어도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 최초의 본격적인 자본주의 계급관계는 이농청소년 노동자들과 노동집약적 수출경공업의 기업주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노동계급으로서의 억압적 삶과 치열한 투쟁, 그리고 이후 노동운동의 사회적 확산에 관해서 구해근(Koo, 2001)이 상세히 밝힌 바 있다. 둘째, 이승만에서 박정희를 거쳐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정치 무효화’의 시대에 민주적 정치 질서의 복원을 위한 사회적 투쟁은 언제나 학생으로서의 청소년·청년이 주도했으며, 그 바탕 위에서 이른바 직업정치인들은 거의 무임승차식으로 국가권력을 인수해 왔다(최장집, 2002). 대학이라는 사회공간에서 다양한 정치적 변혁들의 단초가 형성된 것은 한국만의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학생들의 주도에 의해 권력질서가 실제로 전복된 경우는 희귀하다.

개발독재적 산업화 시대의 정치사회적 변혁을 위한 청소년·청년 세대의 주도적 역할은 민주정부들이 이끈 정보화 시대에 들어 제도적 민주주의의 실질적 권위주의화에 대응한 네티즌들의 저항운동으로 맥이 이어졌다. 한국이 세계를 선도해 온 정보화는 청소년·청년들에 의해 새로운 정치적 지평을 열게 되었다. 한국은 노무현의 집권에 의해 이른바 디지털 민주주의가 역사적 실체로 전면에 등장한 최초의 사회가 되었다. 노무현의 지지기반인 청소년·청년 세대는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적 활동성을 배양하여 결정적 순간에 오프라인 정치에 조직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젊은층의 자기부과적 정치 소외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 자체를 새로운 정치영역으로 격상시키는 기염을 토했다(노혜경 외, 2002). 정치영역으로서의 사이버 공간은 19세라는 정치참여의 법적 연령제한도 없기에 청소년들의 정치적 지위는 더욱 확고하다.¹²⁾ 청소년·청년들이 주역이 되어 이룩한 이러한 역

12) 이러한 변화를 읽지 못하고 패퇴한 보수 정치세력, 즉 한나라당까지 급기야 “디지털 정당”으로의 변신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두 차례의 연이은 대선 패배에 이어 2004년의 총선 패배로 충격에 빠진 한나라당이 갱생의 출구로서 “디지털 정치”를 지향하기로 결정했다 ([연합통신], 2004/4/12). 이를 제기한 한 디지털정치 이

사적 변화들을 보수적 기성세대가 장악한 대다수 대중매체들이 적극적으로 담아내기에는 의지도 용기도 능력도 부족했다. 인터넷 시대의 도래는 청소년·청년 세대들로 하여금 역사적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도체(不導體)적 매체 혹은 부매체(不媒體)들을 원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청년들의 주도로 매체 소비구조의 획기적 변화가 정치질서의 근본적 재편을 초래하는 과정에서 보수적 기성매체들은 매체시장 지배력과 정치(이념)적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했을 뿐 아니라 아예 사회적 극복운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6. 결 론

학교를 주축으로 한 국가-학교-가족의 동맹적 청소년기 관리체계는 한국의 산업화 시대를 구가하였으나 세기말의 급격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변화의 격랑 속에서 심각하게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기에 맞물려 새로운 경제개발 패러다임으로서 추진된 정보화는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통신공간의 확산을 통해 청소년 집단으로 하여금 주도적 소비집단, 창조적 문화집단, 진보적 정치집단으로서의 중대한 입지를 차지하도록 만들었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사회적 입지 확립으로 청소년기에 대한 학교의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감소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정치·사회 질서 자체가 개혁적으로 재편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너무나 역설적인 점은, 이처럼 개혁적인 정치사회적 변화를 가져온 정보화 프로젝트가 애초에 개발정치 세력과 해당 산업의 기업들뿐 아니라 보수적 언론매체들까지 가세한 보수적 삼각동맹체제에 의한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동력 발굴 노력으로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보수연대의 개발사업으로서의 정보화가 단순히 경제성장력의 발굴을 넘어 정치·사회 질서의 개혁적 재편이라는 의도하지 않았

론가는 “5만명의 노사모가 인터넷·이동전화 같은 디지털로 5만의 제곱(25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커뮤니케이션 승수효과를 만들어내, 몇몇 큰 종이 신문 독자(700만명 추산)에 의존했던 한나라당을 따돌렸다는 풀이”로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을 설명했다고 한다.

지만 중차대한 변화로 귀결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대한 국가, 기업, 매체의 입장과 작용이 정보화로 인해 어떠한 질적 변화를 거치게 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한국의 청소년기는 한편으로 국가-기업-매체로 구성된 정보화동맹과의 밀접한 상호작용 속에 전개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학교-가족의 학력동맹이 갖고 있는 잔존 영향력에 여전히 노출됨으로써 매우 복잡한 변화를 겪고 있다. 탈근대적 정보화동맹과 근대적 학력동맹 사이에 놓인 청소년기는 한국사회 압축적 근대성(compressed modernity)의 중요한 단면이다 (Chang, 1999).

참고문헌

- 구인회. 2003. [경제위기와 청소년 발달: 가족의 경제적 상실이 청소년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서울: 집문당.
- 권이중. 2003.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정책의 방향.”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새 정부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03/5/20), pp.1-11.
- 김만오. 2002. “한국 청소년정책의 역사.” [청소년정책연구] 2: 1-8.
- 노혜경 외. 2002. [유쾌한 정치반란, 노사모]. 서울: 개마고원.
- 박진규. 2003. [청소년 문화] 서울: 학지사.
- 박창남. 1999. [청소년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 청소년기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에 관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손인수. 1992. [미군정과 교육정책]. 서울: 민영사.
- 양심영. 2002. [고등학교 청소년의 휴대폰중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민희, 맹영임, 정문성. 1999. [청소년 대중문화 수용실태와 대책].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장경섭. 2003. “‘사회투자가족’의 위기: 세계화, 가족문화, 학력투쟁.” 한국사회사학회 편, [식각 변동의 사회사], pp.319-353. 서울: 문학과지성사.
- 조한혜정. 2000. [학교를 찾는 아이, 아이를 찾는 사회].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최윤진 편저. 1998. [청소년의 권리]. 서울: 양서원.
- 최창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서울: 후마니타스.
- 한준상. 1996. [청소년 문제] (증보판).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황진구 외. 2002. [청소년 정보화 실태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황창순, 이혜연, 김희진. 1999.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 문제와 대책].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연합통신]
- [한겨레].

Chang, Kyung-Sup. 1999. "Compressed Modernity and Its Discontents: South Korean Society in Transition." *Economy and Society* 28(1): 30-55.

- Chang Kyung-Sup. 2002. "South Korean Society in the IMF Era: Compressed Capitalist Development and Social Sustainability Crisis." Masina, Pietro P., ed., *Rethinking Development in East Asia: From Illusory Miracle to Economic Crisis*, pp.189-222. London: Curzon.
- Gillis, J. R. 1981. *Youth and History*. New York: Academic Press.
- Koo, Hagen. 2001. *Korean Worker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Shorter, Edward. 1975. *The Making of the Modern Family*. New York: Basic Books.
- Sommerville, C. John. 1990. *The Rise and Fall of Childhood*, revised edition. New York: Vintage Books.



Ⅲ. 디지털 시대 청소년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1. 들어가는 글
2. 정보사회와 지역사회연구
3. 정보사회 청소년의 지역사회 인식조사
방법 및 내용
4. 연구결과
5. 요약 및 결론

김 옥 순

(수원대학교 교수)

Ⅲ. 디지털 시대 청소년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1. 들어가는 글

디지털 시대는 정보통신기술혁명에 의해 초래된 현재의 사회를 명명하는 다양한 명칭중의 하나이다. 정보통신매체에 의해 전송되고 유통되는 정보 혹은 자료의 형태와 그 자료의 전달방식을 의미하는 디지털이라는 낱말은 그것의 사전적 의미와 상관없이 컴퓨터라는 기계를 연상시키는, 그러면서도 딱히 컴퓨터만을 의미하지 않는 지식정보사회를 대표하는 그 어떤 문화적인 용어 혹은 코드로 현재 자리 잡아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 디지털 시대란 컴퓨터라는 정보통신매체가 사회 구성원의 대중적인 매체로 자리 잡게 되면서 나타난 사회, 즉 정보사회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용어로 해석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디지털 시대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이라는 주제는 컴퓨터의 대중화와 그에 따라 발생한 청소년집단의 가치관과 행동양식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논의로 진행될 것임을 미리 밝힌다.

컴퓨터라는 정보통신매체는 가상공간을 출현시켰다고 하는 점에서 이전의 산업사회와 상당한 부분에서 구별되는 사회로 여겨지고 있다. 기술결정론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지적되고 있는 맥루한은 매체는 곧 메시지이며 한 시대의 주종을 이루는 매체는 그 시대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 즉 문화유형을 결정한다고 보았다(김우룡, 1995:18). 매체라는 단일요인이 인간사회의 모든 부분을 결정짓는다는 맥루한의 주장은 마르크스의 주장이 경제적 결정론이라 비난받는 것과 유사한 결정론적 오류를 갖는다는 비난을 피껴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라고 하는 매체의 출현에 의해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피에르 레비는 기술이 사회나 문화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조건

지워진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이 사회나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 것이라면서 사회변화의 추동체로서 컴퓨터가 가져온 변화를 인정하고 있다(피에르 레비, 2000:35).

본 연구의 목적은 컴퓨터의 출현과 그를 통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인간 사회에 어떠한 조건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어떤 변화를 발생시키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청소년집단에 국한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행동양식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가치관과 행동양식에 국한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을 사회 구성원 중에서도 청소년집단으로 국한시킨 것은 컴퓨터의 출현과 기술의 발전에 비교적 가장 많이 노출된 집단이 청소년 집단일 것이라는 가정 때문이었다.

2. 정보사회와 지역사회연구

1) 지역사회연구의 시대적 흐름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라는 용어는 ‘공동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개인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들과 구별되는 ‘우리’라는 의식을 갖게 되며, 이런 ‘우리’라는 의식은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기초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는 일반적으로 공동체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지역사회 →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의 형성 → 공동체로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지역사회’는 ‘공동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언어는 때로 인간의 사고를 확장시키는데 제한적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지역사회라는 언어적 표현은 개인의 사고를 ‘지역’이라는 물리적 개념에 제한시킴으로써 ‘사회’¹³⁾가 지닌 집합적 의식이라는 문화적 개

13) 정지웅은 지역사회라는 용어의 해석을 ‘지역’과 ‘사회’라는 두개의 용어가 합쳐

념으로서 지역사회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제한적 요소로 작용한다. 유사한 맥락으로 ‘공동체’라는 용어는 최근 들어 그 언어가 지닌 문화적 개념이 강조됨에 따라 ‘공동체’라는 용어 속에 ‘지역’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는데 제한적 요소가 되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 의해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에서 ‘지역사회’와 ‘공동체’라는 용어는 정확한 의미가 정의되지 않은 채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며, 학자에 따라서는 지역 공동체 혹은 커뮤니티(communitiy)라는 외래어를 사용함으로써 언어의 표현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언어 사용에 대하여 이처럼 장황한 설명을 전개하는 것은 연구자가 지역사회와 공동체, 그리고 커뮤니티라는 언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은 아니다. 그 보다는 오히려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 언어들 속에서는 시대적인 사회현상이 배태되어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지역사회’라는 용어는 정보사회라는 현재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용어가 지닌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연구자가 본 논문에서 ‘지역사회’라는 용어와 함께 ‘공동체’ 혹은 ‘커뮤니티’라는 외래어를 사용하게 된 것에 대한 이유를 간접적으로 밝히기 위한 노력이다.

‘지역사회’라는 용어는 한국사회에서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학계에서 상당히 환영받았던 용어였다¹⁴⁾. 특히 교육학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는 사회교육이라는 교육학의 하위 분야가 학문적으로 성

진 그래서 물리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이 함께 하는 단어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그 구성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이라는 물리적 영역과 함께 사회라는 인간의 집합체로서의 관점이 중요시되는 것이며, 사람이 중심을 이루는 모임체로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유대감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주요한 관점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지역사회 개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일정한 지리적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이 구성원으로 모여 서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지역에 대한 강한 공동의식 및 동류의식, 공동유대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지웅 외, 2002:7-9).

- 14) 이러한 현상은 서구 유럽국가에서도 유사하다. 서구유럽국가에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은 농업중심의 산업체계가 대량생산의 공장체계로 변하면서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변화에 의해 유발되었다 (강대기, 2004).

립될 수 있는 당위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1960년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한국사회에서 진행된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교육의 학문적 당위성은 물론 지역사회연구의 필요성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바로 이런 점에 의해 지역사회라는 용어는 한국사회가 급격히 산업화를 추진하던 시기에 사용된 언어로 지리적 영역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는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반면 공동체와 커뮤니티라는 용어는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로 소위 시간과 공간이 재구성되는 정보사회에서 공간적인 표현을 강력하게 포함하고 있는 지역사회라는 용어는 용어 그 자체가 지닌 제약적 요소에 의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생활이 일반화되면서 ‘가상 공동체’ 혹은 ‘가상 커뮤니티’라는 용어의 사용이 대중화되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대신 공동체라는 용어가 마치 유행처럼 사용되기 시작하였다¹⁵⁾. 즉 지역사회라는 용어가 산업사회에서 강조된 현시적인 특정 공간을 의미하고 있는데 비해, 공동체라는 용어는 특정 공간을 초월하여 유사한 가치관과 문화를 가진 개인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산업사회의 지역사회라는 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 정보사회에 적합한 용어라는 판단이 공동체라는 용어 사용의 유행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외국에서 진행된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와 그를 뒷받침하는 이론적인 분석의 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19세기 중엽 시작된 산업화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촌락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오고, 촌락 구성원간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산업사회에서의 지역사회연구는 토니스에 의해 주장된 게젤샹프트와 게마인샹프트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힐러리, 깬핀, 벨슨, 쿡등의 학자에 의한 다양한 연구들로 이루어져왔다. 이들 연구 중 1950년대 힐러리의 연구는 지역사회 연구에서 가장

15) 실제 청소년분야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정보문화공동체, 문화공동체 등과 같은 용어가 상당히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많이 인용되고 있는 연구로, 힐러리에 의해 주장된 지역사회의 세 가지 구성요소(지리적 영역, 상호관계, 유대감)는 지역사회를 연구하는 후학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연구의 지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발생한 사회문화적 변화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족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경험하던 ‘우리’ 라는 집합의식을 가족과 지역을 초월한 다양한 집단에서 경험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 연구는 공간을 초월한 심리적 혹은 사회 기능적 측면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베리 웰만에 의해 제기된 사회망 이론은 종래의 공간이라는 요소에 집착하였던 지역사회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으로 연결된 정보사회의 공동체 연구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공간중심의 전통적 공동체는 산업사회가 성숙함에 따라 발달한 값싸고 편리한 교통수단과 통신망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의 관계로 결속되는 공동체로 변화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지역공동체에서 개인적 공동체로 변모하게 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확대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웰만, 1999: 331).

이러한 웰만의 주장은 정보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지역사회의 개념이 변하여야만 함을 주장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시간과 공간의 분리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정보사회에서 지역사회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여겨졌던 지리적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공동의 유대감은 새로운 사고로 접근되어야 할 사회적 조건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사실상 웰만의 주장은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지리적 영역이라는 지역사회의 구성요소는 상실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정보통신매체의 발달에 따른 정보사회에서는 지역사회의 기본요소인 지리적 영역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라는 주장이 될 것이다.

장원호¹⁶⁾는 지역사회의 구성요소중 하나인 ‘지리적인 영역’ 을 ‘네트워

16) 장원호는 ‘사이버 커뮤니티와 사회관계의 변화, 라는 연구에서 베리 웰만의 주장을 이론적인 틀로 제시하고 있다. 장원호, ‘사이버 커뮤니티와 사회관계의 변화’, 21세기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동, 21세기 한국메가트렌드 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편,

크의 존재'로 해석함으로써 정보사회의 공동체 연구를 힐러리가 주장한 기존의 틀을 변형하여 수행하고 있다. 그는 사이버커뮤니티는 기존의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세 가지 구성 조건(지리적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이 1)네트워크의 존재, 2)네트워크 구성원간의 유대감, 3)복합적이며 전인적인 사회관계라는 세 가지의 요소로 대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보사회에서의 사이버 커뮤니티는 기존의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기능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할 때 산업사회의 지역 공동체는 사이버를 통해 생활세계에서 회복되고 있다고 주장한다(장원호, 2005:289-364).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볼 때 정보사회에서 지역사회는 기존의 세 가지 구성요소 중 지리적 영역 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동의 유대감이라고 하는 조건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둔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한국사회의 청소년집단과 커뮤니티

1960년대 이후의 한국사회는 '압축적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화'의 진행과 '정보강국을 위한 정보화'의 진행이 숨가쁘게 전개된 사회로 특징지을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특징 중 하나로 거론되는 소위 '압축적인 경제성장'은 한국사회를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그리고 곧이어 1990년대 이후 정보통신매체의 대중적 보급과 활용이라는 '정보강국을 향한 열기'에 의해 급진적인 정보화가 진행되었다¹⁷⁾.

(민음사, 2005)

- 17) 정보화를 향한 한국사회의 열망은 많은 공공문서에서 정부정책의 자랑스러운 추진 결과로 표현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발간한 2003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1995년 정보화 촉진기본법과 1996년 정보화 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 추진을 통해 세계최고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시도하였고, 그 결과 2002년 말 기준으로 인터넷 이용자 2,627만명, 초고속 인터넷 이용가구 1,040만 명을 보유한 세계최고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망을 구축하였으며, 세계최초로 전국 10,400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등의 괄목할만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은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는 상실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더욱이 정보통신기술 혁명에 의한 정보통신매체의 대중화는 지역공동체 상실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애셔(Ascher)는 강력한 시민사회 의식으로 정의되는 미국의 전통적 지역공동체와 중세의 역사적 전통에 의해 공간으로 그리고 단순한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 사회구성원의 정체성으로 까지 정의되어 왔던 유럽의 지역공동체는 사라져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지역공동체 상실의 중심에는 산업사회에서 일어난 직업구조의 변화와 정보사회의 통신혁명을 통한 사회적 변화가 있다고 주장한다¹⁸⁾ (Carnoy, 2000;160).

산업화와 정보화가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일어난 한국사회에서,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과는 사뭇 다른 문화적 전통을 가진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주장이 과연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보화라는 현상에 가장 많이 노출된 청소년집단의 지역사회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한국사회의 청소년 집단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의식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산업화가 성숙하였던 1980년대 한국사회의 청소년집단에서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 갤럽이 1983년 실시한 조사를 살펴보면 청소년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아주 좋아한다(23.8%), 약간 좋아한다(36.0%),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24.3%), 싫어한다(9.3%) 무어라 말할 수 없다(6.3%), 무응답(0.2%)의 조사결과를 보여, 지역사회에 대해 좋아한다는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전체의 59.8% (아주 좋아한다 +

성과를 거둔 사회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같은 문서에 의하면 정보통신산업은 1998년 이후 연 23.4%의 고성장을 지속하며 IMF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제약의 핵심동력으로 성장하면서 고용안정과 벤처창업에도 크게 기여하여 IT산업 수출비중이 1997년 23%에서 2002년에는 28.6%로 증가하는 등 국가사회 전반의 핵심동력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정보통신윤리백서, 2003: 89-90).

약간 좋아한다)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관에 의해 5년 후 다시 실시된 조사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선호도는 비록 적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었다. 1988년 조사에서는 아주 좋아한다(24.4%), 약간 좋아한다(37.7%),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25.5%), 싫어한다(8.9%) 무어라 말할 수 없다(3.4%), 무응답(0.1%)로 나타나 자신의 지역사회를 좋아하는 비율은 전체의 62.1%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에 대한 선호도는 2000년의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2000년도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지역사회에 대한 호감을 묻는 질문에 매우 좋아한다(8.0%) 좋아한다(54.5%) 싫어한다(28.3%) 매우 싫어한다(9.4%)의 결과를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를 좋아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2.5%(매우 좋아한다 + 좋아한다)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같은 기관에 의해 2004년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느끼는 선호도는 증가하여 매우 좋아한다(7.0%) 좋아한다(61.6%), 싫어한다(25.0%), 매우 싫어한다(6.1%)로 나타나 자신의 지역사회를 좋아하는 청소년의 수는 전체의 68.6%(매우 좋아한다 + 좋아한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조사결과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은 1980년대와 2000년대의 20년 동안 한국사회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좋아하는 성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지역사회에 대한 선호도의 증가가 지역공동체의 상실을 부정하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점이다. 지역 공동체의 상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선호도 보다는 오히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어느 정도의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지역사회내의 구성원과 어느 정도의 빈번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2000년과 2004년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실시한 조사연구는 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실시한 조사연구에서 지역사회에 대해 가지는 연대감은 동네 행사 참여의 정도로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동네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2000년의 조사에서는 21.7%였

으나 2004년에도 36.0%로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행사 참여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내의 구성원과 맺고 있는 상호관계의 비율도 비록 소폭이지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실시한 조사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상호관계를 이웃 어른들과의 대화 빈도로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청소년들 중 이웃 어른과 대화하는 빈도는 2000년 25.3%에서 2004년도에는 26.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88-91). 이러한 조사결과는 산업화와 정보화로 인해 지역공동체가 상실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종래의 주장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한다. 지역공동체가 상실되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소년들이 이웃 어른들과 대화하는 빈도나 지역사회의 행사에 참여하는 빈도가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청소년 집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그 빈도가 비록 소폭이기는 하지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 청소년 집단에서 발견되고 있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조사결과는 몇 가지의 추정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우선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지방자치제라는 지방분권적 행정제도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역에 대한 새로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하였다는 설명이 있을 수 있다¹⁹⁾. 그리고 청소년기라고 하는 인간발달과정상의 단계적 특수성을 출발점으로 하는 설명도 가능하다.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집단은 미래의 노동력으로서, 학교라고 하는 교육기관에서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기간, 즉 역할유예기간(moratorium)을 보내는 집단이다. 이는 학교라는 기관이 지닌 공동체의식 형성의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 단서를 제공한다. 즉, 청소년들은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학교를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을 좀 더 강하게 형성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조건적인 상황들은 청소년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을 가능케 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

19) 실제로 김성국은 한국사회에서는 현재 지역시대가 도래하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혁신이 핵심적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형성은 매우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받고 있다고 주장한다(김성국외 지음, 2005:53).

에서 꾸준히 추진되어온 교육기회의 확대 정책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에 진학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학교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기관

학교는 정보사회에서 지역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기능한다. 특히 지식이 중요한 자본으로 작동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학교란 지식공동체로서 기존의 지역공동체를 대신하여 공동체 의식을 형성시키는 주요기관이 된다. 카노이(Carnoy)는 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지역공동체는 학교와 같은 지식생산 기관에 의해 재구성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거치면서 기존의 지역공동체의식에서 벗어난 개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은 지식에 대한 탐구이며, 개인의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구축에 대한 욕구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욕구로부터 분출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보사회에서는 이러한 욕구에 의해 세 가지 형태의 공동체(자기학습 공동체, 지식이용 공동체, 지식생산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학교는 지식생산 공동체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하고 있다 (카노이, 2000;152-189).

지식을 생산하는 기관들은 그 스스로가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공간을 조직할 수 있다. 개인과 가족은 특정한 그들의 이웃과 더 이상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개인들은 아동 관련 센터, 유아원, 그리고 초등학교 등과 같은 기관들을 통해 더욱 더 연결되어가고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일하는 부모들은... 사회활동과 시민활동, 그리고 우정등을 자신들 자녀의 교육기관을 통해 형성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공동체적 공간은 그들이 살고 있는 장소보다는 그들 자녀의 학교에 의해 규정되

고 있는 것이다(카노이, 2000:183).

이러한 카노이의 주장은 단지 부모의 입장에서만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부모는 물론 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는 지역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기관으로 혹은 다른 청소년들과 긴밀한 상호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높은 교육열을 보이고 있는 사회에서는 학교가 지역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사회이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지식공동체를 통해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친구들과의 유대감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유대감으로 발전하는 기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983년과 1988년 한국갤럽연구소가 실시한 조사결과는 이러한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 갤럽이 청소년들에게 친구를 만나게 된 계기를 질문한 결과 1983년 조사에서 ‘학교’라고 응답한 비율은 84.6%인 반면 1988년에는 88.3%로 증가하고 있었다. 반면 ‘이웃’에서 친구를 만났다고 응답한 비율은 83년의 경우 전체의 32.8%가 응답한 반면, 1988년에는 24.7%로 줄어들고 있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성향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이 2000년도와 2004년도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집단에서 ‘학교친구’와 어울리는 비율은 계속하여 증가하는 반면, ‘동네친구’와 어울리는 비율은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²⁰⁾. 따라서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학교라는 기관은 청소년 집단에 있어 친구관계를 맺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20) 청소년들에게 동네친구와 학교친구 중 주로 어느 쪽 친구와 어울리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2000년도 조사에서는 대부분학교 친구(43.7%), 주로 학교 친구(37.0%), 주로 동네친구(14.8%), 대부분 동네친구(4.7%)였던 반면, 2004년 조사에서는 대부분 학교친구(38.1%), 주로 학교친구(47.5%), 주로 동네친구(11.7%), 대부분 동네친구(2.7%)로 나타나 친구의 유형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4:118-119).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가상 공간 친구와의 교제가 배제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서 2004년도에 나타나고 있는 친구유형의 변화는 좀 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동체와 관련되어 한국사회가 보이는 또 다른 특성은 혈연을 통한 친족 공동체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사회라는 것이다. 산업화와 정보화를 통한 사회변화로 지역 중심의 공동체가 약화되었다고 하여도 친족 공동체라고 기능적 측면의 공동체는 한국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민족의 대이동’이라 표현되는 추석과 신년의 귀향 행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강대기는 공동체적 성격을 상실해 가는 듯한 산간변지의 촌락 공동체는 실질적으로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지역적으로 더욱 확대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또한 외부 지역과 밀접한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쓸쓸해 보이는 산간촌락은 외견상으로는 매우 고립된 공동체로 보이나 그들은 빈번히 도시의 자녀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수시로 송금해 오는 생활비를 인출하기 위해 읍내를 방문하고, 소일 노동으로 얻은 농산물을 수집하기 위해 고립된 촌락을 찾은 상인들과 상호관계를 맺고, 저녁이면 TV 앞에서 넓은 세상을 만나면서 오히려 도시 아파트 주민들 보다 더욱 개방적인 공동체를 갖는다고 설명한다(강대기, 2000:203).

강대기의 기능적 공동체의 개념은 에치오니의 사회적 망에 근거한 공동체의 개념과 유사한다. 에치오니는 커뮤니티가 지역적 경계에 의해 제한될 필요는 없으며,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도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경우는 많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회적 망에 의한 커뮤니티 확장의 예로 대도시에 존재하는 유대인 커뮤니티를 들고 있다. 그에 의하면 대도시의 유대인 커뮤니티는 사는 지역이 다르고 널리 분산되어 있지만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의 가치와 정체성을 느끼는 커뮤니티라 설명한다(에치오니, 1995).

이러한 주장들에 반해 김성국은 정보사회에서는 기능적 공동체 보다는 사이버 공동체가 공동체적인 기능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한국사회에서는 가족제도의 약화 혹은 해체를 의미하는 탈 가족화는 사회의 구조변동을 초래하는 핵심적 원리이기 때문에 정보사회에서

혈연을 중심으로 한, 연고에 입각한 전통적 공동체의 역할은 차츰 약화될 것이라 보고 있다. 그는 앞으로 한국사회에서는 새로운 사회자본을 기반으로 한 유목적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며,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각종 커뮤니티들은 이러한 유목적 공동체를 실험하는 자리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김성국, 2005:47-53).

정보사회에 등장한 사이버 공간속에서의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논의들이 진행되어왔다. 혹자는 사이버 공간에서 인간은 현실공간과 같은 상호교감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반면²¹⁾, 혹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시공간적 분리현상은 인간의 인식체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개인간의 상호작용과 가상공간 안에서 형성되는 공동의 연대만으로 공동체가 형성될 수는 없다²²⁾고 주장한다.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든 정보사회에서 등장한 사이버공간은 공동체를 연구하는데 있어 제외될 수 없는 중요한 존재가 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청소년집단²³⁾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 연구에 있어서 사이버공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21)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레인골드(Rheingold)로 그는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되는 인간 관계는 공동체를 형성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Rheingold,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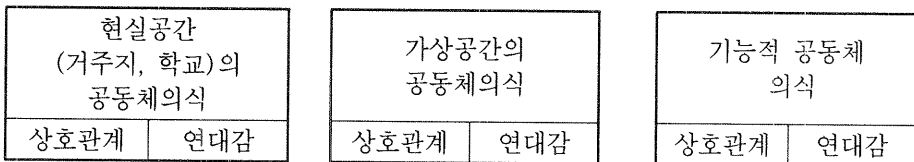
22)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는 대표적 학자는 하비(Harby)이다. 하비 외에도 스나이더(Snyder)는 '좁은 주제에 대한 토론을 바탕으로 하는 사이버 커뮤니티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동체는 그 이상의 것을 공유하는 집단이라 주장한다' (장원호 2005년에서 재인용)

23) 2003년 현재 청소년의 97.9%가 컴퓨터를, 그리고 이중 99.1%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이중 89.1%의 청소년이 1개 이상의 사이버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03-R07, 2003:75)

3. 정보사회 청소년의 지역사회 인식조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정보사회의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식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다. 2장에서 언급된 학문적인 논의들은 정보사회의 지역사회연구, 특히 청소년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연구가 포함하여야 할 연구의 범위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2장에서 다루어진 논의들은 시간과 공간의 분리현상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사회에서 지리적인 현실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각각의 공간에서 그동안 공동체의 기본요소라 여겨졌던 개인간의 상호관계와 연대감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연구에서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의식형성의 기능이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음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가족이라는 사회화 기관을 통해 가지게 되는 기능적 공동체에 대한 연구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제외될 수 없음도 언급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들을 기초로 하여 연구자에 의해 설정된 연구 내용의 범주는 아래의 [그림 1] 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림 1] 지역사회 의식조사의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에 의해 설계된 설문지가 서울시 내 중·고등학교로 배포되었다. 연구자는 서울시내 11개의 교육청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선정된 교육청 관내에 소재하는 1개의 학교를 각각 무작위로 선정하여 선정된 교육청의 학생수 비례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총 1,000부의 설문지가 2005년 9월20일부터 2주간에 걸쳐 배포되었다. 배포된 설문지중 94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들 940부의 설문지가

본 연구를 위해 분석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성별 학년별 구성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의 성별과 학년별 구성

성 별	학 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합계
여 자	95	67	55	46	125	30	418
남 자	121	79	73	46	181	22	522
합 계	216	146	128	92	306	52	940

위의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설문지에 응답한 응답자의 수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예외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의 응답자가 다른 학년에 비해 상당히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이러한 문제는 설문지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교육청 내의 학교만을 또 다시 무작위 추출하여 교장선생님을 통해 배포하는 과정에서 학년에 대한 비율이 고려되지 못한 결과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는 [그림 1]에서 제시된 세 가지 연구범위 외에 개인 신상 영역이 추가되어 총 네 가지의 영역에서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별 문항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설문조사 결과는 윈도우용 SPSS 11.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이 컴퓨터의 사용에 따른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분석과정에서는 위에 제시된 ‘개인 신상’ 영역의 항목들을 배경변인으로 배경변인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배경변인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Chi-square(χ^2) 값을 산정하였다.

<표 2> 설문 조사영역 및 내용

영역	조사 문항내용
개인 신상	성별, 학년, 컴퓨터 이용기간, 일주일 평균 컴퓨터 사용시간, 거주기간
현실공간의 공동체의식	학교친구의 수, 동네친구의 수, 거주지역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동네행사 참여정도, 동네 홍수피해 복구 참여 의사, 동네 청소 참여 의사,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네청소 참여의사, 지역별운동시합 참여의사, 학교별 운동시합 참여의사
가상공간의 공동체의식	온라인 친구의 수, 가입한 동호회의 수, 활동하는 동호회의 수, 동호회 모임에 참여정도, 동호회 활동을 통해 주로 얻는 것, 게시판을 통한 봉사활동 참여정도, 온라인 친구의 우정, 동네친구와 온라인 친구와의 비교.
기능적 공동체의식	명절 귀향 유무, 친척과 만나는 느낌, 명절귀향관습에 대한 의견

4. 연구 결과

1) 현실공간에서의 공동체 의식과 행동양식

(1) 지역사회에서의 상호관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조사대상자의 지역사회에서 갖는 상호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5 가지의 질문을 하였다.

1.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나 지역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나 지역에 대하여 좀 더 많이 알고 싶으십니까?
3.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나 지역의 축제나 행사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까?
4.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몇 명입니까?
5. 학교친구는 아니나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몇 명입니까?

이들 5개의 항목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청소년들의 성별, 학년, 인터넷 이용기간, 일주일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그리고 자신의 지역에 거주한 기간 등과 같은 5개의 배경 변인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변인들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사회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

지역사회에 대하여 자신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응답자의 성별, 학년, 그리고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표 3>. 여자 청소년은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23.7%)이 남자 청소년(34.5%)에 비해 적은 반면 남자 청소년들 중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5.0%와 1.0%)은 여자청소년(2.9%와 0.5%)에 비해 많았다. 학년별로는 고학년이 될 수록 동네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증가하나 동시에 ‘모른다’ 혹은 “전혀 모른다” 고 응답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는 응답비율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모른다’ 혹은 ‘전혀 모른다’ 에 응답한 비율도 감소하고 있었다.

<표 3> 거주지역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단위 : %)

구분	많이 안다	어느정도 안다	약간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합 계	통계치
전체	29.7	46.5	19.0	4.1	.7	100.0	
성 별	여 자	23.7	50.0	23.0	2.9	.5	100.0
	남 자	34.5	43.7	15.8	5.0	1.0	100.0
	전 체	29.7	46.5	19.0	4.1	.7	100.0
학 년	중 1	22.2	44.4	33.3	.0	.0	100.0
	중 2	24.1	55.2	17.2	.0	3.4	100.0
	중 3	30.0	45.2	19.6	5.2	.0	100.0
	고 1	29.0	48.1	19.8	2.5	.7	100.0

p<.001
df=4
X²=20.663

p<.05
df=20
X²=32.047

구분	많이 안다	어느정도 안다	약간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합 계	통계치
고 2	31.1	44.7	18.2	6.1	.0	100.0	
고 3	31.3	43.8	12.5	7.8	4.7	100.0	
전 체	29.5	46.7	19.1	4.0	.8	100.0	
2년미만	18.0	40.6	28.6	10.1	2.8	100.0	
3~6년	24.1	53.7	19.0	3.1	.0	100.0	
거 주 7~10년	34.4	50.0	13.3	2.2	.0	100.0	p<.001 df=16 X ² =98.985
기 간 11~14년	38.0	44.2	15.5	1.6	.8	100.0	
14년이상	48.7	36.8	13.7	.9	.0	100.0	
전 체	29.7	46.5	19.0	4.1	.7	100.0	

② 동네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행사에 참가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동네 행사에 참가하는 정도는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아래의 <표 4>에서 나타나듯이 동네행사에 참가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 청소년의 25.6%였으며,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동네행사에 참가하는 비율은 16.1%인데 비해 거주기간이 14년 이상이 경우 동네행사에 참가하는 비율은 31.6%였다. 즉, 동네행사의 참가율은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표 4> 거주기간에 따른 지역행사 참여 유무

(단위 : %)

구 분	예	아니오	합 계	통 계 치
2년 미만	16.1	83.9	100.0	
3~6년	25.9	74.1	100.0	
7~10년	29.6	70.4	100.0	p<.01 df=4 X ² =15.104
11~14년	29.7	70.3	100.0	
14년 이상	31.6	68.4	100.0	
전 체	25.6	74.4	100.0	

③ 동네친구의 수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과의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에서 만나지 않고 동네에서 만나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몇 명이나 되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동네친구의 수는 평균 6.6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동네친구의 수는 인터넷 이용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인터넷을 이용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동네친구의 수는 증가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인터넷 이용기간이 1년 미만인 청소년의 경우 동네친구의 수는 20명 이하였으나, 인터넷 이용기간이 9년 이상인 청소년의 경우 동네친구의 수가 20명 이하인 비율은 87.5%, 그리고 21명을 넘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수가 12.5%(1.6%+3.1%+7.8%)에 달하고 있었다.

<표 5> 인터넷 이용에 따른 동네 친구의 수

(단위 : %)

구 분	1~20명	21~40명	41~60명	61~80명	81명 이상	합 계	통 계
인터넷 이용 기간	1년미만	100.0	.0	.0	.0	100.0	p<.05 df=20 X ² =34.582
	1~2년	93.1	.0	3.4	.0	3.4	
	3~4년	93.6	4.4	.4	.0	1.6	
	5~7년	96.2	1.6	1.1	.0	1.1	
	7~9년	93.2	3.8	1.5	.8	.8	
	9년이상	87.5	1.6	3.1	.0	7.8	
전체		94.4	2.6	1.2	.1	1.7	100.0

④ 학교친구의 수

학교에서 만나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수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 청소년들은 평균 14.95명의 학교친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동네친구의 2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학교 친구의 수는 인터넷 이용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아래의 <표 6>에서 나타나듯이 인터넷 이용

기간이 1년 미만인 청소년의 경우 20명이하의 학교친구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0%인데 비해, 인터넷 이용기간이 3~4년인 청소년의 경우 학교친구의 수가 21~40명이라 응답한 비율은 10%, 61~80명이라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20%였다. 인터넷 이용이 5~7년인 청소년의 경우, 학교친구의 수가 61~80명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무려 40%에 달하고 있었다.

<표 6> 인터넷 이용기간에 따른 학교 친구의 수

(단위 : %)

구 분	1~20명	21~40명	41~60명	61~80명	81명이상	합 계	통 계
1년미만	100.0	.0	.0	.0	.0	100.0	$p < .05$ $df = 20$ $X^2 = 36.545$
인터넷 이용 기간	1~2년	72.4	17.2	3.4	3.4	100.0	
	3~4년	84.8	10.0	2.0	20.0	100.0	
	5~7년	85.9	8.5	2.9	40.0	100.0	
	7~9년	73.5	15.2	2.3	20.0	100.0	
	9년이상	73.4	14.1	1.6	.0	100.0	
전체	82.5	10.4	2.5	.5	3.9	100.0	

(2) 지역사회에 대해 가지는 연대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연대감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질문을 하였다.

1.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홍수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휴일을 이용해 도로나 하수구 청소를 하자고 동사무소 직원이 말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 학교 선생님께서 휴일을 이용해 근처의 도로나 하수구 청소를 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 다른 동네와 운동시합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 다른 동네의 학교와 운동시합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 5개의 항목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청소년들의 성별, 학년, 인터넷 이용기간, 일주일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그리고 자신의 지역에 거주한 기간 등의 5개의 배경 변인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활동에 자율적인 참여의사 I (홍수피해 복구작업)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심각한 홍수피해가 발생했다고 할 때 자율적으로 복구 작업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청소년의 응답은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7> 성별에 따른 홍수 피해 복구 작업 참가 의사

(단위 : %)

분 류	참 가	마음	어른들의	정부의일	기 타	합 계	통계치
		으로만 참가	일이어서 불참	이어서 불참			
여 자	55.0	32.0	5.5	4.6	2.9	100.0	p<.001 df=4 X ² = 20.670
남 자	59.0	23.5	2.5	7.4	7.6	100.0	
전체	57.3	27.2	3.8	6.2	5.5	100.0	

여자 청소년의 55%만이 피해복구 작업에 적극 참가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남자 청소년은 59%가 적극 참가하겠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마음으로만 참가하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32.0%)이 남자 청소년(23.5%)보다 많았다. 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7.4%)이 여자 청소년(4.6%)보다 많았다.

② 지역활동에 자율적인 참여의사 II (동네 청소)

휴일을 이용해 도로나 하수구 청소를 모두의 공동작업으로 하자고 동사무소 직원이 권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한 결과 아래의 <표 8>과 같이 성별과 인터넷 이용 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표 8> 동네 청소에 참여 의사

(단위 : %)

구 분	참가	이웃때문에 참가	참가않으 려 노력	불참	합 계	통계치
전 체	35.0	25.8	26.1	13.2	100.0	
성 별	여 자	39.2	24.0	26.1	13.3	100.0
	남 자	31.5	27.2	26.6	10.2	100.0
	전 체	35.0	25.8	26.1	13.2	100.0
인터넷 이용 기간	1년미만	11.1	33.3	22.2	33.3	100.0
	1~2년	41.4	24.1	31.0	3.4	100.0
	3~4년	38.8	30.2	22.4	8.6	100.0
	5~7년	33.7	24.4	28.5	13.4	100.0
	7~9년	31.3	25.2	29.0	14.5	100.0
	9년이상	36.5	17.5	15.9	30.2	100.0
	전 체	34.9	25.7	26.1	13.3	100.0

p<.05
df=4

X²=10.112

p<.01
df=15
X²=35.723

여자 청소년(39.2%)들은 남자 청소년(31.5%)에 비해 ‘기분 좋게 참가한다’는 응답을 한 비율이 높았다. ‘이웃 사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싫더라도 참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 청소년(27.2%)이 여자청소년(24.0%)에 비해 높았다. 또한 인터넷 이용기간이 1년 미만(11.1%)인 청소년들의 경우 ‘기분 좋게 참가한다’는 비율이 가장 낮은데 비해, 인터넷 이용기간이 1년에서 9년 미만인 청소년들의 경우 인터넷 이용기간이 오래될수록 ‘기분 좋게 참가한다’는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기간이 9년 이상인 청소년들의 경우 ‘기분 좋게 참가한다’는 비율이 증가하여 36.5%를 차지하고 있었다.

③ 지역활동에 자율참여 의사 III(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네청소)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지역사회에 대해 연대감을 갖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 선생님께서 휴일에 동네를 청소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표 9>에 나타나듯이 이 항목에 대한 응답은 성별과 인터넷 이용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기분 좋게 참가 한다’ 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 청소년(20.4%)이 여자 청소년(19.3%)에 비해 높은 반면, 여자 청소년(45.5%)들의 경우 ‘선생님 말씀이기 때문에 싫더라도 참가 한다’ 는 비율이 남자 청소년(36.7%) 보다 높았다.

인터넷 이용기간이 1년 미만(.0%)인 청소년들의 경우 ‘참여 하겠다’ 는 응답을 한 청소년은 없었던데 비해, 인터넷 이용기간이 1년에서 7년 미만인 청소년들의 경우 인터넷 이용기간이 오래될수록 ‘기분 좋게 참가 한다’ 는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기간이 7년 이상의 청소년들에게서는 ‘참여 하겠다’ 는 비율은 이용기간이 오래될수록 증가하는 경향(18.3%, 19.0%)을 보이고 있었다.

<표 9> 학교선생님의 요청에 의한 동네청소에 참여 의사

(단위 : %)

구 분	참가	선생님 때문에 참가	참가않으 려 노력	불참	합 계	통계치
전 체	19.9	40.6	23.4	16.0	100.0	
성 별	여 자	19.3	45.5	21.0	14.2	100.0 p<.05
	남 자	20.4	36.7	25.4	17.5	100.0 df=3
	전 체	19.9	40.6	23.4	16.0	100.0 X ² =8.049
인터넷 이용 기간	1년미만	.0	44.4	22.2	33.3	100.0
	1~2년	41.4	31.0	20.7	6.9	100.0 p<.05
	3~4년	22.6	44.4	22.6	10.5	100.0 df=15
	5~7년	17.4	39.8	24.9	17.9	100.0 X ² =31.90
	7~9년	18.3	43.5	22.9	15.3	100.0 2
	9년이상	19.0	31.7	19.0	30.2	100.0
	전 체	19.6	40.6	23.4	16.0	100.0

2) 가상공간에서의 공동체 의식

(1) 가상공간 내의 상호관계

가상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간의 상호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의 질문을 하였다.

1. 현재 약 몇 개의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2. 자신이 활발하게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동호회는 몇 개나 됩니까?
3. 이들 동호회의 off-line 모임에 참여하는 정도는?
4. 온라인에서 만나 온라인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수는?
5. 온라인에서 만나 오프라인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수는?

위의 다섯 가지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청소년들의 성별, 학년, 인터넷 이용기간, 일주일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그리고 자신의 지역에 거주기간 등의 5개 변인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가입한 인터넷 동호회의 수

청소년들이 가입하고 있는 동호회의 수는 평균 11.42개였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입한 동호회의 수는 인터넷 이용기간과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었다. 즉, 인터넷 이용기간이 오래될수록,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청소년들이 가입한 동호회의 수는 증가하고 있었다 <표 10>.

<표 10> 가입한 인터넷 동호회의 수

(단위 : %)

구 분	1~10개	11~20개	21~30개	31~40개	41개이상	합 계	통계치
전 체	88.0	5.5	2.7	.5	3.3	100.0	
인터넷 이용 기간	1년미만	88.9	.0	.0	11.1	.0	100.0
	1~2년	96.6	3.4	.0	.0	.0	100.0
	3~4년	89.6	5.2	1.6	.4	3.2	100.0
	5~7년	87.5	5.8	3.1	.7	2.9	100.0
	7~9년	87.9	5.3	4.5	.0	2.3	100.0
	9년이상	81.3	6.3	1.6	.0	10.9	100.0
전체	88.0	5.5	2.7	.5	3.3	100.0	
일주일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	1시간미만	93.0	3.0	2.0	.0	2.0	100.0
	1~3시간	93.0	3.3	1.2	.3	2.1	100.0
	4~6시간	85.5	6.7	3.4	.6	3.9	100.0
	7~9시간	89.7	3.7	3.7	.9	1.9	100.0
	10~12시간	80.0	8.3	5.0	1.7	5.0	100.0
	13~15시간	81.5	13.0	1.9	.0	3.7	100.0
	16~18시간	83.3	5.6	.0	5.6	5.6	100.0
	19~21시간	77.8	7.4	11.1	.0	3.7	100.0
	21시간이상	75.4	10.5	3.5	.0	10.5	100.0
전체	88.0	5.5	2.7	.5	3.3	100.0	

p<.01
df=20
X²=
39.294

p<.01
df=32
X²=
54.760

②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 동호회의 수

가입하고 있는 동호회의 수보다는 실제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동호회의 수가 가상공간 안에서 타인과 맺고 있는 상호관계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더욱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는 가정아래 가입한 동호회중 활발하게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동호회의 수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인터넷 동호회의 수는 평균치는 3.33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활발하게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동호회의 수는 인터넷의 이용 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아래의 <표 11>에서 나타나듯이 인터넷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호회의 수는 증가하고 있었다.

<표 11> 인터넷 이용기간에 따른 활동 동호회 수

(단위 : %)

구 분	1~10개	11~20개	21~30개	31개이상	합 계	통 계
인터넷 이용 기간	1년미만	100.0	.0	.0	100.0	p<.05 df=15 X ² = 28.970
	1~2년	100.0	.0	.0	100.0	
	3~4년	99.2	.0	.0	100.0	
	5~7년	98.2	.9	.0	100.0	
	7~9년	98.5	.0	.8	100.0	
	9년이상	90.6	1.6	1.6	100.0	
전체	98.1	.5	.2	1.2	100.0	

③ 온라인 친구의 수

가상공간에서 형성되는 개인 간 상호관계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온라인에서 만나 온라인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수를 질문하였다. 또한 온라인의 인간관계가 현실공간으로 확장되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온라인에서 만나 오프라인의 친구가 된 경우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에서 만나 온라인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수는 평균 9.14명이었고, 온라인의 만남이 오프라인으로 연장되어 친구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는 평균 4.69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온라인 친구의 수는 학년과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비해 온라인에서 만나 오프라인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수는 어떤 배경변인과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2> 온라인 친구의 수

(단위 : %)

구 분	1~20명	21~40명	41~60명	61~80명	81명이상	합 계	통계치
전 체	89.4	3.9	1.3	1.4	4.0	100	
학 년	중 1	83.8	6.5	3.7	2.8	3.2	100.0
	중 2	86.3	4.1	1.4	7.7	7.5	100.0
	중 3	88.3	3.1	1.6	2.3	4.7	100.0
	고 1	94.6	3.3	.0	.0	2.2	100.0
	고 2	93.1	3.3	.0	1.0	2.6	100.0
	고 3	92.3	0.0	.0	.0	7.7	100.0
	전체	89.4	3.9	1.3	1.4	4.0	100.0
일주일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	1시간미만	93.0	3.0	1.0	1.0	2.0	100.0
	1~3시간	91.8	3.0	0.9	1.2	3.0	100.0
	4~6시간	87.2	5.0	1.7	.6	5.6	100.0
	7~9시간	86.9	2.8	.0	5.6	4.7	100.0
	10~12시간	90.0	6.7	1.7	.0	1.7	100.0
	13~15시간	88.9	3.7	.0	.0	7.4	100.0
	16~18시간	100.0	.0	.0	.0	.0	100.0
	19~21시간	85.2	11.1	3.7	.0	.0	100.0
	21시간이상	78.9	3.5	5.3	1.8	10.5	100.0
	전체	89.4	3.9	1.3	1.4	4.1	100.0

p<.01
df=20
X²=
39.508

p<.05
df=32
X²=
50.070

온라인 친구의 수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적어지는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아질수록 온라인 친구의 수는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나, 일주일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이 10시간에서 18시간사이의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성향이 나타나고 있질 않았다. 일주일에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이 16~18시간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경우 온라인 친구의 수가 20명을 넘지 않고 있는데 비해 일주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이 13~15시간인 청소년의 경우 온라인 친구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여 온라인 친구가 20명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88.9%, 그리고 81명이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7.4%였다.

(2) 가상공간내의 연대감

가상공간 안에서 청소년들이 타인과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을 하였다.

1. 온라인 동호회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중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2. 온라인 동호회 게시판에 휴일을 이용해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의 도로나 하수구 청소를 하지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 자신이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에 소속된 회원들과 동네에서 만나 알게 된 사람들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누구에게서 더욱 끈끈한 정을 느끼게 됩니까?
4. 온라인상에서 만나 알게 된 사람 (A)과 동네에서 만나 알게 된 사람 (B)이 있습니다. 한동안 만나지 못하다 어느 날 우연히 온라인에서 A를 만나게 된 경우와 동네에서 B를 만나게 된 경우 어느 편이 더 반갑게 느껴집니까?

위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을 성별, 학년, 인터넷 이용기간, 일주일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그리고 자신의 지역에 거주기간 등의 5개 변인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동호회 활동을 통해 얻는 것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동호회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타인과의 연대감인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동호회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 중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이 질문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

은 성별과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한 청소년(67.8%)이 남자 청소년(54.2%)보다 많았던 반면,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끈끈한 동료의식’ 이라 응답한 비율(28.3%)이 여자 청소년(4.2%)보다 상당히 높았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2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 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60.3%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 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67.3%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14> 동호회 활동을 통해 얻는 것

(단위:%)

구분	관심분야 에 대한 정보	정서적 안정	끈끈한 동료의식	교제기회 제공	자신의 문제 해결	기타	합 계	통계치	
전체	60.4	5.5	6.8	12.6	5.3	9.4	100.0	$p<.001$ $df=5$ $X^2=21.874$	
성별	여 자	67.8	5.2	4.2	11.2	3.2	8.2		100.0
	남 자	54.2	5.8	28.3	13.7	7.0	10.4		100.0
	전 체	60.4	5.5	6.8	12.6	5.3	9.4		100.0
학년	중 1	51.0	9.1	10.1	11.5	9.1	9.1	100.0	$p<.05$ $df=25$ $X^2=38.610$
	중 2	60.3	5.0	5.7	12.1	5.7	11.3	100.0	
	중 3	58.3	6.7	5.8	14.2	2.5	12.5	100.0	
	고 1	65.1	3.5	9.3	11.6	4.7	5.8	100.0	
	고 2	67.9	3.2	5.1	13.4	3.2	7.2	100.0	
	고 3	55.8	5.8	3.8	11.5	7.7	15.4	100.0	
	전 체	60.4	5.5	6.8	12.6	5.3	9.4	100.0	

② 공동체 활동에 자율적인 참여정도(동호회 게시판을 통한 사회봉사)

지역사회 활동에 자율적인 참여 의사를 질문하여 조사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과 유사하게 온라인 동호회 게시판에 공지된 봉사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가상공간내의 연대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표 12>에 정리된 것과 같이 청소년의 응답은 인터넷 이용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 13> 자율적 봉사활동의 참여의사

(단위 : %)

구 분		참 가	싫더라도 참가	참가 않으려 노력	불 참	합 계	통 계 치
인터넷 이용 기간	1년미만	.0	44.4	11.1	44.4	100.0	
	1~2년	20.7	20.7	24.1	34.5	100.0	p<.05
	3~4년	10.6	17.5	21.1	50.8	100.0	df=15
	5~7년	7.8	11.9	19.3	61.0	100.0	X ² =
	7~9년	11.5	10.8	21.5	56.2	100.0	27.770
	9년이상	13.1	8.2	24.6	54.1	100.0	
전체		9.8	13.6	20.5	56.1	100.0	

인터넷 이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참가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0%, 싫더라도 참가하겠다는 비율은 44.4%, 인데 비해, 인터넷 이용기간이 1~2년인 경우 참가하겠다는 비율은 20.7%, 그리고 싫더라도 참가하겠다는 비율이 20.7%로 나타나고 있었다. 참가하지 않겠다고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인터넷 이용경력이 5~7년이 되는 집단으로서 그 비율은 61%였다. 그 다음으로 참가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높은 집단은 인터넷 경력이 7~9년인 집단이 56.2%, 그리고 9년 이상인 집단이 54.1%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③ 인터넷 동호회 회원과 동네의 지인과 느끼는 감정의 비교

가상공간내의 인간관계와 현실공간 안에서의 인간관계를 비교해봄으로써 가상공간내의 연대감을 살펴보고자 지역사회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과 자신과 같은 인터넷 동호회에 소속되어 알고 지내는 사람을 비교할 때 누구에게서 더욱 더 끈끈한 정을 느끼는지를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이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인터넷 동호회 회원과 동네의 지인에 대한 비교

(단위 : %)

구 분	동호회 회원	동네 사람	같 다	합 계	통 계 치
일주일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1시간미만	15.3	54.1	30.6	100.0
	1~3시간	16.5	57.5	26.0	100.0
	4~6시간	14.0	44.1	41.9	100.0
	7~9시간	19.4	49.5	31.1	100.0
	10~12시간	27.6	55.2	17.2	100.0
	13~15시간	16.7	55.6	27.8	100.0
	16~18시간	.0	50.0	50.0	100.0
	19~21시간	19.2	57.7	23.1	100.0
	21시간이상	18.2	43.6	38.2	100.0
전 체	16.8	52.3	30.9	100.0	

p<.05
df=16
X²=30.559

위의 <표 15>에서 나타나듯이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아질수록 동호회 회원에게 정을 느끼는 비율이 대체로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시간이 10~12시간인 청소년집단의 경우 인터넷 동호회 회원에게서 끈끈한 정을 더 느낀다고 응답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27.6%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인터넷 사용시간이 16~18시간인 청소년 집단에게서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한명도 없었다. 특히 인터넷 사용시간이 16~18시간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집단에서 인터넷

동호회 회원과 동네사람이 동일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④ 가상공간에서의 만남과 현실공간에서의 만남비교

가상공간내의 인간관계와 현실공간 안에서의 인간관계에서의 연대감의 차이를 비교하여 가상공간내의 연대감을 살펴보고자 온라인 상에서 만나 알게 된 사람 (A)와 동네에서 만나 알게 된 사람 (B)를 한동안 만나지 못하다 어느 날 우연히 (A)를 온라인에서 만났을 때와 (B)를 동네에서 만났을 때 어느 쪽이 더 반갑게 느껴지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표 16>에서 나타나듯이 청소년의 응답은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16>가상공간의 지인과 현실공간의 지인과 만남비교

(단위 : %)

구 분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온라인에서 만났을 때	동네 사람을 동네에서 만났을 때	같 다	합 계	통 계 치
거주 기간	2년 미만	16.1	55.8	28.1	100.0	p<.05 df=8 X ² =15.745
	3~6년	12.8	59.3	27.9	100.0	
	7~10년	11.2	61.2	27.5	100.0	
	11~14년	25.4	51.6	23.0	100.0	
	14년 이상	15.5	62.9	21.6	100.0	
	전 체	15.3	58.3	26.4	100.0	

자신의 거주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14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경우 ‘동네사람을 동네에서 만날 때 더 반갑다’고 응답한 비율은 62.9%로 다른 집단의 청소년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거주기간이 11년에서 14년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온라인에서

만날 때 더 반갑다' 고 응답한 비율이 25.4%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3) 기능적 공동체 의식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결속이 약화된다고 하여도 한국인의 가치관 속에는 여전히 친·인척을 중심으로 한 기능적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질문을 하였다.

1. 명절에 가족과 함께 고향에 다녀옵니까?
2. 명절에 고향에 가서 성묘하는 우리의 관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명절에 고향에 가서 평소 자주 만나지 못하는 친척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상의 질문 항목 중 1번과 2번의 항목은 기능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상호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고, 3번은 기능적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연대감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 3개의 항목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그들의 성별, 학년, 인터넷 이용기간, 일주일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그리고 자신의 지역에 거주기간 등의 5개 변인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변인들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능적 공동체의 상호관계

기능적 공동체의 상호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명절에 가족과 함께 고향에 다녀오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표 17>에서 나타나듯이 청소년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명절에 고향을 다녀오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어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표 17> 명절 귀향 유무

(단위 : %)

구 분	예	아니오	합 계	통 계 치
중 1	77.8	22.2	100.0	p<.05 df=5 X ² =12.779
중 2	76.0	24.0	100.0	
중 3	74.6	25.4	100.0	
학 년 고 1	65.6	34.4	100.0	
고 2	66.4	33.6	100.0	
고 3	64.7	35.3	100.0	
전 체	71.5	28.5	100.0	

(2) 기능적 공동체의 연대감

기능적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연대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소 자주 만나지 못하는 친척을 명절에 고향에 가서 만나면 반가운 감정이 생기는지를 질문 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표 18>과 같이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인터넷 이용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인터넷 이용기간이 1년 미만인 청소년들 중 ‘매우 반갑다’고 응답한 비율은 75.0%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반갑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25.0%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기간이 오래될수록 ‘매우 반갑다’고 응답하는 비율도 대체로 증가하는 반면 ‘반갑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 18> 친척과의 해후할 때 느끼는 감정

(단위 : %)

구 분	매우 반갑다	반갑다	그저 그렇다	반갑지 않다	합 계	통 계 치
1년미만	75.0	.0	.0	25.0	100.0	
1~2년	47.8	43.5	8.7	.0	100.0	p<.05
3~4년	47.3	37.5	13.0	2.2	100.0	df=15
5~7년	43.9	40.3	13.1	2.7	100.0	X ² =
7~9년	51.4	29.0	14.0	5.6	100.0	25.012
9년이상	51.9	20.4	22.2	5.6	100.0	
전체	46.8	36.2	13.7	3.3	100.0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컴퓨터의 사용이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였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지역사회’란 지리적 영역은 물론 지리적 영역을 초월한 집합적 의식의 총체, 즉 공동체로 보고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세 개의 범주 (현실 공간, 가상 공간,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으로 연결된 의식)속에서 연구하였다. 이 장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실공간에서의 행동양식

1.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는 성별, 학년, 그리고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학년이 높아질수록,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지역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2. 자신의 거주지역에 대해 알고 싶은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배경변인은 없었다. 전체 응답자의 60.7%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알

고 싶지 않다' 고 응답한 반면 '알고 싶다' 고 응답한 청소년은 39.3%였다.

3. 자신의 거주지역 행사에 참여한 정도는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4. 동네에서 만나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수는 평균 6.6명이었으며, 인터넷 이용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인터넷 이용기간이 오래될수록 동네친구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5. 학교에서 만나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수는 평균 14.95명으로 동네에서 사귀는 친구의 수에 두 배에 달하고 있었다. 학교친구의 수도 동네친구의 수와 같이 인터넷 이용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인터넷 이용기간이 오래될수록 학교친구의 수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6. 지역사회에 가지는 연대감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 활동 자율참여의사를 묻는 첫 번째 질문(홍수피해 복구 작업 참여의사)에 대한 응답은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남자 청소년(59.0%)이 여자 청소년(55.0%)들에 비해 '참여 하겠다' 는 비율이 높았으나 '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는 응답은 남자 청소년의 비율(7.4%)이 여자 청소년(4.6%)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7. 지역 활동 자율참여의사를 묻는 두 번째 질문(동사무소에서 원하는 동네 청소 작업)에 대한 응답은 성별과 인터넷 이용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여자 청소년(39.2%)들은 남자 청소년(31.5%)에 비해 '기분 좋게 참가 한다' 는 응답을 한 비율이 높았고, 남자 청소년(27.2%)들은 여자청소년(24.0%)에 비해 '이웃 사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싫더라도 참가 한다' 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 인터넷 이용기간이 1년 미만(11.1%)인 청소년들의 경우 '기분 좋게

참가 한다' 는 비율이 가장 낮았고, 인터넷 이용기간이 1년에서 9년 미만인 청소년들의 경우 인터넷 이용기간이 오래될수록 '기분 좋게 참가 한다' 는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기간이 9년을 넘는 청소년들의 경우 '기분 좋게 참가 한다' 는 비율(36.5%)은 다시 증가하고 있었다.

8. 지역 활동 자율참여의사를 묻는 세 번째 질문(학교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동네 청소 작업)에 대한 응답 또한 지역 활동 자율참여의사를 묻는 두 번째 질문과 유사한 결과(성별과 인터넷 이용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남자 청소년(20.4%)들은 여자 청소년(19.3%)들에 비해 '기분 좋게 참가 한다' 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여자 청소년(45.5%)들의 경우 '선생님 말씀이기 때문에 싫더라도 참가 한다' 는 비율이 남자 청소년(36.7%) 보다 높았다. 인터넷 이용기간이 1년 미만(0%)인 청소년들의 경우 '참여 하겠다' 는 응답은 없었고, 인터넷 이용기간이 1년에서 7년 미만인 청소년들의 경우 인터넷 이용기간이 오래될수록 '기분 좋게 참가 한다' 는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기간이 7년 이상인 청소년집단들에서는 '참여 하겠다' 는 비율은 다시 증가하는 경향(18.3%, 19.0%)을 보이고 있었다.
9. 지역사회에 가지는 연대감을 알아보기 위해 다른 지역과의 운동시합을 응원하러 갈 것인지를 질문한 결과 '경기장에 가서 우리 동네 대표 선수들을 응원할 것이다' 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의 24.4%였고, '마음으로만 응원할 것이다' 34.7%, '별 관심 없을 것 같다' 41%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없었다.
10.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다른 학교와 운동시합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경기장으로 가서 우리 학교 대표선수들을 응원할 것이다' 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46%, '마음으로만 응원할 것이다' 33.7%, '별 관심 없을 것 같다' 20.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없었다.

(2) 가상공간에서의 행동양식

1. 청소년들이 가입한 인터넷 동호회의 수는 평균 수치는 11.42 개였다. 가입한 인터넷 동호회의 수는 인터넷 이용기간과,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인터넷 이용기간이 오래될수록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한 수는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한 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2.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터넷 동호회의 수는 평균 3.33개로 나타나고 있었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터넷 동호회의 수는 인터넷 이용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인터넷 이용기간이 오래될수록 활발하게 참여하여 활동하는 동호회의 수는 증가하고 있었다.
3. 인터넷 동호회의 오프라인모임에 참여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적극 참여 한다’ 고 응답한 청소년의 수는 전체의 5.3%, ‘보통정도로 참여 한다’ 는 16.2%, ‘별로 참여 하지 않는다’ 는 24.9%, ‘참여 하지 않는다’ 는 53.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배경변인은 없었다.
4. 온라인에서 만나 온라인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수는 평균 9.14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온라인 친구의 수는 학년과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청소년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온라인 친구의 수는 줄어들고 있었다. 대체로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아질수록 온라인 친구의 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나 일주일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이 10시간에서 18시간사이의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성향이 나타나고 있질 않았다.
5. 온라인에서 만나 오프라인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수는 평균 4.69명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배경변인은 없

었다.

6. 동호회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 중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 인지를 질문한 결과는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한 청소년(67.8%)이 남자 청소년(54.2%)보다 많았던 반면, 남자 청소년들은 ‘끈끈한 동료의식’이라 응답한 비율(28.3%)이 여자 청소년(4.2%)보다 높았다.
7.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을 통해 공지된 자율적 봉사활동에 대한 참여하는 정도는 인터넷 이용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인터넷 이용경력이 1년 미만인 청소년 집단에서 ‘참가하겠다’는 청소년은 한명도 없었다. 반면 ‘참가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인터넷을 이용한지 1년에서 2년 사이의 청소년집단(20.7%)이었다.
8. 가상공간에서의 연대감을 현실공간의 연대감과 비교하기 위한 첫 번째 질문(자신이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에 소속된 회원들과 동네에서 만나 알게 된 사람들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누구에게서 더욱 끈끈한 정을 느끼게 됩니까?)에 대한 응답은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대체로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아질수록 동호회 회원에게 정을 느끼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시간이 10~12시간인 청소년집단의 경우 인터넷 동호회 회원에게서 끈끈한 정을 더 느낀다고 응답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27.6%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인터넷 사용시간이 16~18시간인 청소년 집단에게서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한명도 없었다. 특히 인터넷 사용시간이 16~18시간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집단에서 인터넷 동호회 회원과 동네사람이 동일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9. 가상공간에서의 연대감을 현실공간의 연대감과 비교하기 위한 두 번째 질문(온라인에서 만나 알게 된 사람과 동네에서 알게 된 사람을 만날 경우 누가 더 반갑게 느껴집니까?)에 대한 응답은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자신의 거주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14년 이상 된 청소년의 경우 ‘동네사람을 동네에서 만날 때 더 반갑다’고 응답한 비율(62.9%)이 가장 높았던 반면, 거주기간이 11년에서 14년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온라인에서 만날 때 더 반갑다’고 응답한 비율(25.4%)이 높았다.

(3) 기능적 공동체 의식

1. 기능적 공동체와의 상호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명절에 고향에 다녀오는지를 질문한 결과 청소년들의 응답은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명절에 고향을 다녀오는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2. 명절에 고향에 가서 성묘하는 관습에 대한 생각을 질문한 결과 ‘꼭 지킬 것이다’라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응답자 전체의 57.9%를 차지하고 있었고, ‘좋은 관습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별로 지키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응답자 전체의 32.7%, ‘좋은 관습이라 생각하지도 않으며 별로 지키고 싶지도 않다’는 응답을 한 비율은 응답자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배경변인은 없었다.
3. 기능적 공동체에 대한 연대감을 알기 위해 고향에서 평소 자주 만나지 못하던 친척을 만났을 때 느낌을 질문하였다. 청소년들의 응답은 인터넷 이용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인터넷 이용기간이 1년 미만인 청소년들은 ‘매우 반갑다’고 응답한 비율(75.0%)이 가장 높았던 반면, ‘반갑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25.0%)도 가장 높았다. 그러나 대체로 인터넷 이용기간이 오래될수록 ‘매

우 반갑다' 고 응답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반면 '반갑지 않다' 고 응답한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의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시간의 수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한 기간이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 그리고 행동양식등과 많은 상호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에게 다양한 토론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 인터넷 이용기간이 오래될수록 현실공간에서 동네친구와 학교친구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 등은 이미 기존의 학자들에 의해 주장된 정보사회에서의 '관계 확장' 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로 제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의 저변에는 반드시 주지되어야 할 중요한 전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가상공간이란 현실공간과 동떨어진 공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점이다. 가상공간이란 인간이 모여 만든 또 다른 현실공간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 속에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질 때만이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이 비로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편의에 의해 지역사회의 연구범위를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나, 본 연구의 결과들이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으로 분리하여 이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화한다. 두개의 공간이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면서 조화하고 진화해 가는지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진행될 지역사회 혹은 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한다면 우선 사이버 공간 내에서 형성된 공동체와 현실 공간에서 형성된 공동체가 가지는 공통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황진구는 그동안 학자들이 주장한 사이버 공동체의 유형을 종합하여 사이버 공간 내에서 형성되고 있는 공동체의 범주화 기준과 그에 따른 유형구분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즉 가상 공동체에 대한 경

계성의 정도에 따라 범주화될 수 있는 열린 공동체와 닫힌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특성의 정도에 따라 범주화될 수 있는 두터운 공동체와 얇은 공동체, 공동체 안에서의 상호관계에 따라 범주화될 수 있는 교회형 공동체, 극장형 공동체, 그리고 카페형 공동체등의 유형구분과 범주화의 기준 등은 현실공간에서 형성된 공동체를 범주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황진구, 2003;19-21).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의 공동체가 가지는 공통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두 공간간의 공통점 찾기라는 지적 유희를 벗어나, 두 공간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역동성 이해를 위한 중요한 기초를 제공 하게 될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의 상호 역동성에 대한 이해는 현실공간에서 형성된 공동체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차이들이 만들어내는 가상공간 활동 형태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예를 들어 현실 공동체들 사이에서 발생한 ‘정보격차’ 라는 사회적 불평등이 가상 공동체의 활동에 있어 어떤 유형의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우리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이 어떻게 상호 관련되어 있는지를 이해함은 물론 사회적 불평등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를 획득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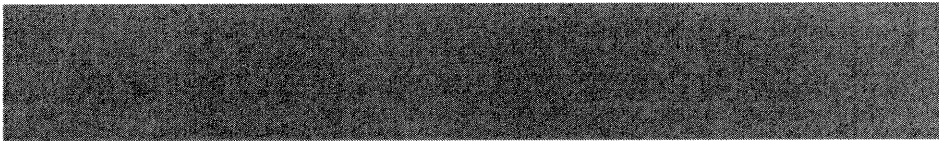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기능적 공동체라는 또 다른 유형의 가상공동체는 보다 세밀한 관찰을 요구하는 연구로 지적될 수 있다. 지역정보화라는 정보통신 정책에 의해 많은 지역들이 지역별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모든 개인들은 원한다면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를 갖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다. 다시 말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기능적 공동체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더욱 공고한 연대감과 빈번한 상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이 과연 기능적 공동체의 확장에 이용되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하다.

특히 기능적 공동체는 인간에게는 사이버 공간과는 또 다른 성격의 가상 공간으로 인간이 인지한 물리적 거리감을 정신적 긴밀함으로 용해시켜 형

성되는 독특한 공동체로 미래사회의 공동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이다. 따라서 기능적 공동체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찰과 연구는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을 통한 사회발전이라는 사회과학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김성국, '21세기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동', 21세기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동,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2,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편, 민음사, 2005
- 김우룡, 커뮤니케이션 기본이론, 나남출판, 1995
- 베리 웰만. 밀레나 굴리어, '공동체로서의 가상공동체:혼자 다니지 않는 통신망 이용자', 마크스미스, 피터콜록 편, 조동기 역, 사이버공간과 공동체, 나남출판, 1999.
- 장원호, '사이버 커뮤니티와 사회관계의 변화', 21세기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동,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2,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편, 민음사, 2005
- 정보통신윤리백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3
- 정지웅, 지역사회 종합연구:세계평화를 지향하며, 교육과학사, 2005
- 피에르 레비, 김동운 조준형 역, 사이버 문화: 네트워크놀지와 문화협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문예출판사, 2000.
- 황진구, 권태희, 청소년의 사이버 커뮤니티 참여 및 이용실태연구, 연구보고 03-R07, 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 전국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제2회 조사결과 보고서), 연구보고 04-R11,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 청소년사이버 커뮤니티 참여 및 이용실태 연구, 연구보고 03-R07, 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제 2차 국제비교조사), 한국인의 여론시리즈 7-2,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1.
- 한국청소년의 의식구조, 한국인의 여론시리즈 5,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4
- Etsioni, Amitai, *New Communitarian Thinking, Persons, virtues, Institutions and Communities*, Charlottesvill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95
- Martin Carnoy, *Sustaining the New Economy: Work, Family, and Community in the Information A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 Rheingold, Howard., *The Virtual Community: Home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Addison-Wesley, 1993



IV. 디지털시대 청소년의 세계 인식

1. 문제제기
2. 정보화, 거버넌스, 정체성
3. 인터넷과 청소년의 세계 인식 변화
: 현황과 평가
4. 맺음말

배 영 자

(건국대학교 교수)

IV. 디지털시대 청소년의 세계 인식

1. 문제제기

세계화와 정보화는 우리시대의 중심 화두이다. 현재 세계화와 정보화의 내용, 의미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화와 정보화는 분석수준에서는 서로 독립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밀접한 관련 속에서 상호 상승작용을 주고받으며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구체적 내용이나 이의 심화로 나타나는 많은 변화들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21세기가 보다 세계화된 그리고 정보화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오늘의 청소년들은 세계화와 정보화가 진행되는 한 가운데에서 성장기를 보내면서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몸과 마음으로 세계화와 정보화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세대이다. 우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화와 정보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변화들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에 관해 사회적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청소년들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라는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매체의 주요 소비자로 등장하면서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새롭게 형성되고 변화하는 청소년 문화에 대한 연구가 소위 청소년 정보문화라는 범주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글은 청소년 정보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주목하면서 특히 디지털 매체 사용의 확산으로 청소년들의 세계 인식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먼저 정보화와 사회변화에 관한 연구들을 개관하면서 디지털시대 청소년의 세계인식 연구의 의미를 정리한다. 청소년 정보문화연구 안에서 이루어져 온 청소년의 세계 인식에 관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을 토대로 청소년의 세계인식의 내용, 변화 여부, 의미 등을 고찰한다. 이후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 바람직한 청소년의 세계 인

식을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

2. 정보화, 거버넌스, 정체성

정보사회의 등장과 함께 정보통신기술이 가져오는 사회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현재 정보통신기술과 사회변화라는 큰 주제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를 정리해 보면, 첫째 거시적인 수준에서 기술과 사회변화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둘러싼 기술결정론과 사회구성론을 둘러싼 논의들을 들 수 있다. 과학기술이 자체 논리에 따라 발전하고 이것이 제반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는 기술결정론(Ellul 1964; Winner 1980 등)의 입장과 특정한 사회적 집단의 이해, 사회관계가 특정한 기술에 대한 수요를 형성하고 이것이 기술발전의 내용, 속도,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사회구성론(Bijker, Hughes, and Pinch 1987 등)간의 논쟁이 기술과 사회관계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반영하며 지속되어 왔다. 최근의 분위기는 사회구성론의 입장이 중심이 되면서 부분적으로 기술결정론의 관심과 주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논쟁이 정리되고 듯하다.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탐구하는 과학사회학(Sociology of Science and Technology SST)이나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은 자연과학적 지식이나 엔지니어링 기술도 중립적인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산물임을 강조하면서 기술의 사회적 형성 및 영향을 본격적인 연구 아젠다로 활성화시키고 있다. 사회구성주의의 이론가들은 이미 만들어져 암흑상자속에 갇힌 과학기술과 사회 대신에 만들어지고 있는 과학기술과 사회가 탐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기술과 사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사회가 과학기술 변화를 규정하는 측면과 과학기술이 사회변화를 유발하는 측면이 동시에 나타나고 이러한 과정에서 과학기술과 사회가 동시에 구성되고 진화하는 모습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Bijker, Hughes, and Pinch 1987).

둘째, 보다 구체적으로 정보화와 거버넌스(governance)와의 관계에 관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거버넌스는 개별 학문 분야의 특성과 관심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동체 운영과 관련된 제도, 메카니즘, 운영양식을 다루는 것으로 기존의 ‘통치(government)’ 나 ‘정부’를 대체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김석준 외 2000).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확산되면서 예컨대 보다 많은 주체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거버넌스 형태가 등장한다거나 혹은 사이버 공간상의 저작권 등 새로운 거버넌스의 대상이 출현하면서 기술과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기술과 거버넌스 문제는 기술의 정치적 의미와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위너(Winner)는 인간이 만든 특정한 기술체계는 특정한 종류의 정치적 관계를 요구하거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Winner 1980). 특정한 기술적 장치나 시스템의 발명, 설계, 배치가 특정한 사회질서를 정착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고 특히 몇몇 기술의 경우 유연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술을 선택하면 특정한 정치적 생활양식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원자력기술의 경우 기술사용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결과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중앙집권적이고 위계적인 지배구조에 의해 통제될 수 밖에 없는 반면 태양력 시스템은 대규모의 중앙집권적인 방식보다는 분산적이고 넓게 분포된 방식으로 개인과 지역공동체가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군의 학자들은 정보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짐은 물론 정치참여가 용이해졌고 권력에 대한 견제 및 감시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정보기술이 민주적인 형태의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보기술의 기술적 특성과 관련하여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기술의 경우 컴퓨터 아키텍처 표준과 인터넷 프로토콜 관련 기술은 느슨한 결합도와 복잡한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하므로 그 자체가 탈집중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는 거버넌스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이들 정보기술을 관리하는 제도 또한 탈집중 네트워크형

으로 요구한다고 주장되기도 하였다 (김상배 2001). 정보기술은 그 기술 자체의 속성에 기반하여 혹은 국가이외 개인, NGO 등 다양한 행위주체를 부상시킴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정보기술은 기존 지배세력이 시민사회를 통제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됨으로써 빅브라더나 파놉티콘의 이미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가능성을 높여 놓았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기도 한다. 아울러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개인, NGO 등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의 기존 권력질서에 대한 도전이 기대한 것보다 효과적이거나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 ICANN (인터넷도메인네임관리기구) 등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실험들은 전통적인 지배세력들의 이해를 넘는 내용들을 담고 있지 못하며 (Drezner 2004) 결국 정보기술은 지배세력들의 이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활용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경우 기술자체가 말그대로 양면적인 속성을 가지므로 거버넌스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되고 있다. 컴퓨터 기술 아키텍처, 인터넷 프로토콜, 흔히 논의되는 컴퓨터와 다양한 통신기술의 융합 등이 수평적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네트워크가 운영되는 저변에는 네트워크 상에서 창출, 확산, 교환되는 정보의 표준을 이끌거나 정보를 모으고 유통시키는 소수 기업, 전문가, 서버 등의 중심이 존재한다. 중심과 확산의 네트워크가 정보기술 거버넌스의 동전의 양면으로 공존하기 때문에 정보기술의 진전과 함께 흔히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강력한 통제와 분산된 권력이라는 형태의 거버넌스가 역설적이게도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배영자 2004). 특정기술이 내재적으로 요구하는 혹은 선택적인 친화성을 가지는 특정한 거버넌스 형태가 있다는 주장은 크게 보면 기술결정론을 인정하는 것이다. 정보기술과 거버넌스 관계를 사회구성론의 입장에서 이해하여 권력의 집중이나 분산이냐는 대립이 정보기술이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에서 결정되며 따라서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술과 거버넌스 관계에서 다양한 사회적 선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술자체를 우연적이고 부수적인 요소로 가볍게 간주하게 될 위험이 있다. 기술이 거버넌스 변화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양자의 관계를 역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석틀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기술과 정체성 및 가치관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디지털 기기들이 사람들의 정체성 및 가치관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 연구들은 특히 디지털기기가 가지는 매체로서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정체성의 변화를 미시적인 수준에서 탐구한다. 일찍이 맥루한은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간의 사고와 행동 유형, 그리고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까지도 바뀐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는 인간 감각기관의 연장이어서 세상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방법에 영향을 준다. 우리의 감각기관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지각한다. 그러므로 한 사회 혹은 한 시대가 지배적 의사소통 수단으로 어떤 미디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대상에 대한 지각이나 인식이 달라지고 시공간념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TV라는 전자 매체는 거의 모든 감각기관의 연장이어서 시각 위주였던 문자시대의 분석적 사고, 개인주의, 합리주의에서 벗어나 총체적인 사고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유도한다. TV는 또한 우리의 감각기관을 즉각적인 주변환경만이 아니라 전 세계, 우주 공간의 구석구석까지 연장시켜 주어 지구차원의 연대의식이 가능한 지구촌 사회를 형성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명제와 ‘지구촌’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맥루한 2002).

정보통신기술의 등장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컴퓨터네트워크를 매개로 새로이 등장한 사이버공간상의 정체성 문제이다. 예컨대 터클은 시공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이버공간에서 동시에 다양한 역할을 경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들은 서로 다른 시간과 조건속에서만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아에 대한 고정적 사고

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다중 자아, 유연한 자아로 변화하게 된다고 주장한다(Turkle, 1995). 많은 연구자들이 정보통신기술은 여타의 기술보다 일상생활과 심리적 영역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자기폐쇄적인 개인들을 양산하게 될 것인지 혹은 보다 참여적인 개인들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정보화로 인한 거시적인 사회변화 및 거버넌스 변화의 방향은 정보사회에서 개인들의 정체성이 어떤 방향으로 형성되느냐와 깊이 관련된다. 결국 사회변화, 거버넌스 변화의 가장 구체적인 메카니즘은 개인 및 집단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본 글의 주제인 청소년의 세계 인식은 정보통신기술이 개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와 관련되는 주제이다. 정보통신기술이 매체로서 가지는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매체의 출현으로 청소년의 세계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청소년들의 디지털 매체 수용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 정보문화라는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청소년의 정보문화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의 정보통신기술 수용 실태와 같은 기본적인 현황이나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자살, 포르노 등 유해사이트 접속 등 새로운 매체의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하는 관심이 주를 이루어 왔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은 정보화를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고 즐기는 전위집단으로, 동시에 정보화의 역기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집단으로 규정된다 (맹영임 2004).

1980년대 중반이후 가속화된 세계화 및 정보화 진행 이후 실제로 청소년들의 의식 안에서 세계가 어떻게 경험되고 세계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청소년의 가치관이나 행동양식 연구에서 매우 미미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특히 청소년들이 인터넷 등 새로운 디지털매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세계를 인식하는 강도나 내용, 관점 등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찾기 어렵다.

21세기 삶의 조건의 많은 부분들이 국경을 넘는 지구 수준에서 형성되

고 결정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세계와 자신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세계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갈 수 있는 세계인으로서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결국 새로운 안목을 가진 세대들을 성공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냐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말그대로 시공을 넘어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자체인 사이버 공간이 청소년들 스스로 자기와 세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화두를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 속에서 청소년들이 당당히 보다 평화적이고 발전된 세계를 만들기 위한 의지와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매체가 청소년의 정체성이나 가치관, 특히 세계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한 초보적인 작업으로 청소년 가치관이나 정보문화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 나타나 있는 청소년의 세계인식을 고찰하여 정리한다. 그리고 우리시대 청소년들로 하여금 보다 바람직한 세계 인식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노력이 요구되는지 생각해 본다.

3. 인터넷과 청소년의 세계 인식 변화: 현황과 평가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권하에서 세계화가 국정목표로 선택된 이래 세계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들이 세계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수용하고 있는지, 청소년들로 하여금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과 같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청소년들이 세계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기반하고 있는 김경준의 연구(1996)는 우리 청소년들의 세계 인식을 부분적으로 드러내 보여 준다. 청소년의 세계 인식은 많은 경우 외국 혹은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청소년들의 외국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가운데 실제로 외국여행자 가운데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여 왔다. 청소년들은 여행(58.2%), 친지방문(32.9%), 국제캠프(8.5%), 어학연수

(8.5%)의 형태로 외국을 경험하고 있으며 여행, 유학, 어학연수, 국제캠프, 국제봉사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 방문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된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상당정도 편견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청소년들은 흑인이나 일본인들을 백인이나 다른 아시아인에 비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실제 환경보존, 지구평화, 기아 및 난민 구호 활동 등에 그다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경험하면서 한국이 세계화되었다고 느끼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세계화를 지구가 하나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세계시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여러 지질 가운데 외국어와 컴퓨터 실력은 낮은 것으로, 학문적 지식, 국제예절, 합리적 사고 수준은 보통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세계화의 진행과 더불어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과거에 비해 외국을 직접 및 간접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증대하면서 외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고 올림픽 등의 국제행사를 영토 안에서 경험하면서 세계 속의 한국을 생각하게 되는 기회도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 자체만으로 청소년의 세계 인식이 강화되었다고 낙관하고 만족하기는 어렵다. 외국과 외국인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서 출발한 밖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 나의 운명이나 안의 세계와 어떻게 관련되고 밖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발전되고 밖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 이국적인 것에 대한 피상적 관심을 넘어 진지한 탐색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여행, 국제캠프 참여 등은 압도적으로 희망했지만 평화, 기아 및 난민 구호 등 국제봉사활동 참여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아울러 외국어 능력 향상 노력 등 세계시민의 기본적 자질을 갖추기 위한 준비에도 다소 소홀한 인상을 주고 있다.

문제는 정보통신기술, 특히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인 이러한

청소년의 세계 인식 형성 및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률이 매우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층인 12-19세 연령층의 97.8 %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으며 시간별 인터넷 접속률이 세계 최고로 나타나고 있다(이하 황진구 외 2002). 인터넷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매체인 TV와 책의 이용, TV시청 및 독서시간이 감소하고 있어 인터넷이 기존의 매체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에게 있어 인터넷은 명실상부하게 가장 중요한 매체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청소년들은 인터넷상에서 주로 포탈, 게임, 채팅, 음악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고 있다. 이들에게 사이버공간은 새로운 자아를 체험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압도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연장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청소년들 스스로는 정보화로 인해 무엇이 바뀌는가에 대해 능력이 증시되는 사회 출현, 여가생활의 증가,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 이라는 항목보다 국제교류가 증가할 것이라는 항목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맹영임 2004). 정보화로 국제교류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할 만큼 정보화를 세계화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청소년들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매체로 자리 잡으면서 청소년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나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이 요구된다.

현재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서 몇 가지 가설을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본다. 인터넷과 청소년의 세계인식 변화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세 가지 대답이 가능하다. 인터넷이 청소년의 세계 인식을 강화시킨다, 약화시킨다, 바꾸지 못한다. 첫 번째 가설은 세계인식을 변화시키는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버전으로 기술될 수 있다. 인터넷의 확산으로 청소년들이 밖의 세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외국을 경험할 기회가 증가하므로 세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다.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기회가 넓어져 보다

균형 잡힌 세계 인식을 지향하게 된다. 밖의 세계에 대한 지식과 관심의 증대는 실제 국제교류협력에 직접 참여하는 등 오프라인상의 실천으로 이 끌어진다. 세계에 대한 지식과 관심의 증대 및 직접적인 교류에의 참여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세계 속의 나를 재발견하게 하며 보다 진취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체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세계와 자아가 상호작용하면서 나의 문제가 세계의 문제이고 세계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된다.

두 번째 가설은 인터넷이 청소년의 세계 인식에 미치는 부정적 역할에 관한 것으로 역시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인터넷은 게임, 채팅 등 또래집단 간의 폐쇄적 문화에 몰입하게 함으로써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세계에 대한 관심이 감소한다. 둘째는 인터넷이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나 이의 유통과정이 거대 상업자본이나 미국에 의해 지배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비서구 세계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서구 중심의 왜곡된 세계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세 번째 가설은 인터넷이 청소년에게 TV나 책을 대체하는 새로운 매체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청소년들은 게임이나 포탈 등을 통한 오락적 콘텐츠를 주로 이용하거나, 혹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거나 확장하기 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연장하는 측면으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세계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덧붙여 인터넷이 기존의 매체와 비교해서 밖의 세계를 담는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이 중립적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세계 인식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포함될 수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져 온 정보화와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폭력과 자살, 포르노 등 유해성 콘텐츠의 영향, 해킹, 프라이버시 침해, 언어과괴 현상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들 주제들은 청소년 자살, 게임중독, 성폭력사건 등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들로 드러나 사회적 관심을 끌어 왔고 시급히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현상들이다. 반면

청소년의 세계 인식은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변화이고 그 결과도 상대적으로 덜 가시적이기 때문에 정보화와 청소년이라는 큰 연구주제에서 주목받지 못했다. 이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인터넷이 청소년의 세계 인식에 주목할 만한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청소년의 세계 시민자질에 관한 연구(김선미 2003)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나 있는 청소년의 세계 인식은 김경준(1996)의 연구와 비교해 정보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 청소년의 세계 인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게 한다. 두 연구는 조사 대상과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다르지만 양자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비교해보면 양 시점 간에 청소년의 세계인식에서 진행된 작은 변화들을 발견할 수 있다. 김선미의 연구는 세계시민의식의 구성요소로 세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고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간주하는 지구적 세계관, 인권과 타 국가 및 민족의 다양성 존중, 배려와 평화적 갈등 해결을 언급하면서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세계시민으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는 구체적으로 외국문화,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지식, 평화존중이나 공동의 문제해결, 다문화 존중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수용 정도, 세계 공동문제에 대한 관심정도, 참여도, 연대감, 협력 태도, 타문화권 사람들과의 교류 능력, 정보 수집력, 표현 능력, 문제해결 능력 기술을 평가하였다.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 청소년들은 인류애, 평화존중, 다문화존중 등의 보편적 가치수용과 세계인들과의 연대 및 협력 태도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당면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나 정보수집 및 활용 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즉 청소년들은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한다든지, 국제사회이슈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한다든지, 국제환경문제 등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협력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점에서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주요한 이슈를 분석하는 능력, 세계 공동의 문제해결방안을 다각

적으로 인식하는 능력, 구체적인 국제기구활동 등에 대한 관심, 세계문제를 다루는 시민활동에 참여할 자세 등은 상대적으로 덜 갖추고 있다고 드러났다. 아울러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외국인과 네트워킹하고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도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1996년의 조사에서와 같이 청소년들은 여전히 세계에 대한 피상적인 관심과 지식만을 가지고 있고 세계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준비와 의지가 부족한 상태이다. 하지만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 평화와 연대와 협력을 지향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이고 청소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가치관들을 형성하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치관이 아직 밖의 세계문제를 실제로 당면하여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수준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여 사실상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깊이 내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우리 청소년들은 다분히 이상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관념하는데 머물러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세계에 대한 관심이 세계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이슈가 되는 평화, 빈곤, 인권 문제 등에 관한 관심, 실제적인 지식, 그리고 참여 의지로까지 이어질 만큼 진지하거나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인터넷이 청소년의 세계인식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 오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인터넷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시공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인터넷상에서 정보나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비용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대안미디어 뉴미디어로서 역할을 해 온 사실을 감안할 때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활용되기 시작된 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상태에서 청소년의 세계 인식에 주목할 만한 변화, 혹은 변화의 잠재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 양 연구가 비교가 가능할 만큼 유사한 질문 문항을 구성해서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비교가 근본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반박이 가능하다. 그러나 반드시 양 연구에 근거한 비교가 아니어도 청소년의 세계인식이 지난 십 여 년 간 크게 변했다고 주장할 만큼 두드러지는 차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인터넷에 청소년의 세계 인식 형성 및 발전과 관련된 우수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또 콘텐츠의 부족이 아니라 인터넷을 활용하는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오락이나 채팅 이외의 사이트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세계 인식이 심화될 기회가 많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영어 등 외국어로 제공되는 콘텐츠를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언급될 수 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입시에 억눌려 세계에 대한 진지하고 본격적인 관심을 발전시킬 심리적 여유가 없다는 주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은 붉은 악마나 촛불시위 등에서 폭발적으로 드러난 바와 같이 국가나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매우 성숙하게 자신들의 견해를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확산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따라서 친숙한 매체인 인터넷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세계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발전시키게 되어 정보화와 청소년의 세계 인식에 관한 첫 번째 가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4. 맺음말

청소년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세계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관심은 세계화의 진행과 함께 증대되어 왔다. 아울러 정보화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정보문화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양자가 서로 분리되어 진행되면서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이 청소년의 세계인식 변화에 미치는 잠재력은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화, 인터넷, 사이버공간과 청소년에 관한 연구의 범위가 사이버공간 상의 윤리 확립,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방지, 청소년에 의한 사이버문화 형성

등 제한된 아젠다를 넘어 보다 확장되어야 한다. 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매체의 영향력을 보다 넓은 맥락에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터넷이 청소년의 세계인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바뀌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이다.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기존 연구에 토대하여 살펴본 현재 우리 청소년의 세계 인식은, 밖의 세계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꾸준히 증대하여 왔고 여행, 연수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직접 세계를 체험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류공동체 의식, 평화와 협력, 문화다양성 등 세계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가치관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이국적인 것에 대한 동경, 막연하고 피상적인 수준을 넘어 밖의 세계와 세계 문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발전시켜 왔는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들이 세계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 지식, 분석능력,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실제로 세계문제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은 물론 의사소통의 기본이 되는 외국어 구사력, 토론능력도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실제 구체적으로 평화, 인권, 난민 문제 등에 대한 참여 의지도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세계와 나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관련시켜 보는 전체적 시각이 충분히 청소년들에게 내재화되지 못한 채 그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좁은 범주의 일들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지식의 양이 인류가 유사 이래 디지털 혁명이전까지 축적해온 지식의 양보다 훨씬 많다고 할 만큼 인터넷 상에서 엄청난 양의 정보와 지식이 제공되고 있다. 방대한 정보와 손쉬운 검색 방법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관한 값진 정보나 지식들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우리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밖의 세계에 대한 간접경험을 넓히고 자신의 세계 인식을 심화시키려는데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아 온 것일까.

인터넷을 위시한 디지털 매체는 우리가 기존의 매체를 통해 해왔던 일을

새로운 방식으로 더 잘 하게 해주는 측면과 기존의 매체를 통해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측면이 있다. 이메일, 채팅 등을 통해 친구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전자의 예라면 사이버 공간 상에서 익명으로 교류하며 남을 공격하고 현실세계에서와 다른 나로 행세해 보고 현실공간에 억압되어 있거나 금기시 되어 있는 욕구를 채우는 것이 후자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북한과 같이 밖의 세계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어 있고 밖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매우 제한된 폐쇄적인 사회에서 인터넷이 허용된다면 아마도 밖의 세계를 알고자하는 욕구가 인터넷을 통해 폭발적으로 분출되면서 북한 사람들의 세계 인식은 단시간에 변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은 인터넷이 아니어도 세계를 알 수 있는 책, TV, 여행 등 많은 통로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인터넷이 청소년의 세계 인식을 갑자기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매체를 통해 접하는 세계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담겨진 세계 역시 인터넷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의 욕신이 이의 한계를 넘어 비교적 쉽고 손쉽게 세계를 경험하고 알 수 있는 수단이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은 그들이 완성해서 보여주는 세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소극적인 세계 인식을 넘어 보다 주체적으로 자신이 알기 원하는 세계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지식을 심화시켜 나가는 적극적인 세계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다. 인터넷이 보다 적극적인 세계 인식의 도구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게 하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능력의 증대와 동기부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다. 청소년들이 현재의 능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계에 대한 유용한 정보나 지식을 담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오프라인에서 청소년들이 세계문제나 세계와 나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입시라는 중압감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서부터, 오프라인에서 청소년들이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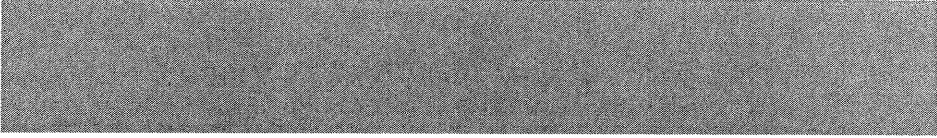
방법, 예컨대 국제교류 기회의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들의 세계 인식이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다르게 해석하면 지난 10년에 걸쳐 외쳐온 세계화 구호가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지 못한 채 겉돌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아울러 기성세대들이 우리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고민하고 참여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청소년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세계 인식을 할 수 있게 하는 일은 우리 사회전체의 세계 인식의 수준을 높이는 것과 직결되는 장기적이고 중요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 김경준 외 (1996). 청소년 세계화의식 실태 조사.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상배 (2001). “정보화시대의 거버넌스: 탈집중 관리양식과 국가의 재조정.” 한국정치학회보 35집 4호.
- 김석준 외 (2000). 뉴 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 김선미 남경희 (2003).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현미 (2002). “한국의 N세대와 인터넷 문화.” 사회발전연구.
- 맥루한, 마샬 지음. 김성기, 이한우 옮김 (2002). 미디어의 이해. 민음사
- 맹영임 외 (2004). 청소년 정보문화 수용실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성희 박정선 (1993). 청소년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 배영자 (2004). “과학기술의 국제정치: 글로벌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8집 3호.
- 윤철경 외 (2004).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 하영선 엮음 (2004). 21세기 한반도 백년대계. 풀빛
- 황상민 (2001). “사이버공간의 자아, 그리고 사이버 정체성의 발달.” 계간사상 38.
- 황진구 외 (2002). 청소년 정보화 실태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21세기 평화포럼 (2005). 매력국가 만들기. 동아일보 부설 21세기 평화화연구소.
- Bijker, Hughes, and Pinch (1987). eds. *The 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ical Systems: New Directions in the Sociology and History of Technology*. MIT Press.
- Castells, Manuel (1997). *The Power of Identity*. Blackwell.
- Deibert, Ronald (1997). *Parchment, Printing, and Hypermedia: Communication in World Order Transform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Drezner, D. (Fall 2004). "The Global Governance of the Internet: Bringing the State Back I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9.
- Ellul, Jacques (1964). *The Technological Society*. Vintage Books. 박광덕 역. 기술의 역사. 한울.
- Foster, Derek (1997). "Community and Identity in the Electronic Village. "

- D. Poerter, ed. *Internet Culture*. Routledge.
- Turkle, Sherry (1995). *Life on the Screen: Identity in the Age of the Internet*. Simon & Schuster.
- Winner, Langdon (1980). "Do Artifacts Have Politics." *Daedalus* 109. 송성수 역. "기술은 정치를 가지는가." 우리에게 기술이란 무엇인가. 녹두.
- Youngja Bae (Fall/Winter 2003). "How Information Technology has been transforming International Rela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V. 디지털 시대와 청소년의 가치관

1. 서론
2. 정보화와 정치
3. 인터넷 정치 토론과 속의 민주주의
4. 디지털 시대의 정치의식: 다양성과 관용
5. 결론

강 원 택
(숭실대학교 교수)

요 약 문

정보화의 발전이 정치적 참여의 확대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민주주의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다. 인터넷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실시간 교류, 또한 시공간상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특성이 직접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나 토론은 반드시 이와 같은 희망적인 기대감만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의 도래와 그로 인한 정치적 참여와 논의 구조의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인터넷이 우리 정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이미 대단히 크지만 인터넷이 정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그동안 자발적인 참여가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정치적 집단 형성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고 적지 않은 변화도 이끌어 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토론이나 여론형성과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즉 ‘참여’는 늘어났지만 정치 참여와 정치적 토론의 ‘질적 관리’의 문제가 제기되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속의 민주주의의 도래를 기대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지금이야말로 심의, 속의 (deliberation)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들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단기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민주시민 교육과 같은 전한 의식을 갖는 시민 교육의 문제가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청소년들이 올바른 정치적 토론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에 힘쓰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V. 디지털 시대와 청소년의 가치관

1. 서론

오늘날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변화의 속도’와 관련된 것이다. 과거 어느 때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속도의 변화가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신 분야에 급격한 기술의 진보와 전 세계적인 전자네트워크의 발전과 함께 시간과 거리의 장애가 극복된 만큼 소통과 교류의 속도는 크게 증대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회는 ‘거리의 소멸’(Cairncross, 1999)과 함께 더욱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정보화의 발전이 정치적 참여의 확대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민주주의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다. 아마도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전망은 인터넷의 발달이 시간, 공간의 제약을 뛰어 넘어 모든 시민이 정치적 이슈에 대한 토론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인터넷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실시간 교류, 또한 시공간상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특성이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나 토론은 반드시 이와 같은 희망적인 기대감만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문제가 거듭해서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것도 토론의 질과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의 도래와 그로 인한 정치적 참여와 논의 구조의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정보화와 정치¹⁾

인터넷의 사용이 보편화된 이후 사회 활동의 여러 면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겨났다. 이러한 변화는 이메일이나 메신저와 같은 개인간 커뮤니케이션, 혹은 인터넷 쇼핑과 같은 일상적인 생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임혁백 (2001: 16)은 정보통신혁명이 근대 산업문명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정치 지배구조, 국가운영체계, 경제, 사회체계 전반을 재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즉 인터넷이 기본적으로 보다 발전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터넷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적인 정보와 의사의 유통, 즉 정치적인 의사를 교환하거나 의사를 결집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기존의 정치과정의 양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2년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과 그 효과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매체이지만 정치 과정에서 인터넷이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은 사실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전망은 인터넷의 발달이 시간, 공간의 제약을 뛰어 넘어 모든 시민이 정치적 이슈에 대한 토론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인터넷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실시간 교류, 또한 시공간상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특성이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보다 현실적인 기대는 아마도 인터넷을 통한 ‘손쉬운’ 참여방식이 정치 참여가 하락하는 추세에서 참여를 제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간의 상호교류가 생기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현우 2002: 310)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의 목적 실현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의 보편적 활용은 과거 ‘전

1) 이 장에서의 논의는 강원택 (2003: 385-399) 참조.

통적인 방식으로' 정치 과정이 행해지던 것과는 상이한 형태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이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에 기초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정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과 매우 흡사한 정치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과정의 구체적인 특성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여론 형성과 의제 설정 기능

인터넷의 가장 강력한 기능은 누구나 접속할 수 있다는 개방성과 정보유통의 신속성일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상에 올려진 정보는 공간이나 시간적 제약 없이 누구나 접속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인터넷의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인터넷은 여론 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여론 형성과 거기서 비롯되는 정치과정상의 특성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우선 과거에는 정당이나 언론, 이익집단 등을 통해 조직화된 여론을 형성하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쳐 온 정치과정상의 흐름이 인터넷의 등장 이후에는 이러한 채널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정치적, 사회적 사건에 대해서 정치과정상의 중간 매개 집단에 의해 해석하고 평가된 정보를 일반 시민들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에 비해서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사건에 대해 해석되지 않은 원래의 정보나 혹은 다양한 평가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과거 정당, 언론, 이익집단 등이 여론의 형성, 전달 과정에서 누렸던 게이트키퍼(gatekeeping)이나 의제 형성 (agenda setting)의 권한이 인터넷의 등장 이후에는 불가피하게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과거 이들 중간 매개 집단이 지니고 있던 권한과 기능이 사실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개방된 셈이다.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흥미로운 일이 생기면 누구나 인터넷에

올릴 수 있고 그 사건은 접속한 다른 이용자들이 글을 ‘퍼서’ 다른 사이트로 옮기면서 삽시간에 확산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종종 기존의 제도권 언론 매체가 이러한 인터넷상의 정보를 ‘받아서’ 보도하게 되었다. 과거와 같이 정보 흐름과 해석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에 있었던 기존 제도권 언론을 대신하여 인터넷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이제는 주요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논의 자체에 정치권이나 기존의 제도권 언론이 주목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상에 토론방, 대화방이 활성화되어 있어 주요한 사회적 사건에 대해서 네티즌들간의 토론이나 의견 교환이 일반화되었고, 일간지의 경우에도 인터넷판의 경우 각종 기사 및 사설이나 칼럼에 대해 독자들이 ‘리플’을 달 수 있도록 하여 과거 여론 형성에 있어서 일방적이던 방식에서 벗어나 쌍방향의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인터넷의 이러한 기능은 우선 정치적 관심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무엇보다 정치 참여의 비용이 크게 낮아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인터넷상의 토론 과정이 (특히 젊은 네티즌들의 경우) 정치 사회화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사회관계 (혹은 공동체)의 특성에 대해서 강정인 등 (2002: 110)은 인터넷 사용과 인터넷을 통한 동호회 활동이 네티즌의 의식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바로 인터넷을 통한 정치 사회화의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터넷상에서의 정치적 토론을 통해 특정 사건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각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2002년 여중생 사망 사건 이후 젊은층에서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겨난 데에는 이러한 인터넷상의 토론이나 여론 형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2) 집단 형성 기능

다원주의 집단이론에 따르면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곳에 집단이 형성된다(예컨대 Bentley 1908). 그러나 인터넷상에서의 집단 형성은 구체적인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유사한 관심사와 흥미만 있어도 생겨날 수 있다. 각종 포탈 사이트에는 수많은 인터넷 공동체, 인터넷 동호회가 존재한다. 집단 가입 및 집단 활동의 비용이나 부담이 오프라인에 비해 매우 적다는 것이 인터넷상의 활발한 집단 형성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인터넷상의 대부분의 집단은 동호회나 친목단체 등 비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단으로의 변신이 가능하다. 예컨대 같은 학교 출신 의사들의 친목단체를 인터넷상에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의약분업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제기된다면 인터넷상의 이러한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견해를 함께 하는 이들의 집단 형성도 이뤄지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경우가 바로 ‘노사모’ 일 것이다. 노사모는 원래 노무현이라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인터넷상의 팬클럽이었지만 노무현이 새천년민주당 국민참여경선에 참여하면서 매우 강력한 지지집단으로 변모하였고 이후 본 선거과정에서도 노무현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정치적 집단으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집단 형성은 단순한 친목도모와 같은 비정치적 집단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사건이 자신들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침해하거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정치과정에 이익집단으로 변모하여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인터넷상의 활발한 집단 형성에 대해서 가상공동체가 참여자들의 유대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사회자본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참여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라는(Putnam 2002; 강정인 외 2002: 114-5)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노사모의 경우에는 과거 우리 선거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자발적인 정치적 지지자들의 집단이라는 점에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인터넷은 가상공동체의 형성 이외에도 이미 만들어진 오프라인상의 공동체 집단의 결속력과 공동의 이익에 대한 의식, 즉 이익집약을 강화시켜주는 기능도 하고 있다. 정치 교육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이익 표출 기능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요구를 행하는 이익표출 기능은 과거에는 주로 이익집단과 같이 오프라인상에서 조직화된 집단에 의해 이뤄져 왔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 이익집단을 통한 로비나 시위 등이 특정한 이해관계를 표출하기 위한 ‘전통적’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인터넷을 통한 이익표출의 방식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이익표출 방식의 대표적인 예로 특정 제품이나 회사, 혹은 특정인에 대한 소위 안티(anti) 사이트를 통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활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안티 사이트의 활동은 대체로 정치적인 요구이기보다는 소비자 운동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치적 영향력과 효과를 얻고자 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티 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이익 표출의 활동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조선일보에 반대하는 안티조선 사이트는 매우 정치적인 이익표출의 형태이다.

이와 함께 전통적으로 이익표출의 기능을 담당해 온 (시민단체를 포함한) 각종 이익집단이 인터넷을 통해 활동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특히 공공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운동의 경우 자신들이 추구하는 명분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일반 대중의 지지 동원을 위해 인터넷의 활용이 일반화되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나 ‘국감시민연대’와 같이 활동 자체를 온라인을 중심

으로 행하는 곳도 생겨났고, 사이버 연대를 구축하거나 오프라인상에서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등 시민운동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 (윤성이 2001).

4) 동원 혹은 집단행동 기능

정치과정에서 조직된 여론이 기존 채널을 통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위와 같은 집단행동을 통해 그 의사를 관철하고자 하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정치 활동은 가상 공동체에 기초하여 있다는 점에서 동원의 기능이 오프라인상의 정치과정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도 집단행동을 통한 의사 관철의 방식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특정 사이트에 대한 집중적 접속을 통해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일시적으로 작동 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것과 같이 ‘과격 한’ 집단행동의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항의 메일을 집중적으로 보낸다든지 사이버상의 시위를 통해 불만을 표시하거나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온라인상의 집단행동 방식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인터넷상의 집단행동은 이와 같이 특정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정치적 결정이나 정책 사안을 둘러싸고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집단행동의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이다.

5) 선거 운동 기능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유능함과 능력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일 것이다. 후보자의 입장에서 선거운동 과정은 여러 후보자들 가운데 어떤 후보가 가장 나의 정치적인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선거 운동은 이와 같은 ‘정치적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는가 하는 것과 매우 긴밀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선거 운동 방식 중에서 인터넷은 매우 효율적인 선거 운동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인터넷은 유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정보 획득의 비용을 매우 낮춰주며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유권자들에게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자신의 여러 가지 장점을 폭넓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터넷은 단순한 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직접적인 접촉의 창구로도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김용철과 윤성이(2000)는 인터넷이 후보자들에게 매력적인 선거운동 수단으로 등장한 이유를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첫째, 후보자의 경력과 정치적 입장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 제공 및 홍보가 가능한 점, 둘째, 인터넷을 통한 지지자 확보 및 선거자금, 자원봉사자 모집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셋째, TV, 신문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24시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넷째, 홈페이지 방문자의 관심사항에 대한 추적을 통해 유권자의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다섯째, 홈페이지를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 여섯째,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시대 적응 능력 및 미래 지향적 태도를 상징하는 홍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천리안과 하이텔에서 일정 비용을 받고 게시한 것이 선거 운동에서 인터넷이 사용된 첫 사례이다. 이후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에서 자신을 알리는 유용한 수단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일이 보편화되었다. 16대 총선 지역구 출마자 1038명 가운데 50.3 퍼센트인 514명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선거기간 중 실제로 운영되었던 홈페이지는 506개로 49.5 퍼센트의 활동률을 보였다(김용철 윤성이 2000: 3). 2002년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각 후보의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 운동은 매우 활발하게 이뤄졌고, 이제는 선거 운동 과정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지역구 활동에도 홈페이지 관리 등 인터넷의 활용이 본격화되었다(김형준 2001). 이러한 일은 외국에서도 나

타나고 있는 추세로 보이지만 인터넷의 기반시설이 탄탄하고 사용량이 많은 우리나라의 선거에서 보다 큰 중요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6) 집단적 의사 결정 (투표)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가능성이 제기되는 분야가 인터넷 투표일 것이다. 사람들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살 수 있다면 가정에서 투표하지 못할 기술상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Cairncross 1999: 363). 그리고 인터넷 투표를 실현될 수 있다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투표 참여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운즈 (Downs 1957)는 투표 참여와 기권을 설명하면서 투표 참여의 비용이 자기가 선거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얻게 되는 혜택보다 크다면 투표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다운즈의 모델에서 '결정적 투표자 (pivotal voter)'가 될 확률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투표 참여의 비용을 고려한다면 투표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투표는 투표 참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투표하는 것이 슈퍼볼을 시청하는 것만큼 간편' 해지기 때문에 (Cairncross 1999: 363) 투표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2000년 3월 애리조나 주 민주당 대통령 예비선거에서는 86,000 명의 참여자 중 36,000 명 정도가 인터넷을 통한 투표를 실시하였다 (이현우 2001: 381). 또한 영국에서는 2003년 5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17개 선거구에서 인터넷과 전화, 디지털 TV 채널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어느 정도 투표율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투표의 전면 도입은 컴퓨터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나 세대 간 디지털 격차 (digital divide)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현우 (2001)의 연구에 의하면 애리조

나 주 예비선거에서 인터넷 투표자들 가운데 학력변인이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한다.

아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을 통한 투표가 해킹에 대한 완벽한 보호벽을 설치할 수 있는가 하는 기술적 안전의 문제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도입된 전자개표기의 개표를 불신하여 한나라당에서 수개표를 위한 법적 대응까지 한 우리의 경험을 고려할 때 인터넷을 통한 투표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또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본격적인 도입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 현실 정치에서 인터넷 투표가 실제로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인터넷 정치 토론과 속의 민주주의

인터넷을 통한 참여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간접적이고 제한된 형태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공공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 일반 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인터넷의 등장으로 언론이나 정당과 같은 기존 채널링 기구의 게이트키퍼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어젠더의 제기와 형성에 대한 ‘전통적인 기구들’의 배타적인 권한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 누구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를 내세우고 이끌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제 설정의 민주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정보의 확산이 매우 간편하게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제기된 어젠더가 사회적 주목을 받을 수만 있다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급속히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토론과 의견 형성, 확산이 가능해졌고 참여의 제약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참여의 확대가 기존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민주주의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표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속의민주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속의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속의(deliberation)

는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공공문제에 대한 아젠다를 결정하고 여러 가지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하고 이성적인 토론을 거쳐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숙의는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일방적인 발언이 아니며 다양한 관점을 검토하고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는 대화이다”(김용철·윤성이 2005: 285). 바버의 표현에 따르면 숙의는 ‘상호 경청(敬聽)의 기술(mutualistic art of listening)’ (Barber 1984: 175)이다.

이러한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토론이나 논의가 반드시 ‘숙의’의 특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터넷상의 정치 토론의 특성과 문제점을 몇 가지로 나눠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감성적 매체의 특성을 강하게 갖는다. 인터넷은 시각적이고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특성을 가지며,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놀이’의 대상이기도 하다. 수많은 정보가 범람하는 공간에서 그만큼 인터넷은 흥미를 끄는 정보와 자극에 민감하다. 최근 소위 ‘개똥녀’ 혹은 ‘연예인 X 파일’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더라도 ‘눈길을 끄는’ 사건에 대한 반응은 뜨겁다.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도 유사한 형태가 확인된다. 인터넷 공간상에서 주목을 받는 정치적 토론의 주제는 대체로 감성을 자극하는 것들이다. 예컨대 2002년 촛불집회로 이어졌던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이나 최근 독도 문제 역시 모두 감성을 자극하는 민족주의적인 이슈였다. 정치적 토론 역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의 교류, 참여이기보다는 매우 단순하고 감성적이고 ‘걸러지지’ 않은 감정의 배출, 배설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각종 게시판에 올라오는 리플이나 기사 혹은 칼럼에 대한 댓글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특정 사안이나 의견에 대한 반응이 매우 즉각적이고 단순하다. 따라서 인터넷 공간이 상호경청이나 이성적 토론을 통한 합의의 도출이라는 숙의 과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인터넷을 통한 논의와 토론이 기대만큼 개방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개방성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하나는 정보적

차(digital divide)로 인한 문제점이다. 소득, 연령 혹은 학력의 문제로 인해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즐겨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이다. 즉 인터넷 공간상에서 어떤 의견이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터넷 사용자끼리의 의사 수렴일 뿐 모두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인터넷상에서 행하는 여론조사가 이런 특성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격차의 문제가 해결되어 모두가 인터넷을 이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논의와 토론의 개방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토론은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이야기한 이들이 말한 것처럼 보편적이고 개방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터넷상의 토론이나 논의를 살펴보면 여러 개의 대안에 대한 폭넓은 토론과 이견의 수용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재확인하고 강화(reinforce)시키는 기능을 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 숙의민주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상대방의 견해를 ‘경청’ 하기보다는 배제하고 공격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 공간상에 이뤄진 여론은 대체로 ‘끼리끼리’ 모이는 경향이 강하다. 다시 말해 자유로운 찬반 토론이 이뤄지기 보다는 반대자를 배제하거나 반대 여론을 억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사한 생각을 갖는 이들만의 논의 공간으로 변모되는 경향이 있다.

앞에서 말한 정치 집단을 포함한 유사한 생각을 갖는 이들간의 집단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경우로 볼 수도 있으나, ‘의사소통’의 공간 혹은 토론과 여론 형성의 공간으로서 인터넷의 개방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즉 상대방의 다른 견해를 ‘경청’ 하려는 태도 없이 유사한 생각을 갖는 이들만의 토론이므로 상이한 견해를 갖는 집단간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게 된다. 즉 숙의민주주의의 기대와는 달리 합의와 타협을 이뤄내기 보다는 두 개의 상이한 견해가 평행선을 그으며 공존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최근 들어 이념적 대립이 우리 사회에서 분명해지면서 이러한 모습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상의 여론 형성이 분열되고 단편화된 특성도 지니고 있지

만,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인터넷상의 논의 중 ‘입맛에 맞는’ 의견들을 선택적으로 선정하고 이것이 다수의 견해인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대립과 갈등이 생겨날 때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온라인 공간상의 ‘여론’을 이용하면서 “부분의 견해”가 “전체의 견해”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온라인 내에서 형성된 여론은 분열적이고 단편적인 경우에도 그것이 지니는 ‘힘과 파괴력’은 더욱 더 커져가게 되었다.

세 번째 문제는 누가 인터넷 여론을 이끌어 가는가의 문제이다.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인터넷상에 글을 남길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의견을 남기는 이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한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 토론에 자주 참여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2.7%, 가끔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47.2%이고 50.1%는 전혀 안한다고 응답했다(강원택 2003: 401). 이처럼 인터넷 공간상의 토론이, 참여민주주의나 속의민주주의에서 이론적으로 가정한 것처럼, 모두가 참여하지 않고 다수가 ‘관망자’나 소극적인 참여자로 남아 있는 경우 결국 인터넷 공간상의 여론형성은 ‘인터넷 여론주도층’이나 적극적인 행동가(activists)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이 어떤 정치현상에 대해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 것이 정치적 토론의 첫 출발점이 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적극적인 행동가들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이념적으로나 정치적 태도에서 강한 견해를 갖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념적 스펙트럼상에서 본다면 이들의 견해는 양쪽의 극단에 가까운 입장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을 막론하고 당내 행사나 여론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열성 당원이나 party activists는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나 심지어 같은 정당 내의 일반 당원들에 비해서도 이념적으로 강한 입장이나 상대적으로 극단적인 성향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유럽 정당의 당내 경선이나 미국의 예비선거에서 후보자가 취해야 할 이념적, 정책적 최적 지점과 본 선거에서의 이념적, 정책적 최적 지점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이 주도하는 인터넷 공간상의 여론 형성은 대단히 대립적이고 타협하기 어려운 형태로 나아가기 쉽다. 즉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정치적 토론이 종종 사회적 격론으로 이어지거나 분열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은 이처럼 극단적인 견해를 대표하는 적극적인 행동가들의 의견이 모두의 견해를 대표하는 지배적인 의견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activists들이 인터넷 여론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인터넷이 갖는 감성적 매체로서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타협적이거나 중도적이고 온건한 의견은 너무 ‘밋밋해서’ 큰 주목을 받기 어렵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끼리끼리’ 모이는 인터넷 논의의 특성상 분명하고 강한 메시지, 보다 원칙적이고 타협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호응이 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따라서 인터넷 공간상의 정치 토론은 합의 도출보다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효과도 만들어 내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인터넷 당원이나 한나라당의 박사모에서 알 수 있듯이, 소수이지만 문제를 제기하고 이끌어 나가는 열렬 참여자들이 인터넷상에서 형성되는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극단에 가까운 강한’ 견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정치권과 언론의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재생산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치유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4. 디지털 시대의 정치의식: 다양성과 관용

정보화라고 하는 상황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으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1987년 이래 꾸준히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진전되어 오면서 제도적으로나 정치 관행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개선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정치의식에 있어서는 아직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상대방과의 차이나 반대 의견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관용의 부족이다.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관용의 부족은 정치적으로는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의 경험과 그 유산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권위주의 통치는 본질적으로 합의와 동의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단일주적(monolithic)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권위주의 정권은 자신들의 정통성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상황적 불안감을 이용하여 정권에 대한 반대를 억누르게 위한 방안으로 ‘국론의 통일’을 유난히 강조하였다. 그 결과 정권에 대한 야당의 반대를 비롯한 모든 ‘이견’은 모두 이적 행위로 간주되었고 국론을 ‘분열’시켜 위기로 이끄는 것이라고 강조되었다.

탈냉전과 민주화 이후에도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주요 사안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의견이 갈릴 때마다 국론의 분열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자신이 처한 위치나 지위, 연령, 종교관, 세계관, 윤리관 등에 따라 각 개인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중시하는 가치는 각기 달라질 수밖에 없다.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70대 노인의 사고방식과 일치한다고 할 수 없고, 대기업 총수나 임원의 생각과 일반 서민들의 사고방식이 같을 수 없다. 즉 사회는 기본적으로 다원적(多元的)이다. 다양한 생각과 이해관계가 서로 교차하고 중복되고 때로는 대립하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의 기능은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와 생각을 대표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 사회라면 당연히 이러한 다양성이 정책결정과정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다양성이 용인되고 제도적으로 대표된다고 하는 사실이 민주주의의 제도적 우월성이고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절대주의, 권위주의 체제일수록 ‘국론의 분열’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언제나 하나의 목소리만으로 국론은 ‘통일’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부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람직하게

나 혹은 강하고 견고한 체제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즉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며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강요된 결정을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 법과 절차에 의한 통치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등 서구의 어느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으로 민주주의가 심화,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사안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권위주의 시대의 사고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맞서게 될 때 자기와 다른 견해를 부정적으로만 보려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이라크 파병이나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등 최근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이와 같이 팽팽한 견해 차이가 생겨나게 되면 여전히 ‘국론의 분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곤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기본적인 전제는 사회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겪지 않는 곳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 사회 내에서 전개되는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 갈등이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갈등은 이념이나 세계관과 같은 보다 추상적이고 가치지향적인 특성에 기초해 있다. 이러한 갈등은 과거와는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지역과 같은 물리적 경계나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갈등의 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의 경계를 쉽게 찾아내기 어렵다. 따라서 심지어 가까운 친구, 친척 혹은 한 가족 내에서도 심각한 견해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과거와 비교할 때 오늘날의 갈등을 더욱 혼란스럽게 느끼게 해 주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정책과 무관하게 정치적 경쟁이나 갈등이 전개되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적 문제와 이념적 지향점에 기반한 경쟁으로 변모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특정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보다 쉽게 확인될 수 있다. 예컨대 행정수도 이전이나 재산세 증과세 등은 그 정책 추진으로 인한 피해자와 수혜자가 쉽

사리 구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선택으로 인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보다 첨예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우리 사회만의 고유한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예컨대 지역간 갈등의 모습 역시 외국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캐나다의 퀘벡이나,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 스페인의 바스크나 카탈로니아 지방, 이태리 북부 등 지역간 갈등이 매우 심각한 곳이다. 이 밖에 스위스나 벨기에 등 다양한 민족의 구성으로 인해 갈등이 생겨나는 곳도 있고 미국과 같이 다양한 인종간 결합으로 사회적 갈등이 생겨나는 곳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가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한 이유는 우리 사회의 구성이 매우 동질적이기 때문이라는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우리 사회는 인종, 언어, 문화, 역사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매우 강한 동질성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다양성 혹은 ‘서로 다르다’ 라고 하는데 대한 거부감이 쉽게 생겨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사회적으로 이처럼 각기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현상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이다. 다양성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나와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나의 생각을 존중해줘야 하듯이 나 역시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다원주의적 시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처럼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가치를 무조건 수용하고 복종함으로써 강요된 ‘인식의 통일’ 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개인의 자유와 권한, 자율성의 토대 위에서 자율적으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내는 일에 대한 가치의 부여이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전개되는 정치적 토론을 보면 자유로운 토론보다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다른 생각을 갖는 이의 존재를 부정해 버리려는 모습이 자주 확인된다. 인터넷 토론에서 문제가 되는 욕설이나 무책임한 인신공격, 집단적 비판 등은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한 관용의 결여, 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편협한 인식으로부터의 변화

야말로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이 정치참여의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양성과 관용에 대한 존중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5. 결론

디지털 시대에 인터넷이 우리 정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이미 지대하다. 그러나 인터넷이 정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양면적이다. 그동안 자발적인 참여가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정치적 집단 형성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고 적지 않은 변화도 이끌어 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일상적인 정치토론이나 여론 형성과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즉 ‘참여’는 늘어났지만 정치 참여와 정치적 토론의 ‘질적 관리’의 문제가 제기되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속의 민주주의의 도래를 기대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지금이야말로 속의, 속의 (deliberation)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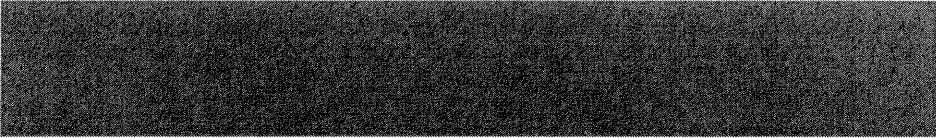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는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해 내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이나 원로의 역할은 크게 퇴조되었다는 사실과도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전통적인 부락의 원로와 같은 사회적 ‘어른’의 역할은 세대간 충돌로 이미 상당히 약화되었고 언론은 과거와 같은 사회적 사안에 대한 게이트키퍼로서의 강한 영향력을 상실했다.

결국은 개별 시민들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단기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민주시민 교육과 같은 건전한 의식을 갖는 시민 교육의 문제가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청소년들이 올바른 정치적 토론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에 힘쓰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05a).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서울: 인간사랑.
- 강원택. (2005b). 정보화, 정당 정치와 대의민주주의: 변화 혹은 적응?. 한국정치학회 춘계대회 발표논문.
- 강원택. (2004). 인터넷 정치집단의 형성과 참여: 노사모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20권 3호, pp. 161-184.
- 강원택. (2003).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푸른길.
- 강정인, 이현우, 이원태. (2002). 정보화와 한국인의 의식변화: 네티즌의 동호회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18권 4호, pp. 99-131.
- 김용철, 윤성이. (2005). 전자민주주의: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모색. 오름.
- 김용호. (2004). 네티즌 포폴리즘이나, 새로운 형태의 정치 참여인가: 「노사모」 사례연구. IT 정치연구회 월례회 발표 논문. (2004. 3. 13.)
- 송경재. (2004). 한국의 사이버 공동체와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성이. (2001). “인터넷 혁명과 시민운동의 새로운 전개”. 한국정치학회, 김영래 엮음. 정보사회와 정치, pp. 157-186.
- 이현우. (2002). 인터넷과 사회자본의 강화를 통한 선거참여: 미국 2000년 대선 의 경우. 한국정치학회보 36집 3호, pp.309-332.
- 임혁백. (2001). 정보화 사회와 민주주의: 한국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정치학회 편. 정보사회와 정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모색. 오름, pp.15-46.
- Arterton, Christopher. (1987). *Teledemocracy: Can Technology Protect Democracy?* Newbury Park, CA: Sage.
- Barber, Benjamin. (1984).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entley, Arthur. (1908). *The Process of Govern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irncross, Frances. (1999). *The Death of Distance: How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Will Change Our Lives.* 홍석기 역. 거리의 소멸@디지털 혁명. 서울: 세종서적.
- Gunther, Richard and Larry Diamond. (2001). Types and Functions of Parties, in Gunther and Diamond eds. *Political Parties and*

- Democrac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3-39.
- Katz, Richard and Robin Kolodny. (1994). Party Organization as a Empty Vessel: Parties in American Politics", in Katz and Mair eds. *How Parties Organize: Change and Adaptation in Party Organizations in western Democracies*. London: Sage, pp.23-50.
- Olson, Mancur. (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Panebianco, Angelo. (1988). *Political Parties: Organization and Pow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ed.) (2002). *Democracies in Flux: The Evolution of Social Capital in Contemporary Socie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are, Alan. (1996). *Political Parties and Party System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VI.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교사상

1. 서론
2. 교사역할의 중요성
3. 청소년들이 지각한 교사 만족도 현황
4.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교사상
5. 청소년의 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관한 대안
6. 결론

유 성 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연구 요약

청소년기는 독립과 의존사이에서 방황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지적 변화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이 가장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의미 있는 성인이 바로 교사이다. 청소년기의 경우, 교사는 성인으로서 역할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가치, 태도, 지식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감소, 자아존중감 향상, 학교에서의 균형된 심리, 사회적 적응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역할로 많이 국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우리 청소년들이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하고, 만족하는지 살펴보고, 이와 아울러, 부정적인 교사상에 관한 대안도 함께 모색해보려 한다.

VI.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교사상

1. 서론

1) 청소년의 특성

청소년은 아동으로부터 어른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행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정태연 외, 2002). 청소년은 의존과 독립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으며,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행동문제를 보일 수도 있다. 청소년은 각 개인의 성격특성 이외에도 자아관련 특성, 관계적 특성 및 과업적 특성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성인의 관점에서 만든 제도나 규칙에 따라 행동하기를 강요받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제재나 처벌을 받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단적인 예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도 이들은 성인이 정한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받고 있고, 과목 선택에 대해 아무런 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기호나 특징에 맞는 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임영식, 2003). 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어른의 보호는 간섭이나 지나친 금지, 또는 억압으로 청소년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최상진 외, 2004).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행위나 사고는 성인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성인들의 잣대에 맞추어진 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청소년들의 현주소이다. 그러나, 비록 청소년기는 틀에 박힌 상황과 어른들의 규율 안에서 생활하지만, 자율성과 독립성을 키워나가며, 동시에 관계적인 성숙도 이루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관계 특성을 살펴보면, 또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범이 되는 성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2)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연구한 결과(김의철·박영신, 2004)를 보면, 청소년들은 인간관계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여김을 알 수 있었다. 즉 교사 등 친밀한 어른들과의 관계는 사회성원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 가치, 태도, 사회관 등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지각은 불안정한 과도기적 발달 단계 속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감정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도와서 일상생활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게끔 한다(이경아·정현희, 1999).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역할의 중요성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교사에 대한 만족도 현황,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교사상(전통적인 교사상, 긍정적 교사상, 부정적 교사상), 일탈청소년과 일반 청소년들의 교사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 아울러 부정적 교사상에 관한 대안도 모색해 볼 것이다.

2. 교사 역할의 중요성

1) 학교 중심의 환경

학령기 이전의 아동은 가정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위주로 자신의 성격을 형성하고, 적응해 왔던 것에 반해, 학령기 이후에는 아동생활의 중심이 학교로 옮겨지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에 이르러 중학교에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느냐의 여부가 청소년기 이후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문은식·김충희, 2002). 따라서 청소년을 이해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학교생활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이경아·정현희, 1999).

2) 교사의 역할

청소년들에게는 학교 내에서 또래나 교사들과 맺는 인간관계가 학교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의 전반적인 행동변화와 발전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교사라고 할 수 있다(김정환, 1991). 일생을 통해서 교사만큼 청년의 사회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드물다(정옥분, 2005).

교사는 학생의 성취에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요조건이다. 즉 교사는 학교환경에 적응을 돕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교사에게 사회적·학업적 기술과 수행기준을 관찰하고, 본받기 때문이다(김희수·윤은중, 2004). 또한 청소년들이 지각한 교사의 행동을 통해서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등에 대한 가치인식이 이루어지며, 가치인식의 그 정도에 따라 수행력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Lynch & Cicchetti, 1997).

교사들의 적절한 교수방법은 청소년들의 학습의욕과 학업성취에 대한 동기부여의 일차적 요인일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학생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질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조성남 외, 2002). 즉 청소년학생이 교사와 가까운 관계를 맺거나 학교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와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학습내 학습활동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아·정현희, 1999).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감소, 자아존중감, 학교에서의 균형된 심리, 사회적 적응을 도모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3.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 만족도 현황

1)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대인관계의 중요도

한국청소년상담원 연구보고서(2003)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가족, 친구, 교사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기는지 조사해 본 결과, 가족에 대해서는 91.6%, 친구와의 관계는 93%,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61.1%순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친구, 교사와의 관계가 모두 중요하기는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와 친구관계가 교사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교사에 대한 만족도

김병성 외(1982) 연구의 경우,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대다수가 교사는 학생들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이해해 주지 않으며(57.3%), 학생들과 대화하려 하지 않으며(48.6%), 존경할만한 선생님이 없다(25.6%)는 부정적인 교사상을 나타냈는데 반해, 최근(2004)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들(15-19세)의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43.2%(매우 만족: 11.5%, 약간만족: 31.7%, 보통: 45.3%), 불만은 11.7%(약간 불만: 9.3%, 매우 불만: 2.4%)로 청소년들의 교사 만족도가 향상됨을 알 수 있다.

교사에 대한 청소년들의 존경심에 대한 최근의 연구결과(조성남 외, 2002)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최소한 몇 명 정도의 존경하는 교사가 있다고 응답(86.7%)했으며, 존경하는 교사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전체 15%정도로 낮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여전히 교사에 대한 존경심 및 존경할만한 교사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교사상

1)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교사상의 유형

(1) 전통적인 교사상

성인교사가 미성년인 청소년을 보호하고 관찰하는 유형으로, 억압적 관계로 볼 수 있다. 학교 청소년들은 교사의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신뢰하기보다는 무조건적 절대적 신뢰를 하는 경향이 있다. 즉 교사를 신뢰하는 이유도 스승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일 수 있다. 많은 경우 개인적 능력을 신뢰하기 보다는 교사의 성실성, 정직함, 도덕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김의철·박영신, 2004). 이러한 교사상은 교사는 무조건 존경의 대상이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유형이다. 요즘의 청소년들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혹은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교사를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다보기 보다는 다각적 측면에서 청소년들 나름의 시각과 판단기준을 가지고 교사를 평가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형의 교사상은 요즘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교사상은 아니며, 특히 저항적인 청소년의 경우 부정적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조성남 외, 2002).

(2) 긍정적인 교사상

학교환경의 관계차원은 청소년들에게 중요하다. 관계차원은 제노바(Genova, 1981)의 인간관계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긍정적인 교사-학생관계를 의미한다. 긍정적인 교사-학생관계의 특징으로는 신뢰, 감정이입, 사랑, 시간 제공, 재정적 도움, 지도, 조언, 평가 등을 들 수 있다.

에릭슨(Erikson, 1968)은 훌륭한 교사는 청년으로 하여금 열등감 대신 근면성을 갖도록 만든다고 믿는다. 심리학자와 교육자들은 훌륭한 교사는

위엄과 열의, 공정성과 적응력이 있으며, 따뜻하고, 융통성이 있으며, 학생들의 개인차를 잘 이해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제안했다(Jussim & Eccles, 1993).

미국의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훌륭한 교사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Norman & Harris, 1981; Kirby, & Stringfield, 1989), 청소년은 공정하고, 실력이 있으며, 수업에 열의가 있으며, 학생들을 좋아하면서도 위엄이 있으며, 신뢰를 줄 수 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열등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교사상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연구(조성남 외, 2002)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교사의 특성 및 요건으로, 교사의 관심과 배려(56%), 공정한 대우(44%), 풍부한 유머감각(31%), 강의능력(26%), 자율성 부여(15%), 체벌 안 하는 교사(3.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학생들은 청소년의 발달과업을 이해하고, 청소년 개개인에게 인간적인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그들의 적응문제를 이해하는 교사, 지나치게 권위적이거나 학생과 친구처럼 어울리려는 교사보다 합리적인 규제를 하고, 자연스럽게 권위를 행사하는 교사를 좋아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역으로, 현재 교육현실속에서 교사와 학생들간의 친밀하고 원활한 인간관계가 청소년들의 실제 기대에 비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조성남 외, 2002).

(3) 부정적인 교사상

학생들은 교사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며, 교사의 행동에 대해서 그 이면의 의미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김정환, 1991).

청소년의 학교를 싫어하는 이유 중 교사 혐오가 높은 비율을 차지함(김의철·박영신, 1999)을 볼 때, 청소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교사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되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교사에 대해서 느끼는 적대적 지각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박영신·김의철, 2004). “나를 거칠게 대하신다.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말을 듣지 않는다고 비난하신다. 나의 행동에 대해서 잔소리와 책망을 하신다. 화가 나셨을 때 나에게 심하게 벌을 주신다. 나에게 불쾌한 말을 많이 하신다.”

청소년학생이 교사와 갈등을 겪는 상황은 “성적에 대해서 지나친 압력을 가했을 때, 부당하게 처벌할 때, 선생님이 학생의 의견에 관계없이 무조건 결정할 때, 학생들을 편애 또는 차별할 때, 외모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할 때, 심한 욕으로 인격적 모독을 줄 때, 수업방식이 지루하고, 공부를 잘 못 가르칠 때”를 들고 있다.

교사의 차별적인 지도과정은 학생의 성취동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생들은 그러한 차별을 받음으로써 교사들의 기대한 바를 알게 되고, 간접적으로 학생들의 수행력기대와 동기유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Weinstein, 1983). 학생들은 교사들이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높은 기대감, 높은 학업적 요구 및 특혜를 주는 것으로 지각했다. 교사의 무의식적, 의식적 행동자체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경시할 수 없다(김정환, 1991).

그리고,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교사의 결핍된 정서적 지원의 예를 살펴보면,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지 않는다.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지 않는다.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는다. 고민을 들어주지 않는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지 않는다.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격려해 주지 않는다.”가 포함된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은 교사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다.

즉 청소년들은 교사가 진정한 관심과 배려, 정서적 지원을 제공해 주지 않고, 공정한 태도와 대우를 해주지 못할 때, 그리고 존중이 아닌 일방적인 압력과 강압적 행동을 행사한다고 느낄 때, 부정적인 교사상으로 지각한다.

2) 지각된 교사상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청소년이 교사에 대해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생활에서의 적응도에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이 교사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청소년 학생은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음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많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의 정서적·정보적 지원은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김의철·박영신·곽금주, 1998). 즉 교사가 정서적이고 정보적인 지원을 제공할수록, 청소년들은 교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상을 가지며, 생활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교사와 학생간의 원만한 관계는 학생들의 학업수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Branwhite, 1988; Roueche, Baker, 1986). 즉 교사가 학생들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면 학생들은 교사와 학교수업에 대해서 더 호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교사가 진실되다고 여길수록 학업경험의 가치를 더 높게 지각한다(Kendrick et al., 1993).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교사의 지원이 높을수록 청소년은 노력 귀인을 많이 하게 되고, 운명 귀인은 적게 하게 된다(김의철·박영신, 1999).

실제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청소년들이 지각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고등학생의 숙달목표 지향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문은식, 2002). 그리고 학교에서의 긍정적인 교사-학생관계는 청소년의 학업동기 및 성취와 관련이 있다(Midgley, Feldlaufer, & Eccles, 1989; 문은식·김충희, 2002)는 연구 결과도 보고 되었다. 즉 교사로부터 보살핌과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학생들은 교사가 중요시 여기는 목표와 가치를 채택하고, 내면화하고, 성취할 수 있다(문은식, 2002). 지각된 교사의 지지는 학습목표 및 교육적 열망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이다(Harter, 1996; Wentzel, 1997; 문은식, 2002).

청소년들은 교사의 교수법 못지 않게 인간적인 교류를 중요시 여김을

알 수 있다. 즉 교사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하면 긍정적인 학업동기가 형성되며, 이러한 학업 동기는 학습목표를 달성하게 하여 친사회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초래함을 알 수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교사가 성취 지향적이고 학생을 격려하는 분위기 일 때 학생들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이게 되어서 결국은 학업성취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500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교사가 학생들에게 호의적이고 지원을 해줄수록 학생들은 자아동일성과 자아수용성이 높았다(김의철·박영신, 1999).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의 행동이 수용적일 경우 학생들이 학교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김희수·윤은중, 2004)도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준다.

이에 반해 교사의 통제 압력은 학생들의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학업성적과도 상관이 없었다(서현자, 1990). 교사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을 뿐 아니라 비행 및 또래관계에 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이경아·정현희, 1999).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학생들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관계의 질은 학생들의 개인발달과 학업성취와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Drevets, Benton, & Bradley, 1996). 즉 청소년학생들이 교사에 대해서 지지적이고, 친밀하게 지각할수록, 학생들의 발달과 적응을 도모함을 알 수 있다.

3) 일탈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교사에 대한 인식차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교사와 청소년 학생간의 관계는 비행과 또래관계문제와 특히 관련이 있었다(이경아·정현희, 1999).

청소년기동안 청소년들은 좀 더 자율적이고, 갈등적이고, 어른들과 거리를 두기 때문에(Steinberg, 1988), 청소년기의 갈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교사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Drevets, Benton, &

Bradley, 1996).

학교에서의 인간관계, 특히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에서 일탈청소년과 일반 청소년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박영신·김의철, 2004).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일탈청소년들은 성취도가 낮고, 교사와 적대적 관계에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성취도가 높은 일반 청소년은 교사가 자신에게 잘 해준다고 지각했다. 청소년은 교사가 자기에게 적대적으로 대한다고 여길수록 교사의 행동에 상관없이 교사를 불신하게 된다.

위탁청소년과 일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행동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본 결과(박영신·김의철, 2004), 교사학생관계가 청소년의 일탈행동이나 성취행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즉 교사가 자기에게 적대적으로 대한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의 행동은 심각한 일탈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교사가 자기에게 인간적인 애정을 갖고 따스하게 대한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의 행동은 학업성취를 추구하는 행동과 더욱 많이 관련되어 있었다.

5. 청소년의 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관한 대안

1) 친밀하고 인간적인 교사상

교사와 부정적인 관계의 회복은 교육현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박영신·김의철, 2004). 특히 일탈청소년들은 교사와 적대적 관계뿐만 아니라 갈등을 많이 경험하며, 정서적 지원도 적게 받는다고 지각한다. 이렇게 일탈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교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일탈청소년들이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교정되어 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에 기초하는 불신이 제거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교사로부터 어떠한 교육적 처치도 아무런 성과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

사의 적대적 관계를 회복하고, 교사와의 갈등 해소, 교사의 정서적 지원(따뜻함/ 이해/ 격려)의 확대가 필요하다(박영신·김의철, 2004).

2) 교사의 거래적 · 변혁적 리더십

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교사의 리더십은 중요하다. 변혁적 지도성이 청소년들의 발달과 욕구에 부합할 것이다(정준교, 2001).

청소년은 그들의 개성과 자율성을 인정받고, 그들을 존중하고, 앞으로 나아갈 큰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교사상을 원할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사의 지도성은 바로 변혁적 리더십이다.

즉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도전적인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줄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욕구와 능력을 가진 개성 있는 한 인간으로 존중해주며, 학생들에게 자신감, 신뢰감, 존중감, 사명감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변혁적 리더십이 청소년들에게는 필요한 것이다(Bass, 1985).

실제로 청소년학생들은 그들의 몰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데는 교사들의 변혁적 지도성의 효과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준교, 2001). 이외에도 교사의 거래적 리더십도 청소년들에게는 필요하다고 지각되고 있다. 거래적 리더십은 목표를 달성하면 긍정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기준에 못 미칠 때는 부정강화를 하는 지도성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은 학교중퇴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교사의 지도성으로 거래적 지도성이 효과가 있다고 지각한다(정준교, 2001).

6. 결론

1) 청소년기의 긍정적 교사상에 대한 필요성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하루의 일과 중 많은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과정을 통해 자아개념과 사회성, 그리고 청소년으로서의 지위를 형성하게 된다. 가정교육과 사회교육 기능의 약화로 인하여, 학교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강한 학교생활을 보내는 것은 학업수행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장영미, 2000).

특히 학교생활 중에서도 교사의 역할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초기에서 시작하여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학교적응과 관련된 발달과정은 교사의 행동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청소년기의 건강은 일상생활에서의 인간관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으로서 교사도 한 부분 차지하고 있으며(장영미, 2000), 동시에 교사는 청소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대상이 되며, 성인 역할모델이 된다.

존슨과 존슨(Johnson & Johnson, 1993)은 학교, 학급,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가 학교활동이나 학업성취도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는 교사의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태도에 의해서 촉진된다(김성일, 1993).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와의 애착은 청소년의 자율성과 정체감 형성을 위해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Erikson, 1968). 청소년이 가지는 교사에 대한 애착안정 정도는 대인관계와 학교적응 양상에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교사와의 경험은 청소년의 정서발달 및 대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김희수·윤은중, 2004).

청소년의 심각한 일탈행동은 특히 교사의 낮은 수준의 지원과 교사-청소년학생간의 적대적 관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교사는 청소년의 포부수준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등의 심리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교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해 줌으로써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김의철·박영신, 1999).

교사들은 단순한 지식전달과 지도편달의 차원이 아니라, 보다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에도 염두를 두고 학생들을 지도해야 된다 (이경아·정현희, 1999). 특히 반항적이거나 갈등 중에 있는 학생이나,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취약함을 알고 이들이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해야된다.

공감적 이해도가 높은 교사로부터 배운 학생은 학업성취도가 높고, 결석 횟수가 감소되며, 긍정적 자아개념 점수도 높고, 훈육상의 문제도 적게 나타난다(박성희, 1994)는 사실을 교사들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긍정적인 교사상을 정립하기 위한 제안

이러한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합하여, 긍정적인 교사상을 정립하기 위한 제안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촉진적 인간관계 형성과 수업풍토 조성을 위한 사범대학의 교과과정과 연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또한 학생의 태도 및 학생 개인의 문제성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조기 발견, 조기 교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육정책이 요구된다(장영미, 2000).

둘째, 성인과 거리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사의 공감, 따뜻함, 순수성이 중요한 교육전략이 될 수 있으므로(Steinberg, 1988), 적절한 교

사-학생간의 애착증진 프로그램 고안이 필요하다(김희수·윤은중, 2004).

셋째, 청소년들의 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감 형성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성적이나 집안배경 등의 요건과 상관없이 교사로부터 인간적인 관심과 애정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다각적인 개선방안의 모색과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담임교사와 개별 학생들과의 면담기회를 늘리고, 학교차원에서 청소년들이 처한 문제를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상담교사 및 상담기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조성남 외, 2002).

참 고 문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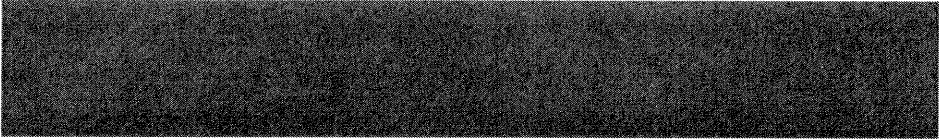
- 김병성·정영애·이인효(1982). 중등학교 자율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종합대책.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선일(1993).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공감적 이해도 비교: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6권 제2호, pp.58-94.
- 김의철·박영신(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제13권 제1호, pp.99-142.
- 김의철·박영신(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9권 제4호, pp. 973-1002.
- 김의철·박영신·곽금주(1998). 한국청소년문화의 형성요인 탐색과 비교문화적 분석. 한국학술진흥재단 97 공모과제 중간보고서.
- 김의철·박영신·곽금주(1998). 한국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 부모, 교사, 친구의 영향. 98연차대회 학술논문집(p.175).
- 김의철·박영신·곽금주(1998). 한국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 형성요인: 도시와 농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3권 제1호, pp.79-101.
- 김정환(1991). 교사의 기대, 학생의 자기수행예언력 및 수행력 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제5권 제1호, pp.53-71.
- 김희수·윤은중(2004).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의 행동과 애착안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15권 제2호, pp.93-115.
- 문은식(2002). 고등학생이 지각한 학교의 심리적 환경과 목표지향성의 관계: 목표차원과 관계차원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제16권 제4호, pp.5-21.
- 문은식 김충희(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제16권 제2호, pp.219-241.
- 박성희(1994). 공감,공감적 이해. 원미사.
- 박영신, 김의철(2004).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학생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특집호), pp.87-115.
- 서현자(1990). 학급환경의 지각변인 및 작용변인과 학생의 학업성적 및 자아개념 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송인섭(2001). 학습자의 자아개념형성에 관련된 교사변인의 재 음미. 교육심리연

- 구, 제15권 제4호, pp.253-267.
- 이경아·정현희(1999).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제11권 제2호, pp.213-226.
- 장영미(2000). 청소년이 지각한 학교환경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의 관련요인 분석.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제17권 제2호, pp.35-56.
- 정옥분(2005).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준교(2001). 고등학생의 학교몰입 증가와 중퇴의도 감소를 위한 교사의 지도성 유형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제39권 제1호, pp.159-176.
- 정태연·최상진·김효창(2002). 아동과 어른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 성격적, 관계적 및 과업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8권 제2호, pp.51-76.
- 조성남·이동원·박선웅(2002). 청소년의 하위문화와 정체성: 또래집단, 가족, 학교를 중심으로. 서울:집문당.
- 최상진, 김양하, 황인숙(2004). 한국문화에서 청소년이란 무엇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0권 특집호, pp.11-28.
- 통계청(2005). *청소년 통계*.
- 한국청소년상담원(2003). *우리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청소년의 삶과 고민, 10년의 변화.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48.
- 한상철·김혜원·설인자·임영식·조아미(2003). *청소년문제행동:심리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 Bass, B. M. (1985). *Leadership and performance beyond expectations*. N.Y: Pree Press.
- Birch, S. H., & Ladd, G. W.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35, pp.61-79.
- Brandwhite, T. (1988). The PASS survey: School-based preferences of 500+ adolescent consumers. *Educational Studies*, Vol.14, pp.165-176.
- Drevets, R. K., Benton, S. L., & Bradley, F. O. (1996). Students's perceptions of parents's and teachers' qualities of interpersonal relat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25, No.6, pp.787-802.

- Elias, M. J. (1989). School as a source of stress to children: An analysis of casual and ameliorative influence.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27, No.4, pp.393-407.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enova, W. J. (1981). A Study of interaction effects of school and home environments on studies of varying race/ethnicity, class, and gender. Eric Accession Number ,ED221622.
- Harter, S. (1996). Teacher and classmate influence on scholastic motivation, self-esteem, and level of voice in adolescents. In J. Jovonen & K. Wentzel(Eds), *Social motivation: Understandi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pp.11-421).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hnson, W. L., Johnson, A. M. (1993). Validity of quality of school life scale: A primary and second-order factor analysi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53, pp.145-153.
- Jussion, L., & Eccles, J. S. (1993). Teacher expectations II: Construction and reflection of student achiev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3, pp.947-961.
- Kendrick. S., Bryant, S., Simmons, J. M., Richards, B. F., & Roberge, L. R. (1993). Resident's perceptions of their teachers: Facilitative behavior and the learning value of rotations. *Medical Education*, Vol.27, pp.55-61.
- Lynch, M., & Cicchetti, D. (1997). Children's relationship with adults and peers: An examination of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35, pp.91-99.
- Midgley, C., Feldlaufer, H., & Eccles, J. S. (1989). Student/teacher relations and attitudes towards mathematics before after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school. *Child Development*, Vol.90, pp.981-992.
- Norman, J., & Harris, M. W. (1981). *The private life of the American teenager*. New York: Rawson, Wade.
- Roueche, J., & Baker III, G. A. (1986). *Profiling Excellence in America's schools*. The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Administrators,

Arlington, Va.

- Steinberg, L. D. (1988). Reciprocal relation between parent-child distance and pubertal matu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4, pp.122-128.
- Teddlie, C., Kirby, P. C., & Stringfield, S. (1989). Effective vs. ineffective schools : Observable differences in the classroom.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Vol.97, pp.221-236.
- Weintein, R. S. (1983). Student perceptions of schooling,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Vol.4, pp.287-312.
- Wentzel, K. R. (1997). Student motivation in middle school: the role of perceived pedagogical car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89, pp.411-419.



결 론

결론

이 보고서는 현재의 한국사회가 급격한 변화의 과정에 있다는 상황 인식을 함께 하면서, 미래 사회를 예견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이라는 성장 세대에 주목하였다.

황상민 교수는 현대 한국사회가 급격한 근대화와 산업화라는 변화를 거치면서 전통적 보수적 가치관과 서구적 가치관이 혼란스럽게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세대차에 따라 생활양식 차이가 생기고, 이로 인하여 인간관계에서도 차이가 생겨버린 현상에 주목하면서 Erikson이 소개한 수우족 인디언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공유의 경제 원리에 익숙했던 인디언 부족이 경쟁의 생활윤리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은 문화적 병리현상이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정체성의 혼란과 인간관계에서의 장애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구적인 가치관을 내면화시킨 새로운 세대는 카오스적 정체성으로 인간관계의 불규칙성과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삶의 재미, 다양성, 끊임없는 선택과 변화, 순간적인 만남, 멀티태스킹 등이 “카오스의 아이들”인 청소년식 인간관계의 특성이다. 미래의 인간관계에서는 고정적인 관계 개념은 사라지는 대신, 게임 속에서의 역할처럼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리라고 예측된다. 이를 분열과 혼란 또는 불확정성으로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인간에게는 다양함을 통해 드러나는 표면적인 모습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질서를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미래의 인간관계는 현재의 규범적, 단선적, 위계적인 모습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모습으로, 다양성 속에서의 불규칙한 인간관계를 나타낼 것이라는 결론이다.

장경섭 교수는 국가-기업-매체라는 보수연대의 삼각동맹체제가 주도한

새로운 경제성장의 개발패러다임이 정보화를 가속화시켰다고 전제하면서, 정보화가 청소년에게 미친 영향과 작용을 질적 변화의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즉, 정보화와 정보통신공간의 확산으로 인하여 청소년기 관리체계가 국가-학교-가족이 연대, 동맹하던 지식주입체계를 벗어나 국가-기업-매체 동맹으로 변화했으며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주도적 소비집단, 창조적 문화집단, 진보적 정치집단으로서 새로운 입지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 학교, 가족이 청소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가는 변화 과정이 상술된 후, 산업자본의 차원에서 볼 때 청소년이 생산인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원천일 뿐만 아니라 주요 소비자(특히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에서)로 기능하게 된 새로운 현실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새로운 통신, 교류 공간에서 새로운 매체질서를 주도하게 된 청소년 세대가 사이버 공간 자체를 새로운 정치영역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정치적으로도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청소년의 주도로 매체 소비구조의 획기적 변화가 정치질서의 근본적 재편을 초래했으나 국가-학교-가족 동맹의 잔존 영향력은 여전히 매우 복잡한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장경섭 교수의 결론이다.

김옥순 교수는 시간과 공간의 분리, 융합현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정보사회에서 지역사회의 개념이 새롭게 변화함을 주목하였다. 지역사회는 현실공간(거주지와 학교)의 공동체, 사이버공간의 공동체, 기능적 공동체(친족공동체)라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김옥순 교수가 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청소년들은 정보사회에서 “관계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 김옥순 교수는 미래사회의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의 상호관계와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이 지니는 공통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정보격차라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적 공동체라는 또 다른 사이버공동체가 지닌 - 물리적

거리감을 정신적 긴밀함으로 용해시켜 형성되는 독특한 공동체라는 - 특성을 들어,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영역이라고 덧붙인다. 디지털 시대에 혈연에 근거한 기능적 공동체는 과거보다도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더욱 공고한 연대감과 빈번한 상호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으나, 이러한 조건들이 기능적 공동체의 확장에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함을 들어 앞으로의 보다 세밀한 관찰을 새로운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배영자 교수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과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를 소개하며 정보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어떤 방향으로 형성, 변화되는지를 중요한 문제로 부각시켰다. 그리고 청소년의 세계인식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나타나는 개인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주제라는 차원에서 보았다. 이 분야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미흡함을 들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우선 청소년 정보문화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정리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이 세계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가치관을 수용하고 있긴 하지만, 세계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 지식, 분석능력,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며, 정보수집과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능력이 준비되지 않았고, 참여의지도 결핍되었다는 것이다. 엄청난 양의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세계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공간을 청소년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세계 인식의 도구로 활용하려면 우선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증대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동시에 세계에 대한 유용한 정보나 지식을 담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소년이 입시의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오프라인에서도 청소년이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교류의 기회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청소년의 세

계 인식이라는 문제가 우리 사회전체에서 세계 인식의 수준을 높이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강원택 교수는 인터넷의 도래로 인한 정치적 참여와 논의 구조의 변화에 청소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보았다. 보고서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과정의 구체적인 특성과 문제점을 상술하고, 특히 디지털 시대의 정치의식에 있어 다양성과 관용의 정신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정치토론이나 여론형성의 면에서 양적인 참여는 늘어났지만 질적인 관리가 문제로 제기되며, 속의 민주주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한다. 이러한 일반론을 전개한 강원택 교수는 청소년과 관련한 장기적인 대안으로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과 청소년들이 올바른 정치적 토론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에 힘쓸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사회의 정치풍토와 관련하여,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해내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이나 전통적인 부락의 원로와 같은 사회적 어른의 역할이 세대간 충돌로 인해 약화되었다는 점은 청소년 교육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의 특성상 교사의 역할은 성인 역할모델로서 매우 중요하다. 가정교육과 사회교육 기능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중이 커진 학교교육에서 청소년의 학습수행과 삶의 질에 교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교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유성경 교수 보고서의 핵심과제이다. 유교수는 오늘의 청소년 학생들이 교사에 대하여 기대하는 친밀하고 원활한 인간관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유성경 교수가 결론에서 긍정적인 교사상을 정립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사범대학의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동시에 교사와 학생 사이에 친밀한 관계와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이번에 실시된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에

관한 연구는 미래를 향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중요한 출발을 하였다.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동양식 연구가 디지털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적 변수를 고려하여 보다 높은 차원에서 연구되고 보다 넓은 범위의 후속 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청소년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올바른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5-R01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맹영임 · 김민 · 임경희
- 05-R02 청소년 매니아 문화의 실태와 정책 과제 / 조혜영 · 김종길
- 05-R03 청소년지도사 근로실태 및 전문화 방안 연구 / 길은배 · 이미리 · 문성호
- 05-R04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평가시스템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김경화 · 조용하
- 05-R05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 · 협력 방안 연구 / 이민희 · 임지연 · 김흥주 · 주동범
- 05-R06 국제청소년교류활동 평가체계 및 모형 개발 / 오해섭 · 김진화
- 05-R07 청소년 갈등해결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 / 최창욱 · 김정주 · 조영희
- 05-R08 청소년 복지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 김경준 · 최인재 · 조홍식 · 이용교 · 정익중 · 이상균
- 05-R08-1 외국의 청소년복지정책 / 김경준 · 최인재 · 김향초 · 주재현 · 윤혜순 · 김문섭
- 05-R09 특별지원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지침서 개발 연구 / 이혜연 · 조아미 · 박현선
- 05-R10 청소년 보호정책 실태와 발전 방안 / 윤철경 · 박병식 · 김현주 · 이봉주 · 김성경
- 05-R10-1 영국, 독일, 프랑스의 청소년보호관련 법제와 정책 자료집 / 윤철경 · 장해영
- 05-R11 청소년보호시설 · 단체의 역할 정립방안 연구 / 이춘화 · 방은령 · 윤옥경
- 05-R12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II :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 · 백혜정
- 05-R12-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의 실태 및 학교부적응 관련 효과 / 이경상 · 유성렬 · 박창남
- 05-R12-2 청소년비행의 상습화현상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이순래 · 박철현
- 05-R12-3 초등학교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 백혜정 · 황혜정
- 05-R13 청소년개발지표 연구II: 측정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 김현철 · 김신영 · 김진호 · 송병국 · 임성택 · 임영식
- 05-R14 청소년 정보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 · 성윤숙 · 권기창 · 이수진 · 이인호
- 05-R14-1 청소년 정보복지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 · 성윤숙 · 권기창
- 05-R14-2 청소년의 정보이용 활성화 정책 연구 / 박영균 · 성윤숙 · 이수진
- 05-R14-3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정책 / 박영균 · 성윤숙 · 이인호

■ 협동연구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1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연구III : 청소년유해업소, 유해매체, 유해행위, 법 · 행정 · 제도환경, 외국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김영한 · 이명진 · 이승현 (자체번호 05-R1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2 청소년 유해업소 개선대책 연구 / 유진이 · 김영인 · 류중석 · 신현숙 (자체번호 05-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3 청소년 유해매체 개선대책 연구 : 인터넷 유해요인과 개인 · 환경적 보호요소를 중심으로 / 서정아 · 김영희 · 김서연 (자체번호 05-R17)

■ 연구수행 자료집

05-M00 2004 연구성과 모음집 / 연구기획팀

05-M01 2005년도 고유과제 실행계획서 모음 / 연구기획팀

05-M02 2005년도 고유과제 중간보고서 모음 (전6권) / 연구기획팀

05-M03 청소년육성기금사업 평가 「평가편람」 / 김경화

■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1호 (통권 제41호) / 연구정보지원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2호 (통권 제42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봉사활동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론」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 05-R48 위기청소년 지원시설과 지원정책 현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윤철경 · 이혜연 · 서정아 · 윤경원 · 이봉주 · 양미진
- 05-R49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평가 / 김경화 · 김현철 · 이경상 · 조혜영 · 최인재
- 05-R50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평가 2 · 공모사업성과평가 / 김경화 · 조혜영 · 최인재
- 05-R51 2005 서울시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평가 / 김현철 · 백혜정 · 성운숙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5-S01 「새로운 통합 청소년 정책비전 및 정책과제 토론회」 청소년위원회 공동주최 (3. 16)
- 05-S02 「새로운 청소년 정책비전과 정책과제 공청회」 청소년위원회 공동주최 (3. 30)
- 05-S03 「2006년도 고유연구사업과제 발굴 · 선정을 위한 워크숍」 (3. 22)
- 05-S04 「청소년유형별 복지현황과 과제」 (7. 14)
- 05-S05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II」 (9. 2)
- 05-S06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 (9. 23)
- 05-S06-1 「외국의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9. 23)
- 05-S07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 · 협력 방안」 (10. 11)
- 05-S08 국제심포지엄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국제적 동향 및 정책과제(Building a Community-based Safety Net for Youths at Risk)」 청소년위원회 · OECD 공동주최 (10. 11)
- 05-S09 「갈등해결 관련 민간인프라 구축현황 및 향후과제」 (10. 22)
- 05-S10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II」 (11. 4)
- 05-S11 「청소년 인권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숍」 (11. 8)
- 05-S12 정책포럼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 전문가 포럼」 서울특별시 공동주최 (11. 11)
- 05-S13 「청소년 문제행동의 사회적 비용구조분석 연구」 (11. 11)
- 05-S14 「청소년 갈등해결 리더십 캠프」 자료집 (7. 22-24)
- 05-S15 학술세미나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가치관과 행동양식」 한국정보사회학회 공동주최 (11. 22)
- 05-S16 「청소년 정보화정책 비전과 추진과제」 (11. 23)
- 05-S17 「청소년 조기유학 결정과정과 적응, 초국가적 가족관계 연구」 워크숍 (11. 25)
- 05-S18 해외학자 초청 워크숍 「College Dispositions : Chicagoland Korean America」 (6. 23)
- 05-S19 해외청소년기관 초청 정책 세미나 「중국의 사회변화와 청소년」 (7. 12)
- 05-S20 「청소년 보호정책의 대안 탐색 : 위기청소년 보호와 유해환경 개선대책」 (9. 15)
- 05-S21 국정과제 청소년분야 집중토론회 「향후 10년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 경제 · 인문사회 연구회 · 한양대 교육문제연구소 공동주최 (10. 6)
- 05-S22 OECD 전문가회의 「Policies for Youth at Risk and Community-based Partnership in Korea」 (10. 10-11)
- 05-S23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12. 6)
- 05-S24 「한국청소년개발원 산 · 학 · 연 정책협의회」 (12. 15-17)
- 05-S25 전문가 포럼 「또띠아 함께하는 청소년교육과 문화」 경기도문화의전당 · 한양대 교육문제연구소 공동주최 (12. 20)
- 05-S26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2. 2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4 청소년 유해행위 개선대책 연구 :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
동의 보호요인 탐색과 처치방안 / 한상철·김남선·이수연·이미연·최성열 (자체번호 05-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5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대책 연구 /
최인섭·강석구·김혜경 (자체번호 05-R19)

■ 수시과제

05-R20 문화콘텐츠 창작을 위한 창의적 문화교육 방안 연구 / 서동훈·김효정
05-R21 디지털시대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동양식 / 이각범·황상민·조은·김옥순·배영자·강원택·유성경
05-R22 청소년의 자율성과 창의성 계발을 위한 부모교육 방안 연구 / 한정란·이성호·강승혜·김미옥·
김은정·김혜수·박정화
05-R23 고교생의 생활의식과 친구관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김현철

■ 용역과제

05-R30 제주도 청소년문화특화프로그램 개발 연구 / 김진호·최창욱
05-R31 제주도 청소년들의 여가문화실태 및 요구조사 / 김진호·최창욱
05-R32 청소년정책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 / 이민희·김진호·최창욱·강일규·강정석·김은경·김흥주·
김현철·성운숙·최인재
05-R3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분석 연구 / 김영한·이춘화
05-R34 농어촌 청소년복지정책 평가 및 프로그램 개발 / 김경준·오해섭·김진모
05-R35 동북아 청소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 오해섭·윤철경
05-R36 청소년위원회 BPR/ISP 구축 / 성운숙·백혜정·김신영·윤경원·최봉학·박홍표·정병진
05-R37 청소년의 조기유학 결정과정과 적응, 초국가적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 조혜영·이경상·
최원기·Nancy Abelman
05-R38 오늘의 청소년 (Korean Youth of Today) / 박영균·김진호
05-R39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맹영임·박옥식·전명기
05-R40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 방향 연구 / 김경준·이춘화·최창욱·이용교
05-R41 2005 청소년백서 / 박영균·김현철
05-R42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민간인프라 구축 현황 및 방안 / 최인재·최창욱·반홍식·박수선
05-R43 청소년 문제행동의 사회적 비용구조 분석 연구 / 김경화·권해수·김혜영·박정선·박철현·
이지연·장승욱·정슬기·황규희
05-R44 청소년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모델 개발 연구 / 맹영임·길은배·김정주·김홍원·전명기
05-R45 청소년인권 실태 조사 연구 / 길은배·이미리·이용교·임영식
05-R46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 출제지침서 / 이춘화·김영한
05-R47 2005년 특성화수련거리·자연재해 예방 및 대처훈련 / 임지연·민성환·신명철

연구보고(수시과제) 05-R21

디지털 시대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동양식

인 쇄 2005년 12월 28일

발 행 2005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배 규 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전화 (02)786-2999 대표 박진태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89-7816-597-4(93330)
